

성경 공과

제4권

기초 1반 (Basic Class 1)



바벨탑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성경 공과

제4권

Basic Class 1



아니타 에스. 들 지음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이 책에 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6명 정도의 성경 그룹 모임이라면 혼자 만의 이해보다는 비슷한 연령, 비슷한 학력, 또는 비슷한 전문 직업이 모이는 관계로 각자의 의견 교환으로 인해 보다 더 빠른 이해의 속도와 흥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영문판의 경우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원저자의 본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편집하였고, 다시 각 권은 6반(수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권의 책의 부피가 8-900페이지인 관계로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내용의 수준이 각자의 성경 이해 수준과 맞지 않아 성경을 공부하는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는 한 장 전체를 다 읽으면 결국 머리에 남는 것은 난해하다..., 뭐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경우가 발생하는 분들이 많아서 각 권을 각 반별로 분류하여 모아서 재편집했기에 원서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짧은 시간만을 할애해도 그 단원 성경 부분의 이해를 돕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책은 총 번역본 24권(4*6) 중에서 두 기초반 1,2 중에서 1만을 가지고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잠깐 읽었을 때 만일 자신의 성서 이해 수준 보다 낮다고 판단 되면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선택하여 공부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성서 중에서 하느님의 말씀(the Word)은 세 겹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초인 글자적 의미는 성서 글자를 통해 직접 전달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나머지 더 깊고 더 높은 수준의 두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있어 그릇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의 기록을 머리에 담아 두지 않는다면 더 심오한 의미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주님의 인간과의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가 우리 기억 속의 성서 글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초반이라 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을 철저히 기억 속에 저장하려 애쓰셔야 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율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여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열심을

내어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책은 공동 번역 성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이유는 읽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러나 상응적인 해석과 이해를 위해 개역 성경 또는 영문 성경 (King James Version)을 사용해야 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역이 심할 경우 그것에 상응하는 해석이 불가능해 집니다.

www.baysidechurch.org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마태복음 13장 46절

제 4권 차례

1. 창조(이렛 날)-----창세기 2장 1-7절-----9
2. 카인과 아벨---창세기 4장 1-5절-----12
3.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 1-9절-----16
4. 아브라함과 천사들---창세기 18장-----19
5. 이삭과 아비말렉---창세기 26장 1-33절-----23
6. 야곱의 귀향---창세기 35장-----28
7. 요셉의 아들들---창세기 48장, 50장 22-26절-----32
8. 과일절-----출애굽기 12장-----36
9.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출애굽기 17장----- 41
10. 금 송아지---출애굽기 32장 1-24절-----44
11. 아론의 가지---민수기 17장 16-28절-----48
12. 길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여호수아 5-----51
13. 거룩한 땅의 분할---여호수아 18장 1-10절---54
14. 판관 삼손-----판관기 14장-----58
15. 왕을 요구하는 백성---사무엘상 8장-----62
16. 아각 왕을 살려둔 사울---사무엘상 15장-----65
17. 다윗과 예언자 나단---사무엘하 12장 1-25절---70
18. 솔로몬의 최후--열왕기상 11장 1-13, 26-43절---74
19. 엘리사와 나아만--열왕기하 5장-----78
20. 시드키야와 예레미야--열하24장,25:1-12; 예야 21장--82
21. 말씀에 관한 시편---시편 119편-----87
22. 벨사살 왕의 잔치---다니엘 5장-----95
23. 사자굴에서의 다니엘---다니엘 6장-----100
24. 성전 재건에 관한 예언-----즈가리아 4장-----104
25. 요나와 아주까리(박넝쿨)---요나 3,4장-----107
26.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요한복음 1장-----111

- 27. 가나에서의 기적——요한복음 2장 1-11절——116
- 28. 주님과 니고데모——요한복음 3장 1-21절——119
- 29. 야곱의 우물가에서의 주님—요한복음 4장 1-42절-123
- 30. 베짜타 못——요한복음 5장 1-16절——128
- 31.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요한복음 9장——132
- 32. 선한 목자——요한복음 10장——137
- 33. 다시 살아난 라자로——요한복음 11장 1-16절-142
- 34. 종려주일(4)——요한복음 12장 12-50절——147
- 35. 포도나무의 비유——요한복음 15장——152
- 36. 부활절(4)——요한복음 20장——155
- 37. 여자와 용——요한 계시록 12장——160
- 38. 두 짐승이 정복되다—요한 계시록 13장, 19장 11-21절—164
- 39. 요한의 환상의 끝—요한 계시록 22장 8-21절——169
- 40. 새 교회의 날——요한 계시록 21장 1-12절——173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는 황소들에 열두 멍에를 지워 밭을 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신 이미 열두 번
 째 밭을 갈고 있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1

창조 - 이렛날

머리말

성경에 기록된 자연계의 창조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하고,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구절을 강조하면서 육일간의 창조를 재조명한 후 이렛날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장 1-7절

1.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2. 하나님께서는 엿새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3.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4.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야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5. 땅에는 아직 아무 나무도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던 것이다. 6. 마침 땅에서 물이 솟아 온 땅을 적시자 7.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해설

우리는 본문이 기록된 책을 성서 또는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된 내용은 주님과 천국에 관한 것과 그분께서 항상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책인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 권의 책들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가 방대한 내용을 담은 짧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 곳곳에서 우리의 인생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을 창세기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Genesis 라고 부른다. 이는 시작을 의미하며, 세상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로 출발한다. 이 출발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둘째 날에 아래 물로부터 윗물을 갈라놓으심으로써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셨다. 그분은 셋째 날에 더 낮은 물을 바다로 모으시고, 지상에 푸른 육과 낱알을 내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가 돌아나도록 하셨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났다. 다섯째 날에는 고기와 새들이 창조되었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 그 다음 본문으로 이어진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일곱째 날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 제 2장 3절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일곱째 날을 다른 날에서 따로 떼어 두신 까닭은 무엇인가?
- * 이렛날은 어떻게 다른가?
- * 우리는 이렛날을 어떻게 부르는가?
- * 이렛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어야 하는가?
- * 우리가 이렛날에 특별히 신경 써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질문 정리

- 1) 우리는 어떤 책을 공부하는가?
- 2)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 3) 성경의 첫 권은 무엇인가?
- 4) 창세기란 무슨 뜻인가?
- 5)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는가?
- 6) 창조 첫날에 무엇이 세상에 주어졌는가?

- 7) 몇 일만에 창조가 완료되었는가?
- 8) 본문 속의 “날, day” 은 24시간이라는 하루와 같은가?
- 9) 주님의 마지막 창조는 무엇인가?
- 10) 사람은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 11) 인간에게 무엇을 정복하라고 했는가?
- 12) 창조가 끝나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그분은 이렛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 14) 그분은 이렛날을 다른 날과 어떻게 구별되게 하셨는가?
- 15) “복 있다” 란 어떤 뜻인가?
- 16)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동안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가?
- 17) 그분 스스로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성전 2) 하느님 3) 창세기 4) 시작 5) 한 처음에... 6) 빛 7) 6일
- 8) 아니다 9) 사람 10) 하느님의 모습 11) 모든 땅 12) 참 좋았다 13) 쉬셨다
- 14)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15) 행복하게 만들 16)선
- 17) 예배드리며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며 친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심

2

카인과 아벨

머리말

에덴의 동산을 재고하면서 공부를 시작한다. 그리고 불순중에 대한 이유와 그로 인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는 것 등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4장 1-15절

1.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한 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외쳤다.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2. 하와는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카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3. 때가 되어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고 4.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만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5. 카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지 않으셨다. 카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6.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7.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에 골레를 씌워야 한다.” 8.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 고 피어 들에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9. 야훼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10. 그러나 야훼께서는 “네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고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11. 땅이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네 손에서

받았다. 너는 저주를 받은 몸이니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 ^{12.} 네가 아무리 애써 땅을 갈아도 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13.} 그러자 카인이 야훼께 하소연하였다. ” 벌이 너무 무거워서, 저로서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14.}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아주 쫓아 내시니, 저는 이제 하느님을 뵙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 ^{15.} ” 그렇게 못하도록 하여 주마. 카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일곱 갑절로 벌을 내리리라. “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훼께서는 누가 카인을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찍어 주셨다.

해설

성경은 이 땅의 창조와 지상의 모든 것이 창조 된 후 인간들에게 살도록 주어진 에덴의 동산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첫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에덴의 동산에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들에게 하지 말도록 명령된 한 가지 것도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첫 사람들, 즉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결코 하지 말라고 하는 일, 즉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것을 부모 모르게 해 보고 싶은 충동을 갖는 것과 흡사하다. 아담과 이브는 주님께 불순종했다.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는 대신 자신의 것을 원하여 아름다운 동산을 떠나야 했고 고되게 일을 해서 삶을 꾸려야만 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된 지 얼마 후 두 아들을 가졌다. 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본문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첫 부분을 경청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본문에서의 두 형제 모두는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했다. 카인의 제물 또한 아벨의 것만큼 좋은 것이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분은 카인이 선한 척만 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즉 카인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자기 마음속에 가진 느낌이란 아우에 대한 시기심이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사랑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타인을 해치려하기 보다는 그들을 돕고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아담과 이브의 첫아들은 누구인가?
- *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 * 카인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 아벨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 그들은 주님께 어떤 제물을 가져왔는가?
- * 왜 주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는가?
- * 그래서 카인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 * 카인은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알고 있었는가?
- * 주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카인에게 물으셨을 때 카인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질문 정리

- 1) 누가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 2) 이 창조는 며칠(단계)에 있어졌는가?
- 3) 마지막 창조는 무엇인가?
- 4) 이렛날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5) 이렛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6)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는 무슨 뜻인가?
- 7) 이렛날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일요일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가르치는가?
- 8) 성경의 어떤 이야기가 지상의 첫 교회 사람들의 상태를 그리는가?
- 9)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금한 것은 무엇인가?
- 10) 그들을 불순종하게 유혹한 것은 무엇인가?
- 11) 불순종의 벌은 무엇인가?
- 12) 본문의 이야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가진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13) 카인의 직업은 무엇인가?
- 14) 아벨의 직업은 무엇인가?
- 15) 그들은 주님께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 16) 누구의 예물을 반기셨는가?
- 17) 카인의 예물은 왜 거절되었는가?
- 18) 카인의 진짜 인격을 드러낸 행동은 무엇인가?
- 19) 그의 벌은 무엇인가?
- 20) 주님은 카인이 파괴됨으로부터 어떻게 해주셨는가?

질문의 답

- 1) 하느님 2) 6 3) 사람 4) 쉬셨다 5)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라
- 6) 행복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 7)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함, 예배드리는 날
- 8) 에덴 9)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10) 뱀 11) 동산에서 추방
- 12) 카인, 아벨 13) 농부 14) 목자 15) 곡식, 새끼 양 16) 아벨의 예물
- 17) 불성실 때문에 18) 아벨을 죽였다 19) 방황자 20) 표를 찍어 주셨다

3

바벨탑 이야기

머리말

노아와 홍수에 관한 간략한 내용을 서론으로 삼는다. 홍수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여 있게 된 결과였다는 것과 창조한 인류의 보존을 위한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노아의 구원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인간의 자만과 우둔함으로 인해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 본문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1장 1-9절

1.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다. 물론 낱말도 같았다. 2. 사람들은 동쪽에서 올라오다가 시날 지방 한 들판에 이르러 거기 자리를 잡고는 3. 의논하였다.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자.” 이리하여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4. 또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5. 야훼께서 땅에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도시와 탑을 보시고 6. 생각하셨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7. 당장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겠다.” 8. 야훼께서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던 일을 그만 두었다. 9. 야훼께서 온 세상의 말을 거기에서 뒤섞어 놓아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고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

해설

본문의 이야기는 카인과 아벨의 때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의 일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태초에 그들에게 주신 그 곳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 그들은 첫 시대인 단순한 시대이래로 아주 많은 것을 습득해 온 터라 스스로가 상당히 현명하다고 자부했다. 우리는 스스로 꽤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실제로는 상당히 어리석음을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 이유는 지혜는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식을 사용하되 주님이 사용하라는 대로 그것을 사용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을 순서대로 다시 읽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지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 둘째, 그들은 이 건축을 산꼭대기에서 시작하지 않고 낮은 계곡(평야, 시날 지방 한 들판)에서 시작했다. 셋째, 그들은 최상의 재료가 아닌 다른 것을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다. 그들은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탑을 지었고, 그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탑을 짓는 목적이었다.

누구든지 본문을 읽으면 그들이 아주 어리석었음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일이 허다함을 알아야 한다. 즉, 우리는 일을 하되 선하고 유용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단지 스스로의 이름을 떨쳐보겠다는 심산에서 일하는 자세, 한마디로 흔히 말하는 “과시” 하는 행동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결코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우둔한 자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과시적인 행동이 남들로 하여금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기보다는 결국 곤경에 빠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동 시키심으로 그들의 작업을 멈추도록 하셨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단어는 혼동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혼동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관해서만 몰두할 때 서로 함께 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기심과 자만심은 사람들을 흠여지게 하는데, 이는 본문에서 주님이 바벨의 사람들을 흠여시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항상 존재한다.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 뭔가 유용한 일을 해보려고 할 때에 어느 한 쪽이 자신의 방법만을 내세우고 상대방이 자신의 방법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그들은 서로 다투거나 헤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데에 있다.

질문 정리

- 1) 카인과 아벨은 누구의 아들인가?
- 2) 그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 3) 그들은 주님에게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 4) 왜 카인의 예물은 거절되었는가?
- 5) 어떻게 주님은 카인을 보존하셨는가?
- 6) 본문에서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옮겨갔는가?
- 7) 그들은 어디에서 멈췄는가?
- 8) 그들은 무엇을 짓기로 했는가?
- 9) 탑을 쌓는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 10) 그들은 무엇을 건축 재료로 사용했는가?
- 11) 주님은 그 건축을 어떻게 멈추도록 하셨는가?
- 12) 사람들이 건축을 못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 13) 본문은 어떤 교회의 종말을 묘사하는가?
- 14) 이 탑은 무엇으로 불리는가?
- 15) 성경에서 그리스어의 어떤 말이 히브리어의 바벨과 같은 어원을 갖는가?

질문의 답

- 1) 아담과 이브의 아들들
- 2) 농부, 목자
- 3) 곡식, 새끼 양
- 4) 불성실, 위선적이었다
- 5) 인(mark)
- 6) 동쪽으로부터
- 7) 시날(바빌론)
- 8) 탑
- 9) 하늘까지 닿기 위해

- 10) 벽돌과 역청 11) 언어를 뒤섞으셨다 12) 흠어졌다 13) 고대교회 14) 바벨
15) 바빌론 16) 이기심을 가지고 삶을 건설함 17) 지각, 양심

4

아브라함과 천사들

머리말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간 부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있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간략히 살펴보면서 본과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한다. 주님의 방향에 맞추려는 아브라함의 바램과 바벨탑 이야기에서의 사람들의 바램을 비교해 본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8장

1. 야훼께서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대낮에 천막 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2. 고개를 들어 웬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해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 문에서 뛰어 나가 맞으며 땅에 엎드려 3. 청을 드렸다. “손님네들, 괜찮으시다면 소인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4. 물을 길어 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쉬십시오. 5. 떡도 가져 올 터이니 잡수시고 피곤을 푸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모처럼 소인한테 오셨는데, 어찌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그렇게 하여 주시겠소?” 6.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 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세 말을 내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르고 7. 소떼가 있는 곳으로 달려 가 살이 연하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맡겨 빨리 잡아서 요리하게 하고는 8. 그 송아지 요리예다가 영긴 젖과 우유를 곁들여서 손님들 앞에 차려 놓고, 손님들이 나무 밑에서

먹는 동안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부인 사라는 어디 계시오?” 하고 묻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천막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10.}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새싹이 돌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 때 네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천막 문 어귀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다. ^{11.}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늙은이였고 사라는 달거리가 끊긴 지도 오래였다. ^{12.}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낙을 다시 보랴!” 하고 중얼거렸다. ^{13.} 그러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낳으랴고 웃으니, 될 말이나? ^{14.} 이 야훼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내년 봄 새싹이 돌아날 무렵에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그 때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15.} 그러자 사라는 겁이 나서 웃지 않았다고 잡아뵈으나, 야훼께서는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하시며 꾸짖으셨다. ^{16.} 사람들은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느라고 같이 왔다. ^{17.} 야훼께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 “내가 장차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민족이 되고 세상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복을 빌 것이 아닌가? ^{19.} 나는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과 그의 뒤를 이을 가문에게 옳고 바른 일을 지시하여 이 야훼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려고 그를 뽑아 세우지 않았던가?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어야 하리라.” ^{20.} 이렇게 생각하시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아우성을 나는 차마 들을 수가 없다.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짓고들 있다. ^{21.} 내려가서 그 하는 짓들이 모두 나에게 들려오는 저 아우성과 정말 같은 것인지 알아보아야 하겠다.” ^{22.} 그 사람들은 걸음을 옮겨 소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야훼 앞에 서 있었다. ^{23.} 아브라함이 다가 서서 물었다. “당신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과 함께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24.} 저 도시 안에 죄없는 사람 오십 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곳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 오십 명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25.} 죄 없는 사람을 어찌 죄인과 똑같이 보시고 함께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라면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26.}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 죄 없는 사람이 오십 명만 있으면, 그 죄 없는 사람을 보아서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²⁷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다.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뢰입니다.²⁸ 죄 없는 사람 오십 명에서 다섯이 모자란다면 그 다섯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저 곳에 죄 없는 사람이 사십 오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²⁹ 아브라함이 “사십 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쭙자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사십 명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³⁰ 아브라함이 또 여쭙었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십 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삼십 명만 되어도 멸하지 않겠다.” 고 대답하시자³¹ 그가 또 다시 여쭙었다. “죄송하오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십 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이십 명만 되어도 그들을 보아서 멸하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셨다.³² 아브라함이 다시 “주여, 노여워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열 사람밖에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그 열 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³³ 야훼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해설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관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선조들은 이미 자아 중심으로 변하여 천국적인 것들을 모두 다 잊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은 주님에 의해 가르쳐지기를 원했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가르치실 수 있었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실 수 있었던 것이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착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아주 긴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정착했다. 헤브론은 때로 마므레라고도 불린다. 주님은 그를 번성시켜서 금과 은 그리고 가축 떼를 많이 가진 부자가 되도록 하셨다. 그와 그의 가족은 오늘날의 우리와는 아주 다르게 목자와 목부들로서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집은 간단한 이동식 천막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가축 떼를 위해 풀밭을 찾아서 늘 이동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그가 큰 국가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 하셨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내 사라에게 여전히 아들이 없었고 그들의 나이 또한 고령이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대단히 곤란한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언제나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사람은 주님의 천사들 또는 특사들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금방 알아보고 환영했으며, 그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그들을 대접하며 행복해 했다. 비록 아내인 사라가 그들의 말을 의심했으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말을 믿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누가 아브라함을 보러 왔는가?
- * 아브라함은 이들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 *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어떤 다른 음식을 제공했는가?
- *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
- * 사라는 속으로 웃고 난 후 그것이 발각되자 뭐라고 변명했는가?

질문 정리

- 1) 아브라함의 첫 고향은 어디인가?
- 2)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3) 그의 마지막 정착지는 어디인가?
- 4) 어느 날 누가 그에게 왔는가?
- 5) 그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6) 사실 그들은 누구인가?
- 7)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알려주었는가?
- 8) 왜 사라는 웃었는가?
- 9)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들은 어디로 향했는가?
- 10) 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는가?
- 11) 아브라함이 주님께 묻은 첫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 12)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3) 아브라함은 몇 개의 질문을 물었는가?
- 14) 주님은 그 때마다 어떻게 답하셨는가?
- 15) 아브라함이 언급한 가장 작은 숫자는 몇 명인가?

질문의 답

- 1) 우르 2)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3) 헤브론(마므레) 4) 세 명
- 5) 귀중한 손님 대접 6) 천사들 7)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8) 자기가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의심했다 9) 소돔 10) 성을 멸하려고 11) 선한 이를 나쁜 자들과 함께 죽이시렵니까?
- 12) 만약 그 성에 죄 없는 사람이 오십 명이 있다면... 13) -5, 40, 30, 20, 10 (다섯 질문)
- 14)...하다면 멸하지 않겠다 15) 10

5

이삭과 아비멜렉

머리말

이삭의 출생과 리브가와의 결혼 그리고 이삭의 삶을 먼저 살피면서 공부를 진행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6장 1-33절

1. 그 지방에는 아브라함 당시에 흉년이 든 일이 있었지만 그런 흉년이 또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가려는데 2. 야훼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땅에 자리 잡고 3.

그 땅에 몸 붙여 살아라. 나는 너를 보살피 주며 너에게 복을 내려 주리라. 네 아비 아브라함과 맺은 내 맹세를 지켜 너에게 복을 내려 주리라. 네 아비 아브라함과 맺은 내 맹세를 지켜 이 모든 지방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⁴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에 있는 별만큼 불어나게 하여 그들에게 이 모든 지방을 주리라.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⁵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따라 내가 지키라고 일러 준 나의 계명과 규정과 훈계를 성심껏 지킨 덕이다.” ⁶ 이리하여 이사악은 그랄에서 살게 되었는데, ⁷ 그 곳 사람들이 이사악의 아내를 보고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사악은 그가 자기의 누이라고 대답하였다.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곳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자기 아내라고 하기를 꺼렸던 것이다. ⁸ 이사악이 그 곳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뒤의 일이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이사악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⁹ 이사악을 불러 들여 나무랬다. “그 여자는 분명히 네 아내다. 그런데 왜 네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사악이 아내 때문에 죽게 될 것 같아서 그랬노라고 대답하자 ¹⁰ 아비멜렉은 “어찌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하마터면 내 백성 가운데 누가 네 아내를 범할 뻔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쓸 뻔하지 않았느냐?” 하고 나무라고 나서 ¹¹ 온 국민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을 것이다.” ¹² 이사악은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 해에 수확을 백 배나 올렸다. 야훼께서는 이렇듯 복을 내리셔서 ¹³ 그는 부자가 되었다. 점점 재산이 불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¹⁴ 그는 양떼와 소떼와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다. ¹⁵ 블레셋 사람들은 전에 이사악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 생전에 봤던 우물을 모조리 흙으로 메워 버렸다. ¹⁶ 한편 아비멜렉은 이사악에게 “너는 우리보다도 훨씬 강해졌으니 여기에서 물러 나가라” 고 하였다. ¹⁷ 이사악은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쳐 자리 잡고 ¹⁸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 버렸던 우물들이다. 이사악은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¹⁹ 이사악의 종들은 그 골짜기에 우물을 파다가 물이 팔팔 솟는 샘 줄기를 찾았다, ²⁰ 그런데 그랄에 사는 목자들이 그 물을 저희 것이라고 하면서

이사악의 목자들에게 싸움을 걸어 왔다. 우물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사악은 그 우물을 에섹이라고 불렀다. ^{21.}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은 그 우물도 탐이 나서 또 싸움을 걸어 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 하였다. ^{22.} 그는 자리를 옮겨 우물을 또 하나 팠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 우물을 두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악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부르며 “마침내 야훼께서 우리 앞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고 소리쳤다. ^{23.} 그는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 갔는데, ^{24.} 그 날 밤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심복 아브라함을 보아 너에게 복을 내려 네 자손이 불어나게 하리라.” ^{25.}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고 그 곳에 천막을 쳤다.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26.} 어느 날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사악을 찾아 왔다. ^{27.} 이사악이 그들에게 “내가 미워서 쫓아 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28.} 그들이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그대와 우리 사이에 조약을 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다. ^{29.} 우리는 그대에게 손 하나 대지 않고 잘 대접해 주었으며 떠날 때에도 편안히 보내 주었다. 그러니 그대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그대야말로 정녕 야훼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30.} 이사악은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셨다. ^{31.}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서로 서약하여 조약을 맺고 환송을 받으며 흐뭇한 마음으로 떠나갔다. ^{32.} 바로 그 날 이사악의 종들이 저희가 파던 우물에서 샘 줄기가 터졌다고 와서 알렸다. ^{33.} 이사악은 그 우물을 세바라 불렀다. 그래서 그 도시를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라고 부르고 있다.

해설

이삭이 다 성장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심복을 형제인 나홀이 정착한 하란으로 보내 친척들 사이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았으며, 아들인 이삭이 주님을 모르는 여자들과 결혼하여

진정한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의 심복은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데려왔고, 이삭은 그녀를 매우 사랑했다. 그리하여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인 에사오와 야곱을 가졌다. 이에 대한 내용은 차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족장이 되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삭이 과거 그의 아버지가 위대했듯이 그가 위대한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본문에서 이삭이 그의 목부들과 그 땅의 목부들이 다투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이들이 원하지 않는 우물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우물을 팠다. 그리하여 아비멜렉은 이삭이 자신의 적이 아님을 느끼게 되어 이삭에게 와서 평화 조약을 맺었던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신과 관련된 일로 계속 다투어 간다면, 누군가가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에는 모두 불행해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쌍방중의 어느 한쪽이 계속되는 다툼을 피하여 다른 방향을 모색하거나 그 외의 방향을 선택한다면 일은 원만히 수습될 것이다. 따라서 다툼이 시작될 때는 그 다툼을 먼저 멈추는 자가 가장 분별력이 있는 자임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아브라함의 첫 정착지는 어디였는가?
- *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은 어디인가?
- *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한 것 중에서 가지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 * 누가 주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왔는가?
- * 메시지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 * 그 후 얼마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가졌는가?
- * 이삭은 무엇을 뜻하는가?
- *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살이었는가?
- * 이삭은 흉년으로 인해 어느 지방으로 갔었는가?
- *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왜 이삭을 두려워하며 떠나달라고 청했는가?
- * 이삭은 자기의 가축 떼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 * 그곳에서 가장 먼저 우물을 팠던 사람은 누구인가?
- *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들을 어떻게 했는가?
- * 몇 개의 우물을 가지고 이삭의 목부들과 그 지방의 목부들이 다투었는가?

- *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뭐라고 불렀는가?
- * “르호봇”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 * 누가 이삭이 다시 판 첫 두 우물을 소유했는가?
- * 그 후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했는가?

질문 정리

- 1)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은 누구인가?
- 2) 이사악의 아내는 누구인가?
- 3) 이 아내는 어느 지역 출신인가?
- 4) 이사악과 리브가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 5) 주님은 이삭이 흉년을 맞아 어디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가?
- 6) 그 대신 이삭은 어디로 갔는가?
- 7) 블레셋의 왕은 뭐라고 부르는가?
- 8) 그는 이삭을 환영했는가?
- 9) 누가 과거 블레셋 영토에서 우물을 팠는가?
- 10) 블레셋사람들은 이 우물을 어떻게 했는가?
- 11)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파 놓은 우물의 몇 개를 못 쓰도록 방해했는가?
- 12) 이사악은 그들과 다투었는가?
- 13) 아비멜렉은 결국 이사악과 어떤 합의를 보았는가?
- 14) 합의가 이루어진 장소를 뭐라고 불렀는가?
- 15) 브엘세바란 무슨 뜻인가?

질문의 답

- 1) 이사악 2) 리브가 3) 하란 4) 에사오와 야곱 5) 이집트
- 6) 그랄 지방 7) 아비멜렉 8) 환영했다 그러나 후에 그를 두려워했다
- 9) 아브라함 10) 우물을 흙으로 메워 버렸다 11) 두개 12) 다투지 않았다

13) 평화의 맹세 14) 브엘세바 15) 맹세의 우물

6

야곱의 귀향

머리말

야곱의 출생이 언급되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장까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본문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25장부터 34장까지 시간을 내어 읽은 후 본문의 공부를 시작하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35장

1.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러고 있지 말고 베델에 올라 가 거기에 자리를 잡아라. 네가 형 에사오를 피해 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아 바쳐라.” 2. 야곱은 곧 그의 온 가족과 그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을 내버려라. 깨끗이 몸을 씻고 옷을 갈아 입어라. 3. 이제 우리는 여기를 떠나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호소를 들어 주시고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보살피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자 한다.” 4.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모두 묻었다. 5. 그리고 그들은 그 길로 떠났다. 그러자 신비한 두려움이 주위에 있는 도시들을 휘어잡아서 아무도 야곱의 자손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6. 야곱은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루즈에 이르렀다. 이 루즈가 곧 베델이다. 7.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하였다. 야곱이 형을 피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다. 8. 베델 아래쪽 상수리나무 밑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묻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곳을 알론바곳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9. 야곱이 바딤아람에서 돌아오는데 하느님
 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10. 말씀하셨다. “네 이름이 야곱이었지.
 그러나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리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었다. 11. 하느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
 이다. 너는 많이 낳아 번성하거라. 너에게서 한 민족이, 아니 여러 민족이 모인
 집단이 나리라. 네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태어나리라. 12. 아브라함과 이사악에게
 주었던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또한 너의 뒤를 이을 후손에게 준다.” 13. 하느님께
 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14.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 곳에다 석상을 세웠다. 그는 그 돌기둥 위에 술을 붓고
 또 기름을 부었다. 15.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 곳을 베델이라
 이름하였다. 16. 그들이 베델을 떠나 가는 도중, 에브랏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데서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다. 난산이었다. 17. 아이를 낳지 못해 고생하는데
 산파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입니다” 하고 위로하는 것이었다. 18. 마침
 내 라헬은 죽게 되어 숨을 거두면서 아기 이름을 벤오니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기
 아버지는 베냐민이라 불렀다. 19. 라헬은 에브랏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20. 야곱은 라헬의 무덤 위에 비석을 세웠다.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묘비로 알려져 있다. 21.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므달에텔 건너편에 이르러
 천막을 쳤다. 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고 있을 때였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소실
 빌하를 범하였는데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귀에도 들어갔다. 야곱에게는 아들 열둘
 이 있었다. 23.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싸갈, 즈블룬이었다. 24.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25.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이요, 26. 가드와 아셀은 레아의
 몸종 질바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이들은 야곱이 바딤아람에 있을 때에 얻은 아들들이
 다. 27.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 키랏아르바라고도 불리는 마므레에 이르렀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몸붙여 살던 헤브론이다. 28. 이사악은 백 팔십 세나
 살았다. 29. 이사악이 이렇게 명이 다하여 숨을 거두고 죽어 세상을 떠나 선조들
 곁으로 가자, 아들 에사오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해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하던 아들이었다. 그녀는 에사오의 분노로부터 야곱을 살리기 위해 남편 이삭을 설득시켜 하란에 있는 오빠 라반에게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환영을 받았고, 그곳에서 만족해하며 이십여 년을 머물렀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다처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고, 두 아내의 몸종들인 빌하와 질바까지도 아내로 거느렸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은 이야기와도 유사하다.

본문에서 필히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인 이스라엘 (Israel)을 주셨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후손” 으로서 불리게 된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야곱에게 열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태어난 곳은 어디인가?
- *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인가?
- * 언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는가?
- *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던 도중 경이로운 꿈을 꾸었던 곳은 어디인가?
- * 주님은 그 때 그곳에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 *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난 아들은 누구인가?
- * 누가 그곳에서 죽었는가?
- *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 *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어디서 뵈었는가?

질문 정리

- 1) 왜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갔는가?
- 2) 그는 그곳에서 얼마나 체류했는가?
- 3) 그가 결혼한 두 여자는 누구인가?
- 4) 하란에서 몇 명의 아들이 그로부터 태어났는가?
- 5) 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어렸는가?

- 6) 열 두 번째 아들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 7)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 8) 야곱이 하란에서 귀향할 때 그는 어디로 향했는가?
- 9) 그가 베델에 도착하기 전 멈춘 장소는 어디인가?
- 10) 야곱은 세겜에서 그의 식솔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는가?
- 11) 누가 베델에 이미 묻혀 있었는가?
- 12) 야곱은 베델에서 무엇을 했는가?
- 13) 주님은 거기서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가?
- 14) 야곱은 이삭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 15) 야곱과 에사오는 어디에 이삭을 안장했는가?

질문의 답

- 1)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2) 20여 년 3) 레아, 라헬 4) 11명
- 5) 요셉 6) 베들레헴 근처 7) 베냐민 8) 세겜
- 9) 남의 나라 신들과 귀걸이를 버려라 11) 드보라
- 12) 돌로 제단을 쌓았다 13) 큰 국가의 선조가 되게 하리라
- 14) 헤브론(마므레) 15) 막벨라 동굴

7

요셉의 아들들

머리말

요셉의 생애를 간략하게 재조명 한 후 공부를 시작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48장, 50장 22-26절

1. 이런 일이 있는 뒤 요셉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는 두 아들 므나쎄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다. 2. 아들 요셉이 문병 왔다는 말이 야곱에게 전해지자, 이스라엘은 기력을 가다듬고 침상에 일어나 앉았다. 3. 야곱이 요셉에게 일렀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 루즈에서 나에게 나타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4.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이 생겨 불어나게 하여 많은 민족이 모인 집단을 이루게 하리라. 또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어 길이 차지하게 하리라.’ 5.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나러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쎄는 이제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같이 내 아들 항렬에 들어야 한다. 6. 그 아이들 다음으로 난 아들들이 네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 아이들은 형들이 차지할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7. 내가 바탄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길을 가는 도중에 네 어머니 라헬이 죽었다. 에브랏 채 못 미친 길가에 나는 네 어미를 묻었다. 그 에브랏이 곧 베들레헴이다.”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애들이 누구냐?” 9. “이것들은 하느님께서 이 곳에서 저에게 주신 제 아들들입니다” 하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리로 가까이 오게 하여라. 내가 그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10.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못 보는 처지였다. 요셉이 그들을 가까이 데려 오자 야곱은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11.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네 얼굴을 보리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느님께서 네 아이들까지

보게 해 주시는 구나.”¹² 요셉은 자기의 아이들을 아버지의 무릎에서 받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다.¹³ 그리고 요셉은 두 아이 가운데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쪽에, 므나쎄는 왼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손 쪽에 가까이 가게 했다.¹⁴ 그러자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아우인 에브라임의 머리에는 오른손을, 맏아들인 므나쎄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고¹⁵ 이렇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아 주신 하느님, 태어날 때부터 이날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느님,¹⁶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내준 하느님의 천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조상들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 있기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왕성하게 불어나기를 빕니다.¹⁷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겨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아버지의 손을 므나쎄의 머리에 옮겨 놓으려 했다.¹⁸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뢰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이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¹⁹ 그러자 거절하며 대답하였다. “아들아, 나도 안다. 왜 모르겠느냐? 이 아이도 한 족속을 이룰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우가 형보다 더 커져 그의 후손은 술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²⁰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의 덕을 입고 살며 ‘하느님께서 너를 에브라임처럼 므나쎄처럼 세워 주시기를 바란다’ 하리라.” 이렇게 그는 에브라임을 므나쎄보다 앞세웠다.²¹ 그리고 나서 그는 요셉에게 다시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겠지만 하느님께서 너희를 보살피 주시어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²²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 손에서 빼앗은 세겔 하나만은 네 형제들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 준다.

50장: ²² 그 후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다 보니 요셉의 나이 백 십 세가 되었다.²³ 그는 에브라임의 후손 삼 대를 보았다. 그리고 므나쎄의 아들 마길 낳은 아이들도 자기 무릎에 받아 아들 향렬에 들였다.²⁴ 요셉이 일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을 터이지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어 이 땅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사악, 야곱에게 주시마고 맹세한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²⁵ 다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약을 시켰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 때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거라.” 26. 요셉이 백 십 세에 죽자 사람들은 그를 썩지 않게 만들어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

해설

야곱은 큰 흉년이 거룩한 땅에 왔을 때에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양식을 사도록 했다. 그들은 요셉에게서 양식을 사야만 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과거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잘못을 모두 용서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을 포함하여 가축 때까지 몰고 이집트로 내려와 흉년이 끝날 때까지 살도록 해주었다. 또한 파라오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지극히 총애하고 있던 터라 요셉은 이집트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 지역을 야곱의 아들들에게 할당해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향으로 되돌아가기를 원치 않게 되었고, 수많은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체류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누가 큰 아들인가?
- * 요셉은 야곱이 많이 아프게 되자 무엇을 했는가?
- * 요셉은 그의 아들 중에서 누가 더 나은 축복을 받아야한다고 기대했는가?
- * 야곱은 요셉의 아들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었는가?
- * 야곱과 요셉은 어디에서 죽었는가?
- * 요셉의 유언은 무엇이었는가?
- * 시신이 썩지 않도록 만드는 이집트인들의 방법은 무엇인가?

질문 정리

- 1) 왜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가?
- 2) 요셉은 그의 가족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 3) 이집트에서 요셉으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은 누구인가?

- 4) 요셉의 큰아들은 누구인가?
- 5) 왜 요셉은 야곱의 임종이 다가오자 그의 아들을 데려 왔는가?
- 6) 요셉은 그의 아들 중에서 누가 먼저 축복 받아야 한다고 예상했는가?
- 7) 야곱은 누구에게 첫 축복을 내렸는가?
- 8) 야곱은 어떤 특별한 혜택을 요셉의 아들에게 내렸는가?
- 9) 야곱은 어디에 매장되었는가?
- 10) 그 매장지에는 야곱 외에 누가 더 매장되어 있었는가?
- 11) 요셉은 죽을 때 가족에게 어떤 약속을 받아 냈는가?
- 12) 요셉의 시신은 어떻게 보관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기근 2) 먹을 것과 집을 제공했다 3) 므나쎄, 에브라임 4) 므나쎄
- 5) 축복 받기 위해 6) 므나쎄 7) 에브라임 8) 그들을 자식으로 삼았다
- 9) 막벨라 동굴 10) 아브라함, 사라, 이사악, 리브가, 레아
- 11)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것 12) 미이라

8

과 월 절

머리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변화와 모세의 출생 그리고 그를 부르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마지막 재앙인 열 번째 재앙과 과월절을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2장

1.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2.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달수를 이 달에서 시작하여 계산하여라. 3.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 달 십일에 사람마다 한 가문에 한 마리씩, 한 집에 한 마리씩 새끼 양을 마련해 놓아라. 4. 만일 식구가 적어 새끼 양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생각하여 옆집에서 그만큼 사람을 불러다가 먹도록 하여라. 5. 흠이 없는 일년 된 수컷이면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다. 6. 너희는 이 달 십사일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하여라. 7. 그리고 그 피를 받아, 그것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여라. 8. 그 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하는데, 9.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10.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도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살라 버려야 한다. 11.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나 야훼에게 드리는 과월절이다. 12. 그 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전국에 있는 맏이들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조리 치리라. 또 이집트의 신들도 모조리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다. 13. 집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너희가 있는 집이라는 표시가 되리라. 나는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쳐 죽이지 않고 넘어 가겠다. 너희가 재앙을 피하여 살리라. ¹⁴ 이 날이야말로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야훼께 올리는 축제일로 삼아 대대로 길이 지키도록 하여라. ¹⁵ 너희는 칠 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예 첫날에 집안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 버려야 한다.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 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제명된다. ¹⁶ 첫날 거룩한 모임을 열고 칠 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그 날에는 그 동안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 말고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¹⁷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이 날은 바로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날이니,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영원한 축제일로 정하고 지키도록 하여라. ¹⁸ 정월 십사일 저녁부터 이십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¹⁹ 칠 일간 너희 집안에서 누룩이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누룩이 든 음식을 먹은 자는 외국에서 와 사는 사람이든지 본 고장 태생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명되리라. ²⁰ 누룩이 든 것은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에 머물러 살든지 누룩 없는 빵만을 먹어야 한다.”

²¹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끌어다가 과일절 제물로 잡으시오. ²² 우슬초뭉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은 피를 묻혀 문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시오. 아침까지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오. ²³ 야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며 지나가시다가 문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는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시고 파괴자를 당신들의 집에 들여보내어 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오. ²⁴ 당신들은 이것을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길이 정해 놓고 반드시 지켜야 하오. ²⁵ 당신들은 야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가게 되거든 이 예식을 지키시오. ²⁶ 당신들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예식이냐고 묻거든 ²⁷ 이것은 야훼께 드리는 과일절 제사라고 일러 주시오.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그냥 지나가시어 우리의 집을 건져 주신 야훼께 드리는 것이라고 일러 주시오.”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은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 ²⁸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서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²⁹ 한밤중에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만아들을 모조리 쳐 죽이셨다. 왕위에 오를 파라오의 만아들을 비롯하여 땅굴에 갇힌 포로의 만아들과

짐승의 말배에 이르기까지 다 쳐 죽이셨다. ³⁰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한밤중에 모두 일어났다. 이집트에서는 곡성이 터졌다. 초상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³¹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여 말하였다. “너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 가거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³² 너희가 요구한 대로 양도 소도 모두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 다오.” ³³ 이집트인들도 자기네가 모두 떼죽음을 당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떠나 달라고 재촉하였다. ³⁴ 그들은 빵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 메고 나섰다. ³⁵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일러 준 대로 이집트인들에게 은불이와 금불이와 옷을 내라고 하였다. ³⁶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인들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인들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어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인들을 털었다. ³⁷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라므세스를 떠나 수꽃으로 향했는데, 딸린 식구를 빼고 장정만도 육십 만 가량이 되었다. ³⁸ 그 밖에도 많은 잡식구들이 따라 나섰고 소와 양 등 가축들도 떼지어 따랐다. ³⁹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누룩 없는 빵 반죽으로 과자를 구워야 했다. 이집트에서 경황없이 나오느라고 먹을 것을 미처 장만하지 못했던 것이다. ⁴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머무른 것은 사백 삼십 년 동안이었다. ⁴¹ 마침내 사백 삼십 년이 끝나던 바로 그 날에 야훼의 군대는 모두 이집트 땅에서 빠져 나왔다. ⁴² 그 날 밤, 야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새워 가며 지켜 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대대로 야훼를 생각하며 이 밤을 새워야 하는 것이다. ⁴³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과월절을 지키는 규칙은 이러하다. 외국인은 아무도 제물을 같이 먹지 못한다. ⁴³ 다만 돈을 주고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이면 같이 먹을 수 있다. ⁴⁵ 머슴이나 몸 붙여 사는 사람도 같이 먹지 못한다. ⁴⁶ 어느 집이든지 한 집에서 먹어야지 고기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뼈를 꺾어도 안 된다. ⁴⁷ 이스라엘 회중은 누구나 과월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⁴⁸ 너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으로서 야훼께 과월절 제물을 드리려면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함께 먹을 수 있고 같은 본토민처럼 되는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같이 먹을 수 없다. ⁴⁹ 본토민이든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사람이든 이 법 앞에서는 동등하다.” ⁵⁰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51. 바로 이날에 아휘께서는 부대를 편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던 것이다.

해설

이집트의 왕들은 요셉의 사후 약 이백년 이상이 지난 후 과거 요셉의 공로를 거의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안전하고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처음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는 칠십 여명에 불과했으나 본문에서는 육십만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그들의 인구증가는 걱정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집트 왕들은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심지어는 히브리인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여 없애라고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과월절과 그 이름이 주어진 까닭을 기억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절기가 이후 성경의 이야기에서 많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성경의 두 번째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출애굽이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
- *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 *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누가 들어 세워졌는가?
- * 이집트인에게 내려진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 * 주님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 * 우리는 그들이 떠나기 전 기념한 날을 뭐라고 부르는가?
- *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졌는가?
- * 그들이 식사할 때 그들의 의복 차림은 어떠했는가?
- * 이 날을 기념하도록 어떤 명령이 주어졌는가?
- * 그들은 그 날을 기념할 때 무엇을 기억했는가?

질문 정리

- 1) 요셉이 죽은 후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무엇이 발생했는가?
- 2) 누가 이 후손을 이집트에서 꺼내도록 세워졌는가?
- 3) 무엇이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이 후손들을 떠나가도록 만들었는가?
- 4) 몇 개의 재앙이 이집트인들에게 내려졌는가?
- 5)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 6) 장자가 죽지 않도록 이스라엘 후손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가?
- 7) 이집트인들은 이 후손들이 빠져나가는데 무엇까지 제공했는가?
- 8) 이 후손들은 이집트를 떠나기 직전 무슨 축제를 가졌는가?
- 9) 왜 이 축제가 과월절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 10)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요리하도록 지시되었는가?
- 11) 그 고기와 더불어 무엇을 먹었는가?
- 12)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차림으로 먹었는가?
- 13) 먹고 남은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했는가?
- 14) 이집트를 떠날 때 이 후손의 인구는 얼마였는가?
- 15) 그들은 과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회상했는가?
- 16) 이 축제는 일 년에 몇 번 준수되었는가?
- 17) 기독교인은 과월절 대신 어떤 축제를 지키는가?
- 18) 이 축제는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노예가 되었다 2) 모세 3) 재앙 4) 10 5) 장자가 죽는 재앙
- 6) 문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라 7) 금, 은, 의복 8) 과월절
- 9)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쳐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10) 불에 구웠다
- 11)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 12)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 13) 불에 살랐다 14) 60만 15) 노예로부터의 해방
- 16) 매해 한 번씩 영원히 17) 성만찬

18) 예수님께서서 목요일 저녁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9

르비딴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머리말

우리에게 친숙한 출애굽기에서의 몇 가지 사건들인 홍해를 건넜던 것,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었던 것, 엘림에서의 휴식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 등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본문을 시작한다. 앞서 했던 공부와 본문의 요점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해주셨던 것이라고 사료된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7장

1.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썩 광야를 떠나 야훼의 지시대로 진지를 옮겨 가면서 전진하였다. 르비딴에 이르러 먹을 물이 없는 것을 보고, 2. 백성들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내라고 들이대었다. 모세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하고 말했지만, 3. 백성들은 당장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었으므로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내 왔느냐? 자식들과 가축들과 함께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4.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저를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5.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오너라.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너라. 6. 내가 호렙의 바위 옆에서 네 앞에 나타나리라. 네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7.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들었다고 해서 이 고장 이름을 트리바라고도 하고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야훼를 시험했다고 해서 마싸아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8.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 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다.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장정을 뽑아서 내일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10.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 위에 올라 가 있었다.

11.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12. 모세가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후르는 모세의 팔을 좌우에서 각각 붙들어 떠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은 처지지 않게 되었다. 13.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쳐 이겼다. 14.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후세에 남겨 두어라. 그리고 내가,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늘 아래에서 전멸시키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 주어라.” 15. 모세는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니씨라고 이름을 붙이고 16. “야훼의 사령기를 향해 손을 들자. 야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주시리라” 하고 외쳤다.

해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월절 음식을 먹었을 때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다. 그들은 급히 이집트를 떠나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여행을 했다. 그리고 파라오는 그들이 모두 떠난 후 마음이 변하여 그들로 하여금 되돌아오도록 군대를 보내 추격했다. 이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를 때쯤에 그들에게 근접하게 되었고, 그들은 탈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백성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셨다. 먼저 주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쪽으로 보내서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보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셨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둘로 갈라지게 되어 마른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다. 이집트 군대 역시 바짝 추격해 와서 홍해 안으로 들어섰지만, 다시 바닷물이 합쳐져 모두 익사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땅에 도달하기까지 긴 여로를 따라 여행해야만 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그들이 직선으로 여행했다면, 어느 지역을 통과해야 했는가?
- *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는가?
- * 본문에서 그들은 어떤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가?
- * 그들은 무엇을 불평했는가?
- *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물을 공급하셨는가?
- * 누가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했는가?
- * 모세가 팔을 들고 있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모세가 팔을 내리면 어떤 일이 발생되었는가?
- * 모세의 팔이 지치자 아론과 후르는 어떻게 조치했는가?
- * 이 전투 후 모세는 르비딴에 무엇을 세웠는가?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
- 2) 무엇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는가?
- 3)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도착한 지명은 무엇인가?
- 4) 그들은 왜 불평했는가?
- 5) 주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6) 모세가 바위를 치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7) 이후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8) 누가 전투를 위해 지도자로 임명되었는가?
- 9) 모세는 무엇을 했는가?
- 10) 누가 모세와 더불어 언덕에 올라갔는가?
- 11) 모세는 전투 상황을 어떻게 좌우할 수 있었는가?
- 12) 그가 지치자 누가 그를 도왔는가?
- 13) 모세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질문의 답

- 1) 홍해가 갈라짐 2) 구름(불)기둥 3) 르비딤 4) 물이 없어서
- 5) 바위를 치라 6) 물이 솟아났다 7) 아말렉 8) 여호수아 9) 언덕위로 올라갔다
- 10) 아론과 후르 11) 팔을 들고 있음으로 12) 아론, 후르, 돌 13) 제단

10

금 송 아 지

머리말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출애굽기 19장과 20장 그리고 24장을 읽은 후 시나이 산에 도착해서 본문까지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기억되도록 한다. 모세는 계명을 받기 위해 여러 번 산을 오르내렸다. 특별히 24장 18절은 32장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된다. 모든 백성들이 산에서 오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고 몇 번씩이나 그분께 순종하겠노라고 약속해왔던 점을 상기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32장 1-24절

1. 백성은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몰려와 청하였다. “어서 우리를 앞장설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온 그 어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아들 딸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하고 대답하자 3. 백성이 모두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수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들자 모두들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

트에서 데려 내 온 우리의 신이다.” 5.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내일 야훼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 하고 선포하였다. 6.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친교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놀았다. 7.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에서 데려 내 온 너의 백성들이 고약하게 놀아나고 있다. 8. 저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저다지도 빨리 벗어나 저희 손으로 부어 만든 수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 내 온 우리의 신이다’ 라고 떠드는구나!” 9. 야훼께서 계속하여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 백성을 잘 안다. 보아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나? 10.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진노를 내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너에게서 큰 백성을 일으키리라.” 11. 모세는 그의 하느님 야훼의 노기를 풀어 드리려고 애원하였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그 강하신 팔을 휘두르시어 놀라운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 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토록 화를 내시옵니까? 12. 어찌하여 ‘아하, 그가 화를 내어 그 백성을 내다가 산골짜기에서 죽여 없애 버리고 땅에 씨도 남기지 않았구나’ 하는 말을 이집트인들에게서 들으시려 하십니까? 제발 화를 내지 마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든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13. 당신의 명예를 걸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어 길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겠다’ 고 맹세해 주셨던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14. 이 말을 들으시고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고던 재앙을 거두셨다. 15. 모세는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돌아 서서 산에서 내려 왔다. 그 두 판 양면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새겨져 있었는데, 16. 그 판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었다. 그 판에 새겨진 글자도 하느님께서 손수 새기신 것이었다. 17.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지에서 들려 오는 저 소리를 들으니 전쟁이 터졌나 봅니다. 18. 모세가 말을 받았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도 아니요, 패전의 곡성도 아니다. 나 듣기에 저것은 화답하는 노랫소리다.” 19. 모세가 진지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 무리가 수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격분한 나머지 손에 들었던 두 판을 산 밑에 내던져 깨뜨렸

다. ²⁰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불에 태우고 빵아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다. ²¹ 모세가 아론을 나무랐다. “이 백성이 당신을 어떻게 했기에, 당신은 그들이 이토록 큰 잘못을 저지르게 하였소?” ²² 아론이 변명하였다. “우리의 영도자여, 노여워 마시게. 이 백성이 얼마나 악에 젖어 있는지 당신도 잘 알지 않는가 ²³ 그들이 나에게 와서 우리를 에집트 땅에서 데려 내 온 그 어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앞장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더군. ²⁴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고 했더니, 금을 가진 자들이 몸에서 금을 떼어다가 주기에 그것을 불에 넣었지. 그랬더니 이 수송아지란 놈이 나오더군.”

해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이로운 방법으로 이집트를 빠져 나왔는데, 주님은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들은 기둥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밤낮에 상관없이 기둥이 멈출 때는 멈추도록 지시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이동하지 않았다.

기둥들은 백성들이 르비담을 떠났을 때 그들을 시나이 광야로 인도했다. 그곳은 넓은 평지에 불연이 솟은 듯 한 산이 있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기까지는 무려 석 달이나 걸렸다. 백성들은 기둥이 시나이 산 앞에 머무르자 그곳에 천막을 치고 거의 일 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하자.

- * 백성들은 산꼭대기로부터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가?
- * 모세는 계명과 다른 법 그리고 예배와 삶을 위한 규정들을 받도록 어디로 불려졌는가?
- * 누가 모세와 함께 산에 오르도록 지시되었는가?
- * 모세는 산에서 며칠이나 있었는가?
- *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주님께 한 약속을 이행했는가?
- * 백성들은 모세가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자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 아론은 그들을 위해 어떤 우상을 만들어 주었는가?
- *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었는가?
- *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자 돌 판을 어떻게 했는가?
- * 모세는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는가?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후손은 시나이에서 얼마나 오래 야영했는가?
- 2) 백성들은 주님께서 시나이산 꼭대기로부터 말씀하시는 무엇을 들었는가?
- 3) 주님은 그 외의 어떤 지시를 백성들을 위해 모세에게 주셨는가?
- 4) 모세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5) 본문에서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가?
- 7) 백성들은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8) 아론은 백성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했는가?
- 9) 그는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 10)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었는가?
- 11) 모세는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백성을 보자 무엇을 했는가?
- 12) 그는 이 송아지를 어떻게 했는가?
- 13) 아론은 자신을 어떻게 변명했는가?

질문의 답

- 1) 거의 일년 2) 계명 3) 행동 지침의 법, 예배에 관한 사항 4) 산꼭대기
- 5) 40일 6) 영원히 갔다고 7) 신들 8) 금귀고리 9) 송아지 10) 두 돌판
- 11) 돌판을 깨트렸다 12)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렸다
- 13) 불 속에 금을 던지니 송아지가 나왔다

11

아론의 가지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아론에 관한 부분인 출애굽기 28장 1-4절과 40-43절을 먼저 읽고 민수기 33장을 참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길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의 열 두 스파이, 특히 14장 26-35절을 읽고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본문을 공부하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민수기 17장 16-28절

1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7.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각 가문에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되, 각 가문별로 어른들이 하나씩 가져오게 하여라. 이렇게 가져온 열 두 가지에 각기 자기 가문의 이름을 새기게 하되 18. 레위 가문의 가지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겨라. 각 가문마다 그 가문의 어른에게 나뭇가지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19. 그것들을 내가 너를 만나는 만남의 장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 두어라. 20. 내가 택한 사람의 가지에서 싹이 돋으리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너희를 향하여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21.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하자 각 가문별로 대표들이 나뭇가지를 하나씩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열 두 가지 중에는 아론의 가지도 있었다. 22. 모세는 그 가지들을 증거의 장막 안 야훼 앞에 놓아두었다. 23.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 가 보니 레위 가문을 대표한 아론의 가지에 싹이 돋고 꽃이 피었으며 감복송아 열매가 이미 익어 있었다. 24. 모세가 그 가지들을 야훼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로 나오자 그들은 저마다 자기 가지를 찾아가지고 돌아갔다. 25.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의 가지는 증거궤 앞에 다시 가져다 보관하고 두 반역자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여라. 그리하면 나에게 불평을

하다가 죽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리라.”²⁶ 모세는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²⁷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호소하였다. “이젠 끝장ियो. 영락없이 망했소. 모조리 망하게 되었소. 감히 야훼의 성막에 나갔다가는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아주 망해야 한단 말이오?”

해설

모세는 금송아지가 파괴된 후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했다. 성막이란 주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천막이다. 주님은 모세에게 성막 속의 가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하달하셨다. 가구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궤인데, 그것은 금박을 한 상자이다. 이 궤 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 판이 보관되었다. 앞서 우리는 모세가 첫 번째 새긴 돌 판을 가지고 하산했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첫 돌 판을 깨트렸음을 공부했다. 그 후 주님은 모세로 하여금 산 아래서 새 돌 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도록 하시고, 그 돌 판에 백성을 위해 다시 계명을 새겨 주셨다.

모세와 항상 동행하는 그의 형은 아론이었다. 주님은 모세에게 아론이 이스라엘의 대사제가 되고, 그의 아들들은 사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모세와 아론이 속해있던 레위 지파는 성막의 관리와 백성의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장하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예배의 일 중에서 가장 높은 일을 하도록 허락되었다.

이 백성들이 시나이를 떠난 뒤 불(구름)기둥은 광야의 곳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긴 여행과 고달픔을 모세와 아론의 탓이라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고난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가?
- * 주님은 누구만이 대사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 * 모세에게 가져온 가지는 모두 몇 개였는가?
- * 그들은 자신의 지파의 가지를 어떻게 알았는가?

- * 가지들은 어디에 놓아두었는가?
- * 다음날 아침 모세는 아론의 가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보았는가?
- *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주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질문 정리

- 1) 주님이 시나이에서 이스라엘 후손에게 주신 처음의 법은 무엇인가?
- 2) 주님은 그곳에서 그 외의 어떤 법을 주셨는가?
- 3) 왜 백성들은 모세가 아주 가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 4) 백성들은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5) 아론은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었는가?
- 6) 아론은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 7) 모세는 산에서 가지고 내려 온 첫 돌 판을 어떻게 했는가?
- 8) 모세는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는가?
- 9) 주님은 누구를 이스라엘의 대성직자 로 임명하셨는가?
- 10)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이나 광야를 배회한 까닭은 무엇인가?
- 11) 이 백성들은 곤경의 탓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 12) 모세와 아론에 반기를 든 사람에게 어떤 변이 발생했는가?
- 13) 본문에서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는가?
- 14) 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되었는가?
- 15) 레위지파의 나무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 졌는가?
- 16) 모세는 그 가지들을 어디에 두었는가?
- 17) 다음날 아침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18) 이 광경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 19) 주님은 아론의 가지를 어디에 보관하라고 분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십계명 2) 많은 부속법들 3) 40일 동안 가 있었기 때문
- 4)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5) 송아지 6) 귀에 걸린 금고리
- 7) 돌판을 깨트렸다 8) 파괴했다 9) 아론 10) 믿음의 결핍
- 11) 모세와 아론 12) 멸망했다 13) 가지 14) 가지에 이름들을 새겼다 15) 아론
- 16) 증거궤 앞 17) 아론의 가지에 감복송아 열매가 달렸다 18) 아론만이 대성직자 이다
- 19) 궤 앞에 보관

12

길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머리말

본문을 읽어보면 지난 줄거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알 수 있다. 즉,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승계 그리고 주님이 내리신 여호수아의 임무(1:7-9)등이다. 요르단을 건넌과 길갈에 세워지는 열두 개의 돌에 관한 이야기는 본문과 연관 지어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5장

1. 요르단강 건너 서편 지역에 있는 아모리의 모든 왕과 해안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르단강 물을 말리시어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모두 났을 잃었다. 2. 그 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3.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아랄롯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4.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가운데 군인 연령에 이른 남자는 이집트를 떠나 오는 도중,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5.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를 떠나오는 도중 난 백성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6.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인 연령에 이른 층이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십 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다.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까닭에 야훼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우리에게 주마고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이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리라고 다짐하셨던 것이다. 7. 그들 대신에 그들의 후손을 일으키셨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이 아직 우뚝거지었던 것은 도중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8. 온 국민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 천막에서 쉬며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9.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그리하여 그 곳 이름을 지금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10.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 달 십 사일 저녁때에 예리고 평야에서 과월절을 지켰다. 11. 과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맛보았다. 바로 그 날 그들은 누룩 안 든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던 것이다. 12.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떴었다. 그 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당년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13. 여호수아가 예리고 지방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그가 고개를 들고 보니 자기 앞에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14.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온 것이다.” 이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물었다. “내 주여, 당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15.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이 지시하였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해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땅에 진입하기 위해 요르단 강을 건너야만 했다. 그러나 그 때는 마침 봄철로서 홍수기였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홍해를 건넜던

과정을 기억한다. 지금 주님께서는 과거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처럼 요르단 강물을 갈라 주셨다.

주님은 그들이 모두 강을 건너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임명해서 각자 요르단 강 한복판에서 돌 열두 개를 떼어내도록 여호수아에게 분부하셨다. 그들이 돌들을 가지고 첫 숙영지에서 했던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4장 19-24과 5장 9-16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거룩한 땅 내에 이 백성들의 첫 진영지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왜 그곳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가?
- *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날을 기념하였는가?
- * 과일절에 관해 기억나는 것은 무엇인가?
- * 만나는 길갈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 * 누가 길갈에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는가?
- * 여호수아는 그에게 뭐라고 물었는가?
- * 그는 뭐라고 답변했는가?
- * 그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는가?
- 2)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가?
- 3) 누가 모세를 대신하는 지도자가 되었는가?
- 4) 이 백성들은 어떻게 요르단 강을 건넜는가?
- 5) 그들은 강바닥에서 무엇을 취했는가?
- 6) 그들은 열 두 개의 돌을 취해 무엇을 했는가?
- 7) 거룩한 땅에서 이 백성들의 첫 숙영지는 어디였는가?
- 8) 길갈은 무슨 뜻인가?
- 9) 왜 길갈이 그렇게 불렸는가?
- 10)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어떤 예식을 지키도록 했는가?

- 11) 그곳에서 어떤 날을 기념했는가?
- 12) 그곳에서 만나의 공급은 어떻게 되었는가?
- 13) 왜 그들에게 만나가 필요 없게 되었는가?
- 14) 여호수아는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 15) 천사는 자신이 누구라고 말했는가?
- 16)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는가?

질문의 답

- 1) 40년 2) 네보산 3) 여호수아 4) 기적 5) 열 두 돌
- 6) 기념비를 세움 7) 길갈 8) 굴림, 벗김
- 9)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10) 할례
- 11) 과일절 12) 중지 되었다 13) 그곳에는 풍부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 14)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천사 15) “야훼 군대의 총 사령관”
- 16)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13

거룩한 땅의 분할

머리말

본문은 거룩한 땅의 분할 이전인 그 땅의 정복에 관한 줄거리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따른 세 가지 작전과 명령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18장 1-10절

1.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만남의 장막을 쳤다. 전 지역이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던 것이다. 2.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직도 유산을 받지 못한 지파 일곱이 남아 있었다. 3.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다. “언제까지 너희 조상의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겠느냐? 4. 당장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출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 분할 받을 땅을 답사하여 지적도를 만들어 오게 하리라. 5. 그들은 그 지역을 일곱 몫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그대로 남쪽 자기 영토를 차지하고 요셉 가문은 그대로 북쪽 자기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6. 너희는 그 땅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 지적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우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여 너희의 몫을 결정해 주리라. 7. 레위 사람들은 너희들과 어울려 한 몫 받지 못한다. 야훼를 섬기는 사제 직분이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가드와 르우벤과 므나세 지파 절반은 야훼의 종 모세에게서 받은 대로 요르단강 동편을 유산으로 받았다.” 8. 이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났다. 지적도를 만들려고 떠나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다. “너희는 그 지방에 가서 답사하며 지적도를 만들어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여 너희 몫을 결정해 주리라.” 9. 그들은 길을 떠나 각 지방을 돌아 다니면서 그 곳 성들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 지적도를 만들어 가지고 실로의 진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10.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그들의 몫을 결정하려고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몫 한 몫 떼어 주었다.

해설

여호수아는 첫 숙영지 길갈로부터 가나안의 전역을 정복하기 위해 전사들을 지휘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일생에서 20년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적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했다. 그들은 무려 7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 그 땅의 세력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각 지역을 지파들에게 분할한 후 정착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성막이 실로에 세워졌는데, 성막은 그곳에서 삼백년 이상 머무르게 되었

다. 성막이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시나이 산에서 만들어진 예배를 위한 천막을 일컫는다. 그리고 궤는 주님이 손수 새기신 계명이 적힌 두 돌 판을 보관한 금으로 입혀진 상자이다. 이 궤는 언약궤라고도 불리며, 성막의 지성소인 가장 깊은 방에 언제나 모셔져 있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제단위에 항상 성경을 보관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성막은 광야 여행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같이 움직였는데, 특별히 레위지파에 의해 운반되었다. 레위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예배에 속한 모든 일을 관장하도록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광야 여정 중에 성막을 모든 진영의 한 중앙에 모셔왔다. 그러나 거룩한 땅이 정복된 후 더 이상 성막을 옮겨 세울 일이 없게 되자 그들은 성막을 항구적인 장소에 설치해 놓았다. 레위인들은 그들만의 특정 구역을 받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 전역에서 48개의 성이 주어졌는데, 이는 각 지파에서 4개씩의 성이 할당된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각 지파에 퍼져 살면서 일 년 내내 명령된 제물과 헌납을 받고 주님을 예배함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월절과 다른 두 가지 큰 축제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이뤄졌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그들은 성막을 어디에 세웠는가?
- * 실로란 무슨 뜻인가?
- *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거룩한 땅을 구획 했는가?
- * 유다와 요셉지파에게는 어느 구획이 주어졌는가?
- * 제 5절에서 “북쪽” 이란 어느 곳을 말하는가?
- * 요셉으로 비롯된 두 지파는 무엇인가?
- *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나쎄 반쪽 지파에게는 어느 구역이 주어졌는가?
- * 구역을 할당 받지 못했던 나머지 일곱 지파는 어떻게 구역을 갖기로 결정했는가?
- *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주어진 구역은 어디인가?
- * 갈렙에게 특별히 주어진 구역은 어디인가?
- * 헤브론에 관해 기억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는 몇 개의 작전으로 거룩한 땅을 정복했는가?
- 2) 이 작전은 어떤 순서로 수행되었는가?
- 3) 첫 작전과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 4) 그 땅의 모든 적은 정복되었는가?
- 5) 항구적인 성막은 어디에 설치되었는가?
- 6) 실로란 무슨 뜻인가?
- 7) 누가 그 땅의 분할 경계를 그렸는가?
- 8) 각 분할 지역을 차지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 9) 제비를 뽑을 때 그 결정은 실지로 누가 하는가?
- 10) 그 땅의 중심부는 어떤 지파에게 돌아갔는가?
- 11) 요셉의 두 아들은 왜 이 땅을 분할하는 데에 자격이 있었는가?
- 12) 요르단 건너 지역에는 어떤 지파가 정착했는가?
- 13) 그 땅의 남부는 어떤 지파에게 할당되었는가?
- 14) 갈렙에게는 어느 성이 주어졌는가?
- 15) 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할 해주지 않았는가?
- 16) 그 대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질문의 답

- 1) 3
- 2) 중심부-남부-북부
- 3) 예리고, 아이, 기브온
- 4) 그렇지 않다
- 5) 실로
- 6) 평화
- 7) 각 지파의 세 사람들이 지적도를 만들
- 8) 추첨
- 9) 주님
- 10) 요셉, 베냐민, 단
- 11)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
- 12) 르우벤, 가드, 므나세 반쪽
- 13) 유다, 시므온
- 14) 헤브론
- 15) 예배를 관장하기 때문
- 16) 48개의 성읍

14

판관 삼손

머리말

본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 본문은 삼손이란 인물의 부주의함과 자만심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꾸준히 필요함을 예증해준다.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음과 더불어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의 의미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를 행하는 것에 행복이 있음도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판관기 14장

1. 삼손은 딘나로 내려 갔다가 거기에서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고 2. 부모에게로 돌아 와서 칭을 드렸다. “제가 딘나에 갔다가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처녀한테 장가들고 싶은데 얻어 주십시오.” 3.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러지 못하고 하였다. “네 일족이나 네 겨레 가운데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색시를 얻으려느냐?” 삼손은 아버지를 졸랐다. “그 여자가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색시를 얻게 해 주십시오.” 4.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5. 삼손이 딘나로 내려가서 딘나에 있는 한 포도원에 다다랐을 때의 일이다. 난데없이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이었다. 6. 그 때 야훼의 영이 갑자기 내리 덮쳐 삼손은 양 새끼 찢듯 맨손으로 그 사자를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7. 그 여인에게로 내려 가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그 여인에게 빠져 있었다. 8.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가다가, 가던 길을 벗어나 죽은 사자가 있는 데로 가서 그 죽은 사자 몸에 벌이 꿀을 쳐 놓은 것을 보았다. 9.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따가지고 길을 가면서 먹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얼마 따다가 부모에게도 대접해 드렸다. 그러면서도 그 꿀이 죽은 사자 몸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만은 하지 않았다.

10. 삼손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젊은이가 장가갈 때 하는 풍속대로 잔치를 벌였다.

11. 그러나 그들은 삼손이 무서워서 들러리를 삼십 명이나 뽑아 함께 머물게 하였다.

12. 그 자리에서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수수께끼 하나를 낼 터이니, 잔치가 계속되는 이렛 동안 생각해서 맞혀 보게. 알아내기만 하면 내가 모시옷 서른 벌과 예복 서른 벌을 내지. 13. 그러나 맞혀 내지 못하면 자네들이 나에게 모시옷 서른 벌과 예복 서른 벌을 내야 하네.” 그들은 좋다고 하면서 수수께끼를 말해 보라고 하였다. 14. 그래서 그는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15. 나흘째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울러메었다. “네 신랑을 꺾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서 알려 나오. 그렇지 않으면 네 일족을 불에 태워 죽이겠다. 네가 우리를 초대해 놓고는 홀랑 벗길 셈이냐?” 16. 삼손의 아내는 그에게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떼를 썼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 하고 있어요. 우리 동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으셨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저한테마저 숨기실 건 없지 않아요?” 그는 “그것은 내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에게라고 말하겠소?” 하면서 거절했지만 17. 잔치가 끝나기까지 이렛 동안 색시가 매달려 울면서 조르는 바람에 삼손은 이레째 되던 날 털어 놓고야 말았다. 색시는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제 동족들에게 일러 주었다. 18. 이레째 되는 날이 와서 삼손이 신방에 들려고 하는데, 그 성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고 사자보다 힘센 것이 어디 있으랴?” 29. “자네들이 내 암소로 받을 갈았구나 그래서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거지?” 삼손은 이렇게 말하고는

19. 야훼의 영에 사로잡혀, 아스클론으로 내려 가 거기에서 삼십 명을 죽이고 그들의 나들이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사람들에게 주고는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 왔다. 20. 일이 이쯤 되자 삼손의 아내는 들러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에게 시집가고 말았다.

해설

블레셋 족들은 거룩한 땅의 해안가를 따라 살고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그들의 세력이 아주 강해져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시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된다. 주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 그의 부모들에게 그가 장차 나지르인이 될 것이라고 분부하셨다. 이는 주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느님을 섬기도록 그를 발탁했음을 의미한다. 나지르인의 특징은 머리털과 턱수염이 자라나는 대로 허용하며, 그 털들을 깎거나 손질하지 않는 것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감옥에 쳐 넣고 그의 눈을 뽑아 버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머리털은 자라났고 그의 힘은 다시 복구되어갔다. 그러는 동안 블레셋의 군중들이 그들의 신전에 모여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 감옥에서 그를 꺼내어 신전으로 데려 왔다. 그가 신전을 버티는 두 큰 기둥을 밀자 신전이 무너져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깔려 죽었다. 삼손은 그가 전과같이 그들을 죽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의 마지막 섬김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였던 것이다. 다음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무찌르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었는가?
- *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착각을 했는가?
- *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 그들은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지자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 * 주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세우셨는가?
- * 본문에서는 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가?
- * 본문에서의 판관은 누구인가?
- *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 * 왜 그는 블레셋 영토에 갇혔는가?
- * 그는 길가는 도중 자신의 힘의 위력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 * 그 다음 그는 돌아오던 길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수수께끼를 내었는가?
- *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사람은

누구인가?

*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 그의 머리털을 자른 사람은 누구인가?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후손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 2)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 3) 그들이 주님께 얼굴을 돌릴 때 그분은 어떻게 도우셨는가?
- 4) 삼손은 어느 지파에 소속되는가?
- 5) 그가 장차 어떤 신분이 된다고 그의 부모에게 말했는가?
- 6) 나지르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 7) 삼손이 사는 지역에서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는가?
- 8) 삼손의 힘의 비밀은 무엇이었는가?
- 9) 그의 약점은 무엇이었는가?
- 10) 그가 처음 블레셋 여자에게 갈 때 드러난 그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 11) 그는 두 번째 방문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2) 그는 어떤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 13) 그 이후의 삼손의 삶과 죽음은 어떠했는가 ?

질문의 답

- 1) 하느님을 잊었다 2) 적들이 봉기했다 3) 판관들 4) 나지르인
- 6) 머리털을 깎지 않음 7) 블레셋 8) 머리털 9) 여인, 자만
- 10) 사자를 죽임 11) 꿀
- 12)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 13) 머리털이 잘리고 눈이 빠졌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

머리말

먼저 사무엘 이전의 판관들과 판관인 사무엘의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과 부르심을 살펴보면서 본문의 공부를 시작한다.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8장

1.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두 아들을 판관으로 임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2.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였다. 이들은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3.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잇속만 차려 뇌물을 받고는 법대로 다스리지 못하였다. 4.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곳에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 가 5. 건의하였다. “당신은 이제 늙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우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6. 사무엘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시오”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야훼께 기도하니 7.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백성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 주어라.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8.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려 내온 이후 이날 이때까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런 짓을 해왔다. 너한테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9.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 주어라.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왕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일러 주어라.” 10.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달라는 백성에게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낱낱이 일러 주었다. 11. 사무엘은 이렇게 일러 주었다.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알려 주겠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대나 기마대의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12. 천인대장이나

오십인대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거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보병의 무기와 기병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다. 13.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도 하고 요리나 과자를 굽는 일도 시킬 것이다. 14.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 곡식과 포도에서도 십 분의 일세를 거두어 자기의 내시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6. 너희의 남종 여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좋은 소와 나귀를 끌어다가 부려 먹고 17. 양떼에서도 십 분의 일세를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들마저 종으로 삼으리라. 18. 그 때에 가서야 너희는 너희들이 스스로 뽑아 세운 왕에게 등을 돌리고 울부짖겠지만, 그 날에 야훼께서는 들은 체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19.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 주었던만 백성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을 모셔야겠습니다. 20. 그래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려 줄 왕,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 줄 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나서 야훼께 아뢰니, 22. 야훼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 주어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두들 자기의 성읍에 가 있으라고 일렀다.

해설

사무엘은 마지막 관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관관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사무엘외의 관관들은 한 지파만을 다스렸지만 사무엘은 모든 지파들이 인정하는 지도자였다. 그 이유는 사무엘의 시대 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인도자로 주님을 찾게 될 때만이 그들이 강건했음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무엘은 군사지도자 대신 종교지도자였던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사무엘은 어디서 성장했는가?
- * 주님은 언제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 * 사무엘의 집은 어디였는가?
- * 그가 나이 들었을 때 백성들을 불쾌하도록 한 일은 무엇인가?
- *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 * 이 요청에 사무엘은 기뻐했는가?

- * 주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분부하셨는가?
- *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가?
- *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믿었는가?
- * 백성들은 어떤 근거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는가?

질문 정리

- 1) 누가 마지막 판관인가?
- 2) 그는 어디서 성장했는가?
- 3) 사무엘이 어릴 때 누가 대제사장이었는가?
- 4) 사람들은 사무엘이 예언자임을 어떻게 알았는가?
- 5) 사무엘과 다른 판관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6) 사무엘의 고향은 어디인가?
- 7) 그가 고령이 되어서 백성들을 불만족하게 한 일은 무엇인가?
- 8) 백성들은 무엇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는가?
- 9) 사무엘은 이 요구를 반겼는가?
- 10)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이 무엇 같다고 말했는가?
- 12)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마음을 바꿨는가?

질문의 답

- 1) 사무엘 2) 실로 3) 엘리 4)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5) 종교적 지도자, 전 백성이 지도자라고 인정했다 6) 라마 7) 자기 아들에게 판결하게 했다 8) 왕 9) 반기지 않았다
- 10) 왕을 세워 주시오 11) 거친 감독 12) 바꾸지 않았다

16

아각왕을 살려둔 사울

머리말

사울의 기름부음, 제비로 뽑혀진 사울, 사울의 용모에 흠족해한 백성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전투에서의 승리 등을 언급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첫 변절에 관한 10장 8절과 13장 8-14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5장

1.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였다. “야훼께서 나를 보내시어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소. 그러니 이제 야훼의 말씀을 들으시오. 2. 만군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이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즉,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하였다. 3. 그러니 너는 당장에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 재산을 사정 보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야 한다.’ ” 4. 그래서 사울이 총동원령을 내리고 텔라임에서 점호해 보니 보병이 이십 만이었고 유다측에서도 일만이 가담했었다. 5. 사울은 아말렉의 시에 이르러 골짜기에 군인들을 잠복시켜 놓고 6. 켄 사람들에게 전갈을 보냈다. “아말렉 편에서 떨어져 내려오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대들이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우리가 아말렉을 칠 때 그대들까지 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야 되겠는가?” 이 말을 듣고 켄 사람들은 아말렉에서 떨어져 나왔다. 7.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 하월라에서 시작하여 이집트 동쪽에 있는 수르까지 따라 가며 쳤다. 8. 그는 아말렉 왕 아각만 사로잡고 나머지 군대는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9. 사울이 거느리는 이스라엘군은 아각 뿐 아니라 양과 소 중에서도 좋은 놈, 기름진 짐승과 새끼 양들과

그 밖에 모든 탐스러운 것들을 없애 버리기가 아까워 그대로 살려 두고 쓸모없고 하찮은 것들만 없애 버렸다. 10. 이 일이 있는 후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렸다. 11 “나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애가 타서 밤새도록 야훼께 부르짖었다. 12. 이튿날 아침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나서자 누가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해 주었다. “사울왕은 오는 길에 가르멜에다 자기의 승전비를 세워 놓고 그곳을 떠나 길갈로 내려 갔습니다.” 13.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만나자 사울이 “야훼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야훼께서 시키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하며 인사를 하였다. 14. 사무엘이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된 일ियो? 또 소 우는 소리도 들리는데 어찌 된 일ियो?” 하고 물었다. 15. 사울이 “군인들이 아말렉에게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양떼, 소떼 중에서도 좋은 놈을 살려 두었다가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잡아 바치려고 끌어 온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은 모조리 없애 버렸습니다” 하고 변명하자 16. 사무엘이 “그만하십시오. 지난밤 야훼께서 나에게 내리신 말씀을 전할 터이니 들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17. 사무엘이 입을 열었다. “그대는 본래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야훼께서 그대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다. 18. 야훼께서 그대를 출정시키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소? ‘가서 저 못된 아말렉족을 없애 버려라. 그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전멸시켜라’ 고 하지 않으셨소? 19. 그런데도 그대는 어찌하여 야훼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전리품에만 덤벼들어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소?”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였다. “나는 야훼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야훼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을 전멸시키고 아말렉 왕 아각만 잡아 왔습니다. 21. 단지 군인들이 죽여 없애야 할 짐승 가운데서 양과 소를 좋은 놈으로만 잡아 왔습니다. 그것도 길갈에서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잡아 바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22.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야훼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번제나 친교제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염소의 기름보다 낫소. 23.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점장이 노릇만큼이나 죄가 되고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죄가 되오.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키실

것이오.”²⁴ 사울이 사무엘에게 빌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인들이 무서워서 야훼의 명령과 선생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²⁵ 이제 부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야훼께 예배를 드리러 돌아 갈 터인데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²⁶ “같이 갈 수 없소.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이스라엘 왕위에서 밀어 내실 것이오.” 이 말을 남기고 사무엘이²⁷ 돌아서 가려고 하자 사울이 도포를 붙잡는 바람에 도포자락이 찢어졌다.²⁸ 사무엘이 그에게 일렀다. “야훼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에게서 찢어 내시어 동쪽 가운데서 그대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주셨소.²⁹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이는 빈말을 하시거나 변심하시는 분이 아니오. 그는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시오.”³⁰ 사울이 애원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한 번만 보아 주십시오. 내가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선생께서 저와 함께 돌아 가 주시지 않겠습니까?”³¹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 갔다. 사울은 야훼께 예배를 드렸다.³²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야말렉 왕 아각을 데려 오라고 하였다. 아각은 마침내 죽을 고비를 넘겼나 보다고 생각하며 좋아서 사무엘 앞으로 나왔다.³³ 그러자 사무엘이 “너의 칼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자식을 잃었는지 아느냐? 네 어미도 그런 여자들처럼 자식을 잃어야 마땅하다” 하며 야훼 앞에서 아각을 난도질하였다.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다.³⁴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궁궐로 돌아갔다.³⁵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야훼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다가 후회하신 일을 생각하고 통곡하여 마지않았다.

해설

사울은 선한 왕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첫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 승리는 그에게 자기 능력의 과시가 되어 그를 잘난 인물이라고 착각하도록 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도 사무엘은 여전히 주님의 예언자였다. 사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어서 사무엘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울은 성급하여 다른 적들의 위협을 받게 되자 군대를 소집했다. 그리고 전투가

있기 전 사무엘이 와서 제물을 바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울은 미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물을 바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다. 그러나 사무엘은 주님께 순종함을 사울이 엄격히 수행하지 못했기에 사울의 왕국이 길게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으른 아이가 자신의 게으른 행동을 감추고자 부모에게 아양을 떠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자녀의 귀여움을 싫어할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양을 부리기보다 ‘게으르지 말라’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녀를 더 행복해주는 길임이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본문에서 어떤 적과의 전투가 언급되는가?
- * 이 적들과의 전투가 처음 언급된 성경의 책은 무엇인가?
- * 이스라엘은 처음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얻었는가?
- *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투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했는가?
- * 사울은 이 전투에서 주님께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 * 그는 어떤 변명을 늘어놓았는가?
- *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사무엘은 아각왕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질문 정리

- 1) 첫 왕은 누구인가?
- 2) 그는 어떻게 왕으로 선출되었는가?
- 3) 왜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됨을 기뻐했는가?
- 4) 그는 어느 영토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는가?
- 5) 그가 두 번째 맞이한 적은 누구인가?
- 6) 그는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가?
- 7) 그는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했는가?
- 8) 본문에서 사울에게 어떤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되었는가?

- 9)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이 적에 대하여 공부했는가?
- 10) 이 적과의 최초 전투에서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 11) 주님은 이 적을 어떻게 쳐부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는가?
- 12) 사울은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 13)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14) 어떤 징조가 발생했는가?
- 15) 사무엘은 아각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질문의 답

- 1) 사울 2) 제비로 3) 키가 크고 힘이 세서 4) 요르단 건너 지역 5) 블레셋
- 6)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다 7)요나단 8)아말렉
- 9) 출애굽 후 광야에서의 최초의 적이었다 10)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음으로
- 11) 완전히 파괴하라 12) 왕과 좋은 가축을 살려 두었다
- 13) 그는 왕국을 잃게 된다 14) 도포가 찢어짐 15) 사무엘이 그를 죽였다

다윗과 예언자 나단

머리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에게서 찢어 내시어 ...” 라는 사무엘의 엄명이 떨어지게 함과 더불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다음 사울이 계속 왕위에 있는 동안 다윗의 생애는 사울과 겹쳐진다. 따라서 이 두 왕의 상이점과 다윗의 업적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사무엘하 12장 1-25절

1. 야훼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2.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매우 많았지만, 3. 가난한 이에게는 품삯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들과 함께 키우며, 한 밥그릇에서 같이 먹이고 같은 잔으로 마시고 잘 때는 친딸이나 다를 바 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4.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 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은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 새끼양을 빼앗아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5. 다윗은 몹시 괴씸한 생각이 들어 나단에게 소리쳤다.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6. 그런 인정 머리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 배로 갚게 하리라.” 7.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울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8. 나는 네 상전의 딸과 아내들까지 네 품에 안겨 주었다. 나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딸들까지 너에게 주었다. 그래도 모자란다면 어떤 여자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9.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알아보며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을 했느냐? 너는 헛 사람 우리야를 칼로 쳐 죽였다. 암몬군의 칼을 빌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10. 네가 이렇게 나를 알고 헛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으니, 너의 집안에는 칼부림 가실 날이 없으리라.’ 11. 야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네 당대에 재난을 일으킬 터이니 두고 보아라. 네가 보는 앞에서 네 계집들을 끌어다가 딴 사내의 품에 안겨 주리라. 밝은 대낮에 네 계집들은 욕을 당하리라. 12. 너는 그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게 했지만, 나는 이 일을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리라.’ ” 13. “내가 야훼께 죄를 지었소.”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자 나단이 말하였다. “야훼께서 분명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금님께서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14. 그러나 임금님께서 야훼를 알아보셨으니, 우리야의 아내가 낳게 될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15. 나단은 이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야훼께서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 준 아이에게 중병을 내리셨다. 16.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베옷을 걸친 채 밤을 새우며 어린것을 살려 달라고 맨땅에 엎드려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17. 늙은 신하들이 둘러서서 일어나라고 했으나, 그는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더불어 음식을 입에 대려고도 하지 않았다. 18. 아기는 마침내 칠 일만에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다윗에게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차마 알리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아기가 살아 있을 때에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셨는데,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면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른다.” 19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는 아이가 죽었음을 알아채고 아기가 죽었느냐고 물었다. 신하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20. 다윗은 땅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 예배를 올렸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음식을 차려 오게 하여 먹기 시작하였다. 21. 신하들이 물었다. “아기가 살아 계실 때에는 잡수시지도 않고 아기 생각만 하며 우시더니, 막상 아기가 돌아 가지자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어찌 된 일이십니까?” 22. 그가 대답하였다. “그 애가 살아 있을 때 굶으며 운 것은 행여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기를 살려 주실까 해서였소. 아기가 이미 죽고 없는데 굶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내가 굶는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오겠소? 내가 그 애한테 갈 수는 있지만, 그 애가 나한테 돌아

을 수는 없지 않소?” 24. 다윗이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니 바세바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야훼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25. 야훼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시어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라 하여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해설

사울이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다윗에게 왕관이 씌워졌다. 다윗도 사울처럼 위대한 전투 용사였으나, 사울처럼 자신을 신뢰하지는 않았다. 다윗이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치루는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다윗이 점령한 성읍중의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는 이곳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궤를 안치하며 궤를 위한 새 성막도 지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구인가?
- * 다윗의 고향은 어디였는가?
- * 후에 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
- * 기름부음을 받을 당시 다윗의 나이는 얼마였는가?
- *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다윗이 범한 큰 죄는 무엇인가?
- * 주님은 그에게 누구를 보내 견책하셨는가?
- * 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이야기는 무엇인가?
- *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 속의 부자를 어떻게 판결했는가?
- * 그러자 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 나단은 왜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가?
- * 다윗의 별은 무엇이었는가?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구인가?
- 2)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 3) 그의 첫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4) 누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 5) 그는 무엇 때문에 사울의 관심을 사게 되었는가?
- 6) 그는 골리앗을 어떻게 때려 눕혔는가?
- 7) 다윗은 어디에서 처음으로 통치를 시작했는가?
- 8) 그는 얼마동안 그곳에서 통치했는가?
- 9) 그는 전 국토의 왕이 된 후 어떤 성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는가?
- 10) 그가 그 성에 모신 아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 11)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성취한 업적은 무엇인가?
- 12) 그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 13) 주님은 그를 견책하도록 누구를 보냈는가?
- 14) 나단은 어떤 비유를 다윗에게 들려주었는가?
- 15) 다윗은 비유속의 사람을 어떻게 판결했는가?
- 16) 그런 다음 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17) 다윗은 어떻게 나단의 질책을 받았는가?
- 18) 왜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로 먼저 말했는가?

질문의 답

- 1) 다윗 2) 베들레헴 3) 목자 4) 사무엘 5) 하프연주자였기 때문
- 6) 자갈과 돌팔매로 7) 헤브론 8) 7년 9) 예루살렘 10) 궤
- 11) 주위의 모든 적을 정복했다 12) 바세바와 정을 통했다 13) 나단
- 14) 부자와 가난한자, 암컷 새끼 양 15) “죽일 놈”
- 16) “네가 그 사람이다” 17) 회개했다 (시편 51편 참조)
- 18) 공정한 판단과 자신의 생명을 보전받기 위함

18

솔로몬의 최후

머리말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의 둘째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다. 그의 이름의 뜻, 다윗의 통치와 그의 통치의 상이점, 그의 지혜와 영예 그리고 성전건축에 관하여 언급한다. 그리고 그가 우상숭배로 전락한 원인이 아내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그의 아내들의 우상숭배 때문이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여로보암이 받은 겉옷 조각과 사울이 찢은 사무엘의 도포조각을 연관 지어 생각해본다(사무엘상 15:27-28).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11장 1-13절, 26-43절

1. 솔로몬왕은 매우 호색가였으므로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 파라오 왕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등 외국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 들였다. 2. 야훼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인들과 결혼을 금지하시고 경고하시기를 “너희는 외국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고 외국 남자를 남편으로 삼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피어 그들의 신에게 너희를 유인해 가겠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 외국 여인들과 깊은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3. 솔로몬은 무려 칠백 명이나 되는 후궁을 거느렸고 그 외에 수청 드는 여자가 삼백 명이나 되었다. 왕은 여인들에게 빠져 마음이 흐려졌으므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4. 솔로몬은 늙어 그 여인들의 꾀에 넘어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왕은 선왕 다윗만큼 자기 하느님 야훼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 5.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도렛을 섬겼고 암몬인들의 우상 밀곰을 숭배하였다. 6. 이와 같이 솔로몬은 선왕 다윗만큼 야훼를 따르지 못하였고 야훼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 7.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편 산 위에 모압의

우상 그모스의 신당과 암몬의 우상 몰록의 신당을 지었다. ⁸ 솔로몬은 외국인 왕비들이 하자는 대로 왕비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물까지 드렸다. ⁹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노하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마음으로부터 저버렸기 때문이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으며 ¹⁰. 그 때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일러두었는데 왕은 끝내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¹¹. 마침내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이 이러하고, 내가 너와 계약을 맺으면서 일러 둔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쪼개서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¹². 그러나 너의 아버 다윗을 보아서 네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고 너의 아들의 대에 가서 이 나라를 쪼개리라. ¹³. 그러나 이 나라를 쪼개어 다 내주지는 않고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어, 내 종 다윗의 뒤를 이어 내가 지정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하리라” ...

²⁶.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족에 속한 스레다 사람으로서 솔로몬의 신하였다. 그도 또한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스루아였다. ²⁷. 그가 반기를 든 경우는 이러하였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건축하고 그의 선왕 다윗의 성을 보수할 때였다. ²⁸. 그 사람 여로보암은 힘센 장사였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지파의 부역 총책임자로 임명하였다. ²⁹. 한번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히야를 길에서 만났다. 그 예언자는 말쑥한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들에서 단들이 있게 되자 ³⁰.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열 두 조각으로 찢었다. ³¹.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열 조각을 맡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하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라. 내가 솔로몬의 손안에 있는 이 나라를 찢어 너에게 열 지파를 주리라. ³². 그러나 한 지파만은 솔로몬에게 주어 내 종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내가 지정한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하리라. ³³.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섬기는 여신 아스도렛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예배하였다. 그는 그의 아버 다윗과는 달리, 내가 보여 준 길을 가지 않았고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았으며 내가 준 규정과 법령을 지키지도 아니하였다. ³⁴. 그러나 내가 뽑아 세운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규정을 지킨 것을 생각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이 나라를 조금도 빼앗지 아니하리라. ³⁵. 내가 장차 그의

아들대에 가서 이 나라를 쪼개어 열 지파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³⁶.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리라. 그리하여 나의 종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선택하여 나의 것으로 지정된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항상 내 앞에서 비추게 하리라. ³⁷. 내가 너의 원대로 너를 택하여 통치자로 임명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³⁸. 나의 종 다윗처럼 내가 명하는 바를 모두 지키고 내가 지시하는 길을 가며 내 규정과 명령을 지켜 내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한 다윗의 왕조를 든든히 세워 주었듯이 너의 왕조도 든든히 세워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리라. ³⁹. 이렇게 하여 다윗의 자손의 머리를 숙이게 해 주리라.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두어 두지는 아니하리라.’ ” ⁴⁰. 이렇게 되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찾아 죽이려고 하였다. 여로보암은 하는 수 없이 시삭왕이 다스리는 이집트로 망명하였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⁴¹.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나머지 역사는 솔로몬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⁴².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간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⁴³.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 그의 선왕 다윗의 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해설

다윗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 구약성서는 원래 히브리어로 씌어 졌는데, 히브리어의 모든 이름들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 히브리어로 솔로몬은 “평화” 라는 뜻이다. 사울과 다윗의 일생은 온통 전투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중 다윗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언제나 전투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은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미 평화로워서 싸워야 할 만한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밤 솔로몬이 왕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소원하는 바를 말해 보라고 하셨다. 그때 솔로몬은 부나 권력 대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만을 구했다. 주님은 그의 소원 내용에 감탄하셔서 그가 요구하지 않은 부와 권력도 더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소원은 그대로 이뤄졌다. 솔로몬은 위대하고 부유하며 지혜로워서 못 나라의 왕들이나 여왕들이 그의 영예를

보기 위해서 방문했다. 그들은 그에게 풀기 힘든 난제들을 물어 보기 위해 내왕하기도 했다. 그는 이집트의 왕의 딸과 결혼했고, 그 여자를 위한 집과 자신을 위한 궁전도 건축했다. 주님은 그에게 성막대신에 퀘를 안치할 성전을 짓도록 허용해 주셨다. 본문이 주는 교훈들 중의 하나는 솔로몬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솔로몬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 * 그는 더 나은 어떤 것을 알아야 했는가?
- *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취해지는 지파는 몇 개인가?
- * 그렇게 취해진 지파들을 누가 다스리게 되었는가?
- * 주님은 이런 일을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질문 정리

- 1) 다윗과 바세바의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 2)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누구인가?
- 3) 이 왕은 주님께 무엇을 요구했는가?
- 4) 주님은 그 요구에 무엇을 더해 주셨는가?
- 5) 그는 예루살렘에 무엇을 지었는가?
- 6) 그는 어떤 죄를 범했는가?
- 7) 그는 그 외에 어떤 죄를 범했는가?
- 8)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주님의 말씀은 그가 죽기 전에 성취되었는가?
- 10) 솔로몬의 왕국 중 몇 지파를 그의 아들이 다스렸는가?
- 11) 누가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되었는가?
- 12) 여로보암은 누구인가?
- 13) 누가 그에게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는가?

- 14) 그는 어떤 징조를 보여주었는가?
- 15)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 16) 여로보암은 어디로 피신했는가?

질문의 답

- 1) 솔로몬 2) 솔로몬 3) 지혜 4) 부와 명성 5) 성전 6) 많은 외국여자와 결혼했다
- 7) 우상숭배 8) 나라를 잃는다 9) 성취되지 않았다 10) 1 1/2지파 11) 여로보암
- 12) 솔로몬의 신하 13) 아히야 14) 옷을 찢었다 15) 그를 죽이려 했다 16) 이집트

19

엘리사와 나아만

머리말

우선 열왕기상 12장을 읽고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스라엘 왕국의 타락이 두 금송아지를 세운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언급한다.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교 그리고 이스라엘을 끊임 없이 괴롭힌 시리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5장

1.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아훼께서 나아만을 들어 쓰시어 시리아에 승리를 안겨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환자였다. 2. 시리아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한번은 거기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 소녀를 아내의 하녀로 삼았다. 3. 그 어린 하녀가 자기의 주인에게 일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문둥병쯤은 쉽게 고쳐 주실 텐데요.” 4.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입궐해서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이러한 말을 하더라고 아뢰었다. 5. 이 말을 들은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 줄 터이니, 장군은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십 달란트, 금 육천 세겔, 옷 열 벌을 가지고 가서 6.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친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본인은 이제 이 편지를 들려 본인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문둥병을 고쳐 주십시오.” 7. 이스라엘 왕은 이 서신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문둥병을 고쳐 달라고 하니, 이것은 그가 나에게 싸움을 걸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 분명하다. 그대들은 이 점을 분명히 살피시오.” 8.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 주겠습니다.” 9. 그리하여 나아만은 마차를 몰고 엘리사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에 멈추었다. 10. 엘리사는 사람을 내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새살이 나와 깨끗하게 될 것이요.” 11.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면서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문둥병을 고쳐 주려니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12. 다마스쿠스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강과 발바르강이 있다. 여기에서 된다면, 거기에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크게 노하여 발길을 옮겼다. 13.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서며 말하였다. “만일 이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장군께 몸이나 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14.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 준 대로 요르단 강으로 내려가서 일곱 번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그러자 새살이 돌아 그의 몸은 마치 어린 아이 몸처럼 깨끗해졌다. 15.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밖에는 온 세상에 신이 없습니다. 소인이 감사하여 드리는 이 선물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16. 엘리사가

“내가 모시는 야훼께서 살아 계십니다. 결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지만 나아만은 받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도 거절하자, 17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진정 받지 못하시겠으면, 이 한 가지 청만은 들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야훼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귀 두 마리에 실을 만큼 흙을 주십시오. 18. 그러나 한 가지 야훼께 용서를 빌 일이 있습니다. 저는 왕께서 림몬 신전에 예배하러 가실 때에 부축해 드려야 하고 왕께서 림몬 신전에서 예배할 때 같이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만은 야훼께서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19.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걱정 말고 가시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길을 조금 갔는데 20.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 게하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스승께서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바치는 것을 거절하시고 그냥 돌려보내시니 뒤쫓아 가서 무엇이든 줌 받아 오고 말겠다.” 21. 이렇게 생각하고 게하지는 나아만을 쫓아갔다. 나아만은 게하지가 뒤쫓아 오는 것을 보고 마차에서 내려 그를 만나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22. 게하지는 말하였다. “별일 없습니다. 지금 막 에비라임 산악지방에서 예언자 수련생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줄 은 한 달란트와 옷 두벌을 보내 달라고 스승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23. 나아만은 “드리다뿐이겠는가? 한 달란트를 더 드리겠다” 하며 은 두 달란트를 억지로 두 자루에 넣고 옷 두벌을 꺼내어 부하 두 사람에게 들려 게하지 앞에 세워 보냈다. 24. 게하지가 집 있는 언덕에 돌아 와서 짐을 받아 집 안에 넣고 그 사람들을 돌려 보낸 후 25. 들어 가서 스승 앞에 서자, 엘리사가 물었다. “게하지야, 어디를 갔다 왔느냐?” “소인은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26.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마차에서 내려 너를 만나기 위하여 돌아 설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아느냐? 그래, 너는 돈을 받았다. 네가 그 돈으로 정원을 사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를 심고 양과 소를 사고 하인과 하녀를 거느릴 수야 있겠지만, 27. 너와 네 자손은 나아만에게서 옮은 문둥병을 영원히 앓으리라.” 게하지는 문둥병으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어 엘리사를 떠났다.

해설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도록 보내진 두 명의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였다. 그들은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행했으며, 선한 사람은 돕고 악한 자는 처벌했다. 그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졌던 것은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다. 나아만은 친절한 인격자였음에 틀림없다. 그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린 하녀가 그를 돕고자 열심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본문에서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가?
- * 시리아의 군대 사령관은 누구였는가?
- * 그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가?
- * 누가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귀뜸해 주었는가?
- * 나아만을 위해 시리아왕은 무엇을 했는가?
- *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 * 나아만은 엘리사의 충고를 처음에 어떻게 받아 들였는가?
- * 요르단 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은 후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 * 엘리사는 나아만에게서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
- * 치료된 후 나아만은 무엇을 서약했는가?
- * 그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청했는가?
- *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왜 그 일이 발생되었는가?

질문 정리

- 1)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 2) 왜 그는 금송아지를 세웠는가?
- 3) 그 송아지를 세운 곳은 어디인가?
- 4) 주님은 어떤 두 예언자를 이스라엘 왕국으로 보냈는가?
- 5) 본문에서의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가?
- 6) 시리아의 군대 사령관은 누구인가?
- 7) 그는 어떤 병을 갖고 있는가?
- 8) 누가 병이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었는가?

- 9)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 10) 나아만은 처음에 뭐라고 말했는가?
- 11) 그가 엘리사에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2) 그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는가?
- 13) 엘리사의 시종은 무슨 짓을 했는가?
- 14) 그의 벌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움 2)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임
- 3) 베델, 단 4) 엘리야와 엘리사 5) 시리아 6) 나아만 7) 문둥병
- 8) 포로로 잡아온 히브리 소녀 9) 요르단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어라
- 10) 다마스쿠스의 강이 요르단강보다 더 낫다 11) 치료되었다
- 12) “나귀 두 마리에 실을 만큼 흙을 주십시오” 13) 보상을 원했다
- 14) 문둥병자가 됨

20

시드키야와 예레미야

머리말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복한 두 국가의 이름들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끌려가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던 반면 유다왕국의 백성들은 모두 끌려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귀환하기도 했음을 설명한다. 또한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지만 나중에 재건되었음도 설명한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4장, 25:1-12, 예레미야 21장

24장: 1. 여호야킴이 다스리던 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 와서 여호야킴은 그의 신하가 되었다. 삼년이 지나서 그는 반기를 들었다. 2. 야훼께서는 바빌론 침략군과 시리아 침략군과 모압 침략군과 암몬 침략군을 보내어 유다 전국을 짓밟게 하셨다. 야훼께서 당신의 종인 예언자들을 시켜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3. 이런 일이 유다에서 일어난 것은 므나שה가 온갖 못할 짓을 하는 것을 보시고 야훼께서 유다 백성을 내쫓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일 따름이다. 4. 그런데다가 그는 무죄한 피마져 흘려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었으므로 야훼께서는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다. 5. 여호야킴의 나머지 사적과 행적은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6. 그가 선조들과 함께 영면하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7. 이집트왕은 이집트 국경을 흐르는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강에 이르는 땅을 모두 바빌론 왕에게 빼앗기고 다시는 자기 영토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8. 여호야긴은 십 팔 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삼 개월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엘나단의 딸로서 이름은 느후스타라고 하였다. 9. 여호야긴은 아버지가 그러하였듯이 야훼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10. 그 때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쳐올라 와서 포위하였다. 11. 이렇게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을 치러 친히 왔다. 12. 일이 이쯤 되자 유다왕 여호야긴은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과 장군들과 내시들을 거느리고 바빌론 왕에게로 나아가 사로잡혔다. 때는 바빌론 왕 제팔 년이었다. 13. 야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빌론 왕은 야훼의 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를 털어 갖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야훼의 전에 만들어 두었던 온갖 금기물을 다 부수었다. 14. 또한 예루살렘 전 시민과 고관들과 군인 일만명, 그리고 은장이들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 가고 가난한 지방민만 남겨 두었다. 15. 그는 여호야긴도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력층과 함께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16. 그리고 유력자 칠천 명과 은장이, 대장장이 천 명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그들은 모두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이었다. 17. 바빌론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따니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키야로 바꾸도록 하였다. 18.

시드키야는 이십 일 세 때 왕위에 올라 십 일 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로서 이름을 하무달이라고 하였다. 19. 시드키야는 여호야킴이 했던 것같이 야훼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20. 예루살렘과 유다는 야훼의 진로를 사 마침내 그 앞에서 쫓겨 나고 말았다.

25장: 1. 시드키야가 바빌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키야왕 구년 시월 십일,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을 포위하고 사면에 토성을 쌓았다. 2. 이 포위는 시드키야왕 십일 년까지 계속되었다. 3. 그 해, 성에 기근이 흑심하여 식량이 떨어지자 일반 서민들은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사월 구일에 4.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유다 왕은 이를 보자, 바빌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도 그의 전 호위병과 함께 밤을 도와 성을 도주하였다. 그들은 왕의 정원 근처에 있는 “두 성벽 사이” 라는 성문으로 빠져 나가 나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5. 바빌론 군대가 왕을 추적하여 예리고의 들뜰에서 그를 사로잡자 왕의 군대는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6. 바빌론 군대가 왕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데리고 가자 바빌론 왕이 그를 심문하였다. 7. 그는 시드키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데서 살해하고 시드키야의 눈을 뽑은 다음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8.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제십 구년 오월 칠일, 바빌론 왕의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들어 와 9. 야훼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성 안 건물을 모두 불태웠다. 큰 집은 모두 불탔다. 10. 친위대장을 따르는 바빌론 군인들은 예루살렘을 둘러 싸고 있는 성벽을 죄다 허물어 버렸다. 11.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성에 남은 사람들과 바빌론 왕에게 항복해 온 자, 그리고 기타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 갔다. 12. 그는 백성들 중 가장 비천한 층의 사람들만 남겨 두어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예레미야 21장: 1. 시드키야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니아 사제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예레미야에게 내린 야훼의 말씀이다. 그들은 이렇게 청했던 것이다. 2.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싸움을 걸어 왔소. 기적을 베푸시어 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야훼께 빌어 주시오.” 3.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야훼께 받은 말씀을 일러 주었다. “당신들은 시드키야왕께 가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4.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바빌론 왕의 군대와 싸우려 한다마는, 나 이제 너희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무기를 이

성읍 한 가운데다 모아 놓으리라. 5. 너무나도 노엽고 화가 나서 내가 있는 힘을 다 기울여 너희를 치리니, 6. 이 도읍에 사는 사람과 짐승이 모두 심한 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7. 똑똑히 말하여 둔다. 이렇게 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죽고도 남은 유다 왕 시드키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리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원수들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리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원수들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면, 그들은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8. 당신들은 또 이 백성에게 야훼의 말씀이라 하며 이 말을 전하시오. ‘내가 살 길과 죽을 길을 너희 앞에 내어 놓을 터이니 너희는 그중 하나를 택하여라. 9. 이 성 안에 버티고 있다가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가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빌론 군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 목숨 하나 건지는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10. 내가 똑똑히 말해 둔다. 나는 이 도읍을 잘 돌보아 줄 생각이 없어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이 도읍은 바빌론 왕의 수중에 들어가서 불에 타 없어지고 말리라.’ ” 11. 유다 왕실에게 말한다.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12. “다윗 왕실에게 나 야훼가 말한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라.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 주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패썹한 소행을 보고 내가 화가 나서 너희를 불 태우리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하리라. 13. 계곡을 굽어 보는 예루살렘아, 별판에 우뚝 솟은 바위야! 내 말을 들어라. ‘누가 감히 우리에게 달려드느냐? 이 깊은 곳으로 누가 감히 쳐들어 오느냐?’ 하고 말한다마는, 나는 이제 너희를 치리라. 14 나는 너희의 소행을 따라 벌하리라. 똑똑히 말해 둔다. 나는 수풀궁에 불을 질러 돌레를 온통 태워 버리리라.”

해설

위대한 예언자인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국을 경고하기 위해 보내졌다. 예언자 엘리사는 시리아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요르단 강물에서 일곱 번 몸을 씻게 함으로써 치료해주었다.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청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예배하기 위해 곧장 달려갔고 각종 사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적들에 대항해서 그들을 더 이상 도우실 수 없었다. 이리하여 적들은 점차 세력이 강해져 마침내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 끌고 갔고 그들 대신 외국인들을 이주시켜 놓았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유다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중 어느 왕국이 더 오래 존속되었는가?
- *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에 이르도록 한 죄는 무엇인가?
- *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인가?
- * 어떤 나라가 유다를 장악하게 되었는가?
- * 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켜본 예언자는 누구인가?
- * 그 땅에 남게 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 * 예루살렘과 성전은 어떻게 되었는가?

질문 정리

- 1)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했는가?
- 2)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3) 이 적에 대항해서 유다왕국은 왜 오래 버틸 수 있었는가?
- 4) 유다의 선한 왕들은 무엇을 추진했었는가?
- 5) 어떤 국가가 유다를 정복했는가?
- 6) 유다의 어떤 왕 시절에 바빌론 사절단이 내왕했었는가?
- 7) 어떤 예언자가 이 사절단의 결과를 예언했는가?
- 8)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인가?
- 8) 이 마지막 왕은 어떤 예언자에게 조언을 구했는가?
- 10) 예레미야는 이 왕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1) 시드키야는 어떻게 되었는가?
- 12) 어떤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는가?
- 13) 그 땅에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질문의 답

- 1) 아시리아 2) 영원히 끌려갔다 3) 다윗의 계보에 충실했기 때문 4) 개혁 정치
- 5) 바빌론 6) 히즈키야 7) 이사야 8) 시드키야 9) 예레미야
- 10) 예루살렘이 파괴되다 11) 눈이 뽑혀 바빌론에 끌려감
- 12) 왕자와 용사 그리고 대장장이 등의 유력자들 13) 가난한 자

21

말씀에 관한 시편

머리말

제 2반은 시편을 위한 배경을 충분히 담고 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본문을 살펴본다. 이 시편에 관한 두 가지 요점은 해설 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 요점을 주로 공부한다.

성 서 본 문: 시편 119편

1.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 야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2. 복되어라, 맺은 언약 지키고 마음을 쏟아 그를 찾는 사람, 3. 나쁜 일 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만 따라 가는 사람. 4. 당신은 계명들을 내리시고 온전히 그대로 살라 하셨으니 5. 당신 뜻을 어기지 않고 굳굳하게 살도록 해 주소서. 6. 그 명령을 날날이 명심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이다. 7. 당신의 바른 결정을 내가 배워서 진심으로 감사하오리이다. 8. 당신 뜻대로 힘써 살려 하오니, 이 몸을 아주 버리지 마소서. 9.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이까?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오리이다.

10. 내가 마음을 다 쏟아 당신을 찾사오니 당신 명령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11. 당신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주신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였사옵니다. 12. 야훼여, 찬송을 받으실 분이여 당신 뜻을 가르쳐 주소서. 13. 친히 내리신 모든 법규를 이 입술로 모두 뒤풀이했사옵니다. 14. 어떤 부귀를 누리기보다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더 기뻐사옵니다. 15. 당신의 계명을 되새기며 일러 주신 길을 똑바로 걸오리이다. 16. 당신 뜻을 따름이 나의 낙이오니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7. 당신 종을 너그러이 보시고 살려 주소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 나의 눈을 열어 주시어 당신 법의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19. 땅 위에서 나그네인 이몸에게 당신의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 20. 지나가나 당신의 결정을 갈망하다가 내 영혼이 지쳤사옵니다. 21. 당신의 계명을 어기는 거만한 자들 그 저주받을 자들을 꾸짖으소서. 22. 내가 당신의 언약을 지켰사오니 이 모욕과 멸시를 벗겨 주소서. 23. 수령들이 모여 앉아 나를 모함하오나 이 종은 당신의 법규를 명상합니다. 24. 당신의 언약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충고자이옵니다. 25. 내 영혼이 먼지 속에 처박혔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26. 내가 살아 온 길 보이매 응답하셨사오니 당신 뜻을 가르쳐 주소서. 27. 당신 계명 따르는 길, 깨우쳐 주소서. 주의 이루신 기적들을 되새기리이다. 28. 나의 영혼이 피로와 잠 못 이루오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29. 다시는 거짓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법의 은총을 나에게 베푸소서. 30. 진리의 길을 나는 택하였사오니 당신의 결정을 내 앞에 내리소서. 31. 야훼여, 당신 언약에 내 마음을 붙이오니,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하소서. 32. 당신 계명 내 마음 흡족하오니 그 길을 따라 내달리리이다. 33. 야훼여,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치소서. 그대로 지키고 상급을 받으려 하옵니다.

34. 당신 법을 깨우쳐 주시고 그 법 따라 살게 하소서. 마음을 다 쏟아 지키리이다.

35. 나의 기쁨은 당신의 계명에 있사오니 그 길 따라 곧장 살게 하소서. 36. 내 마음을 잇속에 기울이지 않고 당신의 언약으로 기울게 하소서. 37. 헛된 것에서 나의 눈을 돌리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소서. 38.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당신의 종에게 지켜 주소서. 39. 당신의 결정은 은혜로우시니, 그 몸서리치는 모욕에서 건져 주소서. 40. 당신의 계명을 나는 갈망하였사오니, 정의를 세우시어

이 몸을 살려 주소서. 41. 야훼여, 당신 사랑을 나에게 베풀시고, 약속하신 당신 구원을 내려 주소서. 42. 당신 말씀 굳이 믿고, 나를 욕하는 자들에게 응수하리이다. 43. 당신의 결정에 내 희망을 두오니 진리의 말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44. 당신 법을 언제나 길이길이 끝까지 지키리이다. 45. 당신의 계명을 애써 지켰사오니 내 닫는 발걸음 자유롭게 하소서. 46. 임금들 앞에서 당신의 언약을 선포할 때 부끄러워 하지 않으리이다. 47. 당신의 계명은 나의 기쁨, 그것을 나는 사랑하옵니다. 48. 당신 계명 내가 사랑하옵기에 쌍수 들어 반기고 당신 뜻을 언제나 나는 명상합니다. 49.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 잊지 마소서. 나의 희망은 그 말씀에 있사옵니다. 50. 비참할 때, 내가 받는 위로는 내 생명 살리시는 당신의 약속.

51. 교만한 자들이 나를 마구 희롱하여도 나는 당신의 법에 버티고 굴치 않았사옵니다. 52. 그 옛날에 내리신 당신의 결정, 그것을 생각하면 야훼여, 나는 위로가 되옵니다. 53. 당신 법을 버리는 악인들 앞에서 울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54. 나그네살 이하는 이 내 집에서 당신 뜻을 노래로 따르리이다. 55. 야훼여, 밤에도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고 당신의 법을 지키리이다. 56.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57. 야훼여 나의 분깃은, 당신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고 나는 말하였습니다. 58. 당신 얼굴 웃음 띠도록 내가 몹시도 힘쓰오니 약속하신 대로 이 몸을 붙잡혀 여기소서. 59. 지금까지 걸어 온 내 길을 반성하고 당신 언약의 길로 되돌아옵니다. 60. 빨리빨리 머뭇거리지 않고 당신 계명을 지키리이다. 61. 악인들의 올라미가 내 주위에 두루 있어도

나는 당신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62. 공정하신 그 판결들, 한밤중에 일어나 감사기도 드립니다. 63. 나는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당신 법을 지키는 자들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64. 야훼여, 당신의 사랑이 땅에 넘치옵니다.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알려 주소서. 65. 야훼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선대하였 사옵니다. 66. 내가 당신께서 명령하신 것을 굳이 믿사오니 옳은 판단과 지식을 가르쳐 주소서.

67. 죄 받아 고생하기까지는 빛나갔사오나 이제는 당신 약속 그대로 지키리이다. 68.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이여, 당신 뜻을 나에게 알려 주소서 69. 교만한 자, 거짓으로 나를 꾀어도 마음을 다 쏟아 당신 계명을 지키리이다. 70. 그들은 마음에 기쁨기

끼었으나 나에게 미각은 당신의 법이옵니다. 71. 고생도 나에게겐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 줍니다. 72. 당신께서 가르치신 법이야말로 천만 금은보다 유익합니다.
 73. 손수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깨우침을 주소서. 당신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쳐 주소
 서. 74.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둔 이 몸을 보고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은 기뻐하리이다.
 75. 야훼여, 당신의 판결은 옳사옵니다. 나를 괴롭히심은 당신의 성실하심 때문이옵니
 다. 76. 일찍이 당신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랑을 내리시어 위로하소서. 77. 당신의
 법이 나의 기쁨이오니 인자를 베푸시어 살려 주소서. 78. 거짓말로 이 몸을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일랑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이 몸은 주님의 계명을 되새기리이다. 79.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나에게 오게 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깨우친 이들 나에게 오게
 하소서. 80. 이 마음 당신의 뜻을 따라 깨끗이 살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81. 이 몸이 당신 말씀에 희망을 걸고 당신의 구원을 향하여 끝까지 가오리이다.
 82. 이 몸이 당신 약속을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언제 나에게 위안을 주시렵니까?
 83. 나 비록 연기 속의 가죽부대처럼 되었사오나 나는 당신의 뜻을 잊지 않으리이다.
 84. 당신의 종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 몸을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나 심판하시렵니
 까? 85. 당신의 법을 반대하는 교만한 자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팠사옵니다. 86. 당신의
 법령은 조목조목 참되오니, 거짓이 나를 핍박할 때 나를 도와주소서. 87. 이 땅에서
 저들이 이 몸을 거의 죽여 놓았어도 나는 당신의 계명들을 버리지 않으리이다. 88.
 당신의 사랑으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친히 일러 주신 언약을 지키리이다. 89. 야훼여, 당신 말씀 영원하시고 변함없이
 하늘에 있사옵니다. 90. 당신의 진실하심 만세에 이르오며, 손수 만드신 저 땅은
 흔들림이 없사옵니다. 91. 모든 것이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결정 따라 오늘까지
 변함없이 있사옵니다. 92. 당신의 법이 나의 낙이 아니었다면 이 몸은 고통 속에서
 죽었으리이다. 93. 계명들을 주시어 살려 주셨으니 죽어도 그것을 아니 잊으리이다.
 94. 이 몸이 당신의 것이오니 구원하소서. 애써 당신의 계명을 찾으리이다. 95. 악인들
 이 이 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사오나 나는 당신의 언약을 명심하리이다. 96. 아무리
 완전한 것도 끝이 있는 줄 나 아오나, 당신의 계명들은 한 없이 넓사옵니다. 97.
 당신의 법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자나깨나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98. 계명을
 주심으로 당신은 내 것이 되어, 원수들 보다 더 지혜롭게 나를 만드십니다. 99. 당신의

언약을 되새기어서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더 현명해지리이다. 100. 당신의 법령들을
 내가 지키어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와지리이다. 101.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온갖 나쁜 길에서 발길을 돌리리이다. 102. 당신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오니 당신의
 결정을 거역하지 않으리이다. 103. 당신의 약속은 말부터가 혀에 달아 내 입에는
 꿀보다도 더 답니다. 104. 당신의 법령들을 깨우쳐 슬기를 얻었으니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합니다. 105.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106. 나 한번 맹세하였으니 당신의 바른 결정을 지키리이다. 107. 야훼여, 나의 받은
 고난이 심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08. 야훼여, 내 입이 드리는
 이 정성을 받으시고, 당신의 결정을 가르쳐 주소서. 109. 나의 생명 항상 내 손안에
 있으니 당신의 법을 잊지 않으리이다. 110.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올라가미를 쳐 놓았으니,
 나는 당신의 법령들을 어기지 않으리이다. 111. 당신의 언약은 영원히 나의 유산이며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112. 당신 뜻을 따르기로 내 마음 정하였사오니 그것이 영원한
 보상입니다. 113. 나는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오며 당신의 법을 사랑합니다. 114.
 당신은 나의 은신처, 나의 방패시오니 나는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두읍니다. 115.
 악인들아, 나에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116.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소서. 나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지 마옵소서.
 117. 내가 기뻔 지주 되어 주소서. 내가 살아나리이다. 나는 언제나 당신 뜻을 살피리이
 다. 118. 당신 뜻을 어기고 벗어나는 자, 모두 당신께서 엮어 버리시니 그들의 계산은
 허황합니다. 119. 세상의 악인들을 모두 찌꺼기처럼 치우시니 나는 당신의 언약을
 사랑하옵니다. 120. 나는 당신이 무서워 떨리웁고, 당신의 판결이 이 몸은 두렵기만
 합니다. 121. 나는 당신의 결정과 정의를 따랐사오니, 억누르는 자들에게 넘겨주지
 마소서. 122. 당신의 종을 편들어 잘 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소서. 123. 당신의 구원을 눈 빠지게 기다리오며 정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124. 당신 사랑으로 이 종을 대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125.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오니 나를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언약을 알아차리리이다. 126. 야훼
 여, 당신의 법을 사람들이 짓밟았사오니 나서실 때가 되었사옵니다. 127. 그리하여
 나는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당신의 계명을 더 좋아하리이다. 128. 또, 당신의 법령을
 어김없이 따르고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하리이다. 129. 당신의 언약이 너무나도

놀라와 이 몸은 성심껏 그것을 지키리이다. 130. 당신 말씀 밝히시어 빛을 내시니,
 우둔한 자들이 손쉽게 깨닫습니다. 131. 당신의 계명을 탐한 나머지 입을 크게 벌리고
 혈떡입니다. 132.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던 대로 나에게도 얼굴을 돌이키
 사 붙잡히 여기소서. 133. 당신 약속에 힘을 얻어 곳곳이 견게 하시고 악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134. 사람들의 압박에서 이 몸 빼어 주소서. 당신의 법령대로
 살리이다. 135. 당신의 종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시고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136. 사람들이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릅니다. 137. 야훼
 여, 당신은 공정하시며 당신의 결정은 언제나 옳사옵니다. 138. 당신의 언약은 공정하
 여 조금도 틀림이 없사옵니다. 139. 나의 원수들이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나의 정열이 이 몸을 사릅니다. 140.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당신의 약속, 나에게
 그 약속이 소중합니다. 141. 나 비록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당신의 법령들을 잊지
 않으리이다. 142. 당신의 정의는 영원한 정의, 당신의 법은 언제나 진실됩니다. 143.
 우민과 억압에 짓눌려도 당신의 계명이 나를 기쁘게 하옵니다. 144. 당신의 언약은
 언제나 공정하시니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을 살게 하소서. 145. 야훼여, 목청껏
 당신을 부르오니 대답하소서. 당신의 뜻을 따르리이다. 146. 당신을 부르오니 구해
 주소서. 당신의 언약을 내가 지키리이다. 147.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이렇게 부르짖사옵니다. 148. 뜬눈으로 밤을 지켜보며 당신의 약속을
 묵상합니다. 149. 야훼여,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판결로써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50.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당신의 법을 버리고 음흉한 생각으로
 나에게 가까이 옵니다. 151.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에게 가까이 계시으며 당신의
 계명은 언제나 진실됩니다. 152. 영원토록 맺으신 당신의 언약, 나는 옛부터 그것을
 익히 알았습니다. 153. 당신의 법을 내가 잊지 않으리니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건져 주소서. 154. 고발당한 이 몸을 변호하시고 구해 주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55.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자들, 그 악인들에게 구원이란
 당치도 않사옵니다. 156. 야훼여, 당신의 인자하심 한없이 크시오니 공정하신 당신의
 판결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57.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억압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몸은 당신의 언약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158.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 배신들을 보고 내 마음 심히 불쾌하옵니다. 159. 보소서, 야훼여, 나는 당신의

법령들을 좋아합니다. 당신 사랑으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60. 당신의 말씀은 한 마디로 진실, 그것이오며 당신의 공정한 판결은 영원하십니다. 161. 권세자들이 나를 까닭없이 박해하오나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162. 전리품을 얻고서 좋아하듯이 당신의 말씀 듣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163. 거짓은 내가 싫어하는 것, 나는 당신 법을 좋아하고 실행합니다. 164. 당신의 옳은 판결, 찬송하오니 하루에도 일곱 번씩 찬양합니다. 165. 당신의 법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만사가 순조롭고 무엇 하나 꺼릴 것이 없사옵니다. 166. 야훼여, 당신의 계명을 내가 따랐사오니,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167. 당신의 언약을 온전히 사랑하여 내 영혼이 그것을 지키리이다. 168. 나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시오니 당신 법령, 당신 언약을 지키리이다. 169. 야훼여, 이 울부짖는 소리를 가까이 들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소서. 170. 당신 어전에 나의 기도소리 이르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건져 주소서. 171. 당신 뜻을 당신 친히 가르쳐 주시오니 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172. 당신의 법령대로 살기로 결심한 이몸, 손을 뻗으시어 도와 주소서. 173. 야훼여, 당신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며 당신의 법을 기쁨으로 삼으리이다. 174. 이 몸이 살아서 당신을 찬양하리니 바른 판단 내리시어 도와 주소서. 175. 이 몸은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 어서 오시어 이 종을 찾아주소서. 176. 당신의 계명을 소홀히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사옵니다.

해설

인간은 아주 전 옛날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때 노래 부르고 싶어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자신의 슬픈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기도 한다.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안전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에 대한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상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즉 그들로 하여금 경이로운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부른 노래일 것이다. 예언자이며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은 소고를 쳤고, 그녀를 따른 여인들도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다. 구약 성서에 기록된 유대인의 역사를 볼 때 소고는 히브리 여인들이 아낀 악기중의 하나였다.

성경 중에는 노래로만 구성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시편서이다. 그리고 많은 시편들은 다윗 왕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다윗은 노련한 하프 연주자이기도 해서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 이라고도 불렸다.

시편서는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 불렀던 노래가 수집된 책이다. 그 책에는 총 150편의 노래가 실려 있다. 본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노래에 해당된다. 우리가 이 시편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그중 하나는 그것이 알파벳 순서를 따른 시편이라는 것이다. 원어인 히브리어로 이 시편을 읽으면 22개의 각 문단이 알파벳의 각기 다른 글자로 시작되고 문단속의 각 절은 똑같은 글자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편은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로 되어있는 것이다. 둘째로 이 시편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이 시편의 각 구절에 주님의 진리를 언급하는 단어들(예)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 명령, 길, 판단, 계명 그리고 언약 등이 그 예이다. 본문의 9-16절을 읽으면서 그 단어들을 각자 찾아보기 바란다.

질문 정리

- 1) 시편은 무엇인가?
- 2) 유대인들은 시편책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 3) 누구를 통해 많은 시편이 기록되었는가?
- 4) 다윗은 시편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5) 주님은 시편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6) 가장 긴 시편은 어느 시편인가?
- 7) 이 시편의 구조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 8) 이 시편의 일반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 9)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인상 깊은 원인은 무엇인가?
- 10) 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가?
- 11) 왜 우리는 말씀의 교훈에 순종해야 하는가?

- 12) 일부 시편들이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까닭은 무엇인가?
- 13) 말씀의 권능은 말씀의 어떤 의미에 기초하고 있는가?

질문의 답

- 1) 노래 2) 찬송가 3) 다윗 4) 하느님이 주신 말씀이다
- 5) 주님께 관해 예언되어 있다 6) 119편 7) 알파벳 8) 말씀
- 9) 매 구절마다에서 10)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 11)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 12) 주제에 대한 완벽한 요약에 담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함
- 13) 글자 또는 글자적 의미

22

벨사살왕의 잔치

머리말

먼저 대 예언서의 일반적인 면을 살펴본 후 본문의 세부사항을 공부한다.

성 서 본 문: 다니엘서 제 5장

1. 벨사살왕이 잔치를 베풀고 만조백관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2. 벨사살은 거나하게 되자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 은잔을 내 오라고 하였다. 왕은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것이다. 3.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이 나오자 왕은 그

잔으로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4. 이렇게 술을 마시며 금은동
 철이나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데 5.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등잔대 맞은 쪽 왕궁 벽에 붙어 있는 판에 글자를 썼다. 왕은 글 쓰는 손을 보고
 6. 새파랗게 놀랐다. 그는 머리가 아뜩해지며 허벅지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떨려
 7.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장이들을 불러들이라고 고향쳤다. 재사들이 대령하자
 왕이 말했다.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어 주는 사람은 자주색 도포를 입혀 주고 금목걸이
 를 걸어 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 주리라.” 8. 그러나 불러
 나온 왕실 재사들 중 아무도 그 글을 읽고 뜻을 풀어내는 사람이 없었다. 9. 벨사살왕의
 얼굴빛이 달라지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고관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10. 그 때 왕비가
 고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연회장으로 올라 가 아뢰었다. “임금님, 만수무강
 을 빕니다. 그렇게 안색이 달라지도록 당황하실 것은 없습니다. 11. 임금님의 나라에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롭기
 가 하느님 같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선왕 느부갓네살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술객들
 과 점성가들과 점장이들의 수령으로 임명하신 일까지 있습니다. 12. 임금님께서 벨트
 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신 다니엘이 그 사람입니다. 그는 신통력이 놀라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꿈이나 수수께끼나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잘 풀어내는 재주가 있습니
 다. 다니엘을 부르시면 이 글을 풀어 드릴 것입니다.” 13. 그래서 다니엘이 불러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유다에서 포로로 끌여 온 다니엘이란
 사람인가? 14. 그대는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가 대단하
 다는 말을 들었다. 15. 나는 재사들과 마술사들을 데려다가 저기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 뜻을 풀지 못했다. 16. 내가 들으니, 그대는 무엇이나
 다 잘 알아 내고 어떤 수수께끼든지 풀 수 있다던데 이제 그대는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여 보아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자주색 도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 주며
 그대를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 주리라.”
 1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주시겠다는 선물을 거두시고, 그 사례는
 다른 사람에게나 내리십시오. 그래도 저는 임금님께 저 글을 읽어 드리고 뜻을 풀이하
 여 드리겠습니다. 18. 임금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선왕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강대하게 하셔서 영화와 영광을 떨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19. 하느님께서 그렇게

선왕을 위대하게 해 주셨으므로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이 모두 선왕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선왕께서는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올려 앉히기도 하고 내려 앉히기도 하셨습니다. 20.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거만을 떨며 자기 생각만 내세우시다가 그만 옥좌에서 쫓겨 나 영화를 빼앗기고 21. 세상에서 쫓겨 나 그 생각이 짐승과 같아져서 들나귀하고 어울려 지내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몸을 적시며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22. 그분의 아들이신 임금님께서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도 겸손해 지시기는 커녕 23. 오히려 하늘의 대주재를 거역하시고 그분의 집에서 쓰던 잔들을 이 자리에 내어다가 대신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금은동철이나 보석으로 만든 신상들,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손안에 쥐고 계시는 하느님, 임금님의 일거일동을 지켜 보시는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으셨습니다. 24.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손가락을 내 보내시어 저 글자들을 쓰게 하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25. 저기 쓴 글자들은 ‘므네 므네 드켈’ 그 다음은 ‘브라신’ 입니다. 26. 그 뜻은 이렇습니다. ‘므네’ 는 ‘하느님께서 왕의 나라 햇수를 세어 보시고 마감하셨다’ 는 뜻입니다. 27. ‘드켈’ 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 는 뜻입니다. 28. ‘브라신’ 은 ‘왕의 나라를 메대와 페르샤에게 갈라 주신다.’ 는 뜻입니다. 29.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도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 주도록 영을 내리고, 다니엘이 온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사람임을 공포하였다. 30. 바빌론 왕 벨사살은 그 날 밤으로 살해되었고,

6장: 1. 나라는 메대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 때 다리우스는 육십 이세였다.

해설

예언자란 주님을 대변하는 자들을 말한다. 앞서 우리는 사무엘, 나단,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예레미야 등 많은 예언자들에 관하여 공부했다. 주님은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잘못을 행할 때마다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질책하고 경고하도록 해 주셨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행위를 선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우리가 진실로 행복한 길로 가도록 원하시기 때문이다.

나단과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일부 예언자들은 주님의 말씀만을 전했을 따름이다. 반면에 또 다른 일부 예언자들은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받아쓰도록 주님께 의해 명령되기도 했다. 이는 그들의 메시지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과 예언서를 정리해 보자.

* 구약성서의 끝부분에 있는 열여섯 권의 책들을 총칭하여 무엇이 라고 부르는가?

- * 예레미야 애가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우리는 4권의 긴 책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 우리는 12명의 예언자가 기록한 적은 분량의 책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 네 권의 대 예언서의 책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 이사야는 유다왕국의 어느 왕 때에 예언했는가?
- *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에 살았는가?
- *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느 나라에서 예언했는가?
- * 바빌론의 통치자가 된 예언자는 누구인가?
- * 본문에서는 누가 바빌론의 왕인가?
- * 그는 무슨 잘못을 행했는가?
- * 그로 하여금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인가?
- * 그는 먼저 누구에게 기록된 것의 의미하는 바를 물어보았는가?
- * 왜 다니엘이 불러 졌는가?
- * 다니엘은 기록된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 * 그의 예언은 어떻게 되었는가?
- * 왜 주님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예언자를 보내시지 않는가?

질문 정리

- 1) 예언자란 무엇인가?
- 2) 왜 주님은 예언자를 유다와 이스라엘에 보내셨는가?
- 3) 기억나는 예언자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5) 네 명의 대 예언자는 누구인가?
- 6) 이사야는 언제 어디서 살았는가?
- 7) 예레미야는 언제 어디서 살았는가?
- 8) 예레미야는 어디서 죽었는가?
- 9) 애가서는 누가 썼는가?
- 10) 애가서는 어디서 쓰여 졌는가?
- 11) 예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서 예언했는가?
- 12) 예제키엘의 직책은 무엇이었는가?
- 13) 예제키엘은 환상 속에서 가끔 어디로 데려가졌는가?
- 14) 주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 15) 주님은 어떤 이유로 다니엘에게 능력들을 주실 수 있으셨는가?
- 16) 다니엘이 바빌론에 잡혀왔을 때 누가 그곳의 왕이였는가?
- 17) 다니엘은 어떤 일로 인해 왕국의 통치자 자리에 올랐는가?
- 18) 다니엘과 더불어 연상되는 성경상의 인물은 누구인가?
- 19)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는 누구인가?
- 20) 그는 어떤 큰 죄를 범했는가?
- 21) 무엇이 그를 겁나도록 했는가?
- 22) 벽에 써진 글은 무엇인가?
- 23) 다니엘은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는가?
- 24) 본문의 다니엘의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주님을 대변하는 자 2) 견책, 경고 3) 나단, 엘리야, 엘리사 등등
- 4) 대 예언서는 길고, 소 예언서는 짧다 5)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 6) 유다왕국의 히즈키야 시대 7) 유다왕국 말기,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
- 8) 이집트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9) 예레미야 10) 이집트
- 11) 포로중에, 바빌론 12) 성직자 13) 예루살렘 14) 꿈을 해석하는 능력
- 15) 그가 주님께 신실했기 때문 16) 느부갓네살 17) 꿈을 해석했다 18) 요셉 19) 벨사살
- 20) 성전의 집기들을 모독했다 21) 벽에 써진 글 22) 므네, 므네, 드켈, 브라신
- 23) 세었다, 달았다, 나누었다 24) 그날 밤에

23

사자 굴에서의 다니엘

머리말

먼저 유다왕국이 정복당하는 역사적 시점까지를 간략히 언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1-5장까지를 재고해 본다.

성서본문: 다니엘 6장

1. 나라는 메대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 때 다리우스는 욕심이 세었다.
2. 다리우스는 지방장관들 위에 정승을 세 사람 임명하여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3. 그 지방장관들에게서 국정 보고를 받으며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보살피게 하였다. 다니엘은 이 정승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4.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 어느 정승이나 지방장관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5.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은 다니엘이 정사에 무슨 실수라도 하지

않는가 눈을 밝히고 보았지만 그에게서는 트집잡을만한 허물은 하나도 찾아 내지 못하였다. 다니엘은 충직한 사람이었으므로 아무런 허물도 실수도 없었던 것이다.

6.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는 트집 잡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그의 종교를 걸어 트집을 잡자고 의논하였다. 7.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은 왕에게 몰려 와 진언하였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8. 임금님의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앞으로 삼십 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드리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는 금령을 정하시고 9. 그 금령에 서명하시어 수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메대와 페르샤의 법은 수정 못하는 법입니다.” 10. 다리우스왕은 그 금령 문서에 서명하였다. 11. 왕이 그 금령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올라가 전처럼 자기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찬양을 올렸다. 그는 예루살렘 쪽으로 창이 나 있는 다락방에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렸다. 12.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13. 왕 앞에 나아가 왕이 내린 금령을 들어 이 일을 일러 바쳤다. “앞으로 삼십 일 동안 임금님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는 금령에 임금님께서 친히 서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메대와 페르샤의 법은 수정할 수 없으니 그 법 또한 움직일 수 없소” 하고 왕이 대답하자 14.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하여 말하였다. “유다 포로 출신인 다니엘은 임금을 업신여기고 임금님께서 서명하신 금령을 무시한 채 하루 세 차례씩이나 제멋대로 기도를 올립니다.” 15.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걱정되었으나 다니엘을 살려 내기로 결심하고 그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다. 16. 그러나 그들은 왕에게 몰려 와 주장을 펴는 것이었다.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령이나 법령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메대와 페르샤의 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17. 그리하여 왕은 영을 내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우리에게 집어넣게 하고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굶하지 않고 섬겨 온 신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18. 왕과 대신들은 사자 우리의 문을 막은 돌에 봉인을 하여 아무도 다니엘을 건져 내지 못하게 하였다. 19. 왕은 궁으로 돌아 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후궁의 수청도 물리친 채 뜯눈으로 밤을 새웠다. 20. 날이 새자마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자 우리로 달려갔다. 21. 그는 우리에게 다가 서서 목멘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다. “살아 계시는 신을 섬기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겨온 신이 과연 너를 사자들에게서 살려 내 주었느냐?” ²²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²³ 소인이 섬겨 온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소인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은 하느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을뿐더러 임금님께도 잘못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²⁴ 왕은 다니엘이 살아 있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그를 끌어 올리라고 명하였다.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 올리고 보니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하느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²⁵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처자와 함께 끌어 다가 사자 우리에 처넣게 하였다. 사자들은 그들이 바닥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달려들어 뼈까지 씹어 삼켰다. ²⁶ 다리우스왕은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한 만민에게 영을 내렸다. ²⁷ “너희에게 행운이 있기를 빌며 ²⁷ 내가 이제 영을 내린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사는 자들은 모두 삼가 다니엘의 하느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여야 한다. 그분은 살아 계시는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이시니,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며 그 주권은 다할 날이 없으리라. ²⁸ 사람을 살리고 구하여 주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살려 내셨다.” ²⁹ 이리하여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왕위에 있을 때와 페르샤 왕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그의 이름을 떨쳤다.

해설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정복했을 당시 유다왕국이 있는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보물들을 갈취해 갔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중에서 자신의 왕궁에서 훈련시켜 사용하도록 뛰어난 젊은 왕자들만 데리고 갔다. 다니엘은 그 왕자들 중에 속해 있었다.

청소년들은 흔히 친구들에게 설득 당하여 친구들과 비슷한 행위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나쁜 인격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용감하고 정직했으며, 과거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주님에 대한 예배를 바빌론에서도 그대로 실천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지혜와

꿈을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이다. 또한 주님은 그로 하여금 바빌론 왕에게 경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그에게 내리기도 하셨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로 인해 그는 바빌론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다. 과거의 요셉 역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바빌론의 장관들은 어떤 법을 승인 하도록 다리우스를 설득했는가?
- *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 왕은 자기의 걱정근심을 어떻게 보였는가?
- * 다니엘은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 다리우스는 다니엘을 포함한 장관들을 어떻게 처형했는가?
- *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질문 정리

- 1) 다니엘은 누구인가?
- 2) 왜 그는 바빌론에 있게 되었는가?
- 3)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위대해지도록 했는가?
- 4) 어떤 국가가 바빌론을 정복했는가?
- 5) 이 나라 왕은 누구인가?
- 6) 그는 다니엘에게 어떤 직책을 내렸는가?
- 7) 누가 다니엘을 음모했는가?
- 8) 다리우스는 어떤 법령에 서명하도록 설득되었는가?
- 9) 다니엘은 무엇을 계속했는가?
- 10) 왕은 다니엘을 잃기를 원했는가?
- 11) 왜 그는 서명했던 법령을 철회하지 못했는가?
- 12) 다니엘은 얼마 동안 사자굴에 갇혀 있었는가?
- 13) 누가 그를 구원했는가?

- 14) 다니엘을 음모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5) 다리우스는 어떤 새 법을 공포했는가?

질문의 답

- 1) 예언자가 된 젊은 왕자 2) 바빌론 식의 교육을 시키려고
 3) 하느님에 신실했던 것 4) 페르시아 5) 다리우스 6) 정승
 7) 다른 정치 지도자 8) 30일간 기도하지 말라 9) 평상시와 같이 기도함
 10) 아니다 11) 바꿀 수 없기 때문 12) 밤새도록
 13) 천사 14) 사자굴에 던져졌다
 15) 모든 이는 다니엘의 하느님을 예배하라

24

성전 재건에 관한 예언

머리말

에즈라서 1장, 3장, 4장, 5장 그리고 6장을 읽은 후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 둔다.

성 서 본 문: 즈가리아 제 4장

1. 나와 말을 하던 그 천사가 돌아 와서 나를 흔들어 깨웠다. 잠이 덜 깬 사람처럼 얼떨떨해 하는 나에게, 2. 그가 물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보인다고 대답하였다. 그 등잔대 꼭대기엔 그릇이 하나 있고,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십지 주둥이가 하나씩 뚫린 등잔 일곱 개가 붙어 있었다. 3. 그리고,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서 있었다. 4. 나는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나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5. 나와 말하던 그 천사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 하고 되물었다. 내가 모르겠다고 하자, 6. 그 천사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6. 이것은 야훼께서 즈루빠벨이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시다.

“산아, 네 아무리 크다 하여도 즈루빠벨 앞에서는 평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산에서 머릿돌을 떼어 올 때, 사람들은 ‘멋지다, 멋지다’ 하며 환성을 올리리라.” 8.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9. “즈루빠벨이 제 손으로 이 집에 주춧돌을 놓았으니, 그가 손수 그 일을 이루리라. 그제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가 만군의 야훼이심을 너희가 알리라. 10. 일이 자잘하게 시작되어 사람들이 빈정거렸지만, 즈루빠벨이 골라 놓은 돌을 보고는 그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등잔은 천하를 살피는 야훼의 눈이다.” 11. 나는 그 천사에게 “그러면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무엇입니까? 12. 또 금대롱으로 기름을 대어 주는 올리브나무 가지가 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13. 그 천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느냐고 하기에 내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14. 그는 이렇게 일러 주었다.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시도록 기름 부어 성별한 두 사람을 뜻한다.”

해설

소 예언서의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유다나 이스라엘 왕국에서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 살았었다. 그러나 마지막 세 예언자들은 포로들의 귀환 후에 있었던 자들이다. 아시아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귀환하지 못했던 반면 바빌론으로 끌려간 일부 유다 백성들은 귀환했었다.

바빌론의 왕 다리우스 뒤를 이은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라는 주님의 지시를 받았다. 그는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강취해 온 성전의 금과 은 집기들까지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서 돌려보냈다.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 포로로 되었지만, 바빌론에 정착한 후로는 그들 대부분이 귀환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돈이나 동물 또는 기타 필수품을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주어 그들의 귀환을 도와주었다. 귀환 백성의 지도자는 즈루빠벨이었는데, 그는 유다

왕 여호야킨의 손자였다.

사만 이 천명 이상의 백성들이 거룩한 땅으로 귀환했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며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짓기를 도중에 중단하고, 자신들을 위한 집을 짓는데 몰두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마무리 짓도록 다시 말씀해 주셔야만 했다. 성서의 마지막 세 예언자들은 주님이 말씀을 내리시기 위해 선택하신 자들이기도 하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본문의 예언자는 누구인가?
- * 본문의 환상은 어떻게 그에게 내려왔는가?
- *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 * 천사는 일곱 등잔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는가?
- *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 정리

- 1) 바빌론에서 유대인들은 몇 년간 포로로 있었는가?
- 2) 어떤 왕이 유대인들에게 귀환을 허용했는가?
- 3) 그 왕은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는가?
- 4) 귀환인들의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 5) 포로가 된 모든 유대인은 귀환을 원했는가?
- 6) 바빌론에 남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귀환하는 동료들을 위해 무엇을 하도록 지시되었는가?
- 7) 왜 성전의 건설은 지연되었는가?
- 8) 그들은 성전 건축 대신 무엇을 행했는가?
- 9)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일깨워 주셨는가?
- 10) 본문의 환상은 즈가리아에게 어떻게 왔는가?
- 11) 그는 환상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12) 즈루빠벨에게 전달하라고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 13) 천사는 등잔이 무엇이라고 즈가리아에게 말했는가?
- 14) 두 올리브나무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70년 2) 페르샤왕 고레스 3) 성전 재건 4) 즈루빠벨 5) 그렇지 않았다
- 6) 자원 예물과 각종 필수품의 공급 7) 자신들의 안락에 더욱 몰두해 있었다
- 8)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 9) 예언자를 통해서 10) 천사로부터 11) 등잔과 두 올리브 나무
- 12)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 13) 주님의 눈 14) 기름 부어 성별한 두 사람(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

25

요나와 아주까리

머리말

요나서의 1장과 2장을 읽지 않고서는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따라서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도록 하자. 요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의문사항들은 흔히 세간의 질문거리가 되며 심지어는 그를 비웃는 이들도 있는데, 이를 명확히 이해해두면 신앙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나서 3, 4장

3장: 1. 야훼의 말씀이 또 다시 요나에게 내렸다. 2.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 내가 일러 준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 3. 요나는 야훼의 말씀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로서 돌아다니는 데 사흘이나 걸리는 곳이었다. 4.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 가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 고 외쳤다. 5. 이 말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단식을 선포하였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굶은 배움을 입고 단식하게 되었다.

6. 이 소문을 듣고 니느웨 임금도 용상에서 일어나 어의를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잣더미 위에 앉아 단식하였다. 7. 그리고 대신들의 뜻을 모아 니느웨 시민들에게 아래와 같이 선포하였다.8. “사람이나 짐승, 소떼나 양떼 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맛을 보아서는 안 된다.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8.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혀라. 그리고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남을 못 살게 굴던 나쁜 행위를 모두 버려라. 9. 하느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를 멸하시려던 뜻을 돌이키실지 아느냐?” 10. 이렇게 사람들이 못된 행실을 버리고 돌아 서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시었다.

4장: 1. 요나는 잔뜩 화가 나서 투명스럽게 2. 야훼에게 “야훼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심으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으시어,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3. 그러니 야훼님, 당장이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4. “아니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 하고 야훼께서 타이르셨지만, 5. 요나는 시내를 빠져 동쪽으로 가서 앉았다. 거기에 초막을 치고 그 그늘에 앉아 이 도시가 장차 어찌 되는가 볼 심산이었다. 6. 그 때 하느님 야훼께서는 요나의 머리 위로 아주까리가 자라서 그늘을 드리워 더위를 면하게 해 주셨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아주 기분이 좋았다. 7. 이튿날 새벽에 하느님께서서는 그 아주까리를 벌레가 쏴아 먹어 말라 죽게 하셨다. 8.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게 하셨다. 더우기 해마저 내리쬐자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요나는 죽고만 싶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고 투덜거렸다. 9. 하느님께서 요나를 타이르셨다. “아주까리가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뭘 말이나?” 요나가 대답했다.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10.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 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와하느냐? 11.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십 이만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해설

이스라엘 왕국시대에 요나라는 예언자가 살았다. 예언자란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을 말한다. 당시 요나는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성실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주님은 그에게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 경고할 것을 분부하셨다. 그러나 요나는 다른 유다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인이 아닌 자들은 경멸하여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서 주님으로부터 숨을 작정이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명령 받았을 때 숨거나 다른 핑계를 내세워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요나가 주님의 명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승선한 배는 큰 풍랑을 만나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한 결과 배가 위험에 처한 요인이 요나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선원들을 회개하며 자신을 물에 던지라는 요나의 요청에 따라 그를 물에 던졌다. 그러자 곧 풍랑이 멎었다.

물에 빠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졌고, 물고기의 배안에서 사흘 동안을 밤낮으로 지낸 후 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요나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주님의 메시지를 니느웨인들에게 전달할 준비가 되었다. 니느웨의 사람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주님의 예언자가 이전에는 없었다. 요나가 그들에게 예언의 말을 전하자 그들은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말을 믿고 그들의 죄를 회개 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요나의 예언에 있었던 것과 같은 멸망을 그곳으로부터 유보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만약 우리가 요나와 같은 상황에 처하여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벌을 면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대답은 ‘아니다’ 일 것이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들이 벌 받는 것을 볼 때 내심 기뻐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역시 그와 같은 경험이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요나는 주님께서 니스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아 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처의 산으로 가서 니스웨의 근왕을 지켜보고자 했다. 그가 햇볕아래 앉아 있으면서 고통스러워하자 주님은 박녕쿨이 자라서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도록 하셨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에 박녕쿨은 말라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요나는 몹시 화를 냈고, 이내 주님께 야단맞게 된다. 주님은 니스웨에 사는 생명들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박녕쿨을 사용하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요나는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 중 어디에 속하는가?
- 2) 요나는 언제 어디서 살았는가?
- 3) 왜 그는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했는가?
- 4)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5) 니스웨는 어느 나라에 위치했는가?
- 6) 요나가 니스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7) 왜 그의 예언은 적중하지 않았는가?
- 8) 요나는 기뻐했는가?
- 9) 그는 어디로 갔는가?
- 10) 그가 더위를 면할 수 있도록 무엇이 자랐는가?
- 11) 무엇이 아주까리를 파괴시켰는가?
- 12) 그래서 요나는 분노했는가?
- 13)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소 예언서 2) 엘리사 후에, 이스라엘 왕국에서 3) 너무 거만해서 니스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 4) 태풍이 바다에 몰아쳤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 5) 아시리아 6) “사십 일이 지나면 니스웨는 잿더미가 된다” 7) 니스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 8)

아니다 9) “시내를 빠져나가 동쪽으로 가서 앉았다” 10) 아주까리 11) 벌레 12) 예
13)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6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머리말

니스웨 사람들에게 대한 요나의 태도를 상기해 보면, 주님의 오심을 필요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복음서에 성탄절에 관한 외부 사건이 없음을 주시하고, 본문 첫 다섯 구절들을 암기해 두기 바란다.

성서본문: 요한 복음 1장

1.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2. 말씀은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3.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4.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 그 빛이 어둠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 6.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 그는 그 빛을 증언하려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8.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려 왔을 따름이다. 9.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10.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1.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 주지 않았다. 12.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3.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14.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15.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치기를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 하였다. 16.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17.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18.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하느님을 알려 주셨다.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제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이 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20.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 21.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에요? 엘리야요?” 하고 다시 묻자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그들이 다시 물었을 때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하였다. 22.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이렇게 다그쳐 묻자 23.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하고 대답하였다. 24. 그들은 바리사이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25.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26.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27.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28.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29.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30.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었다. 31. 나도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다.”³²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 와 이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³³ 나는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 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³³ 나는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 와서 어떤 사람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 줄 알라’ 고 말씀해 주셨다.³⁴ 과연 나는 그 광경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이다.”³⁵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곳에 서 있다가³⁶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하고 말하였다.³⁷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갔다.³⁸ 예수께서는 뒤돌아서서 그들이 따라 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라빠, 목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라빠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³⁹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 가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네 시쯤이었다.⁴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간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⁴¹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 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⁴²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가자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 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를 게파라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게파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⁴³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래아로 떠나 가시려던 참에 필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 오너라” 하고 부르셨다.⁴⁴ 필립보는 베싸이다 출신으로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다.⁴⁵ 그가 나타나엘을 찾아 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⁴⁶ 그러나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성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물었다. 그래서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⁴⁷ 예수께서는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⁴⁸ 나타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필립보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49 나타나엘은 “선생님,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50 예수께서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고 51.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해설

본문은 요나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나는 그의 나라가 아닌 아시리아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요나의 뒤를 이은 그 땅의 종교지도자들 역시 요나의 이방인에 대한 감정을 계속 이어받았다. 사실 그들은 성경을 가졌던 유일한 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 주위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바를 따르지 않았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진실로 말하는 바를 알지 못했다. 이는 그들 대부분이 글 자체를 읽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학식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사이파인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대신 자신들의 위세를 드높이기 위한 인간의 규정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성경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도달하실 수 없게 되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바리사이파인이나 서기관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는 베들레헬에서 주님의 탄생과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보다 더 위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본문 첫 절을 읽어 보도록 하자. 이 절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 성경은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라는 것이다. 둘째, 주 예수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살아 내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진리를 살아내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성경속의 진리와 그것이 뜻하는 바를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그 말속에는 우리 자신이 들어있다. 즉,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알게 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각과 느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그분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오신 것과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질문 정리

- 1) 요나는 누구인가?
- 2) 왜 그는 주님으로부터 달아났는가?
- 3)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4) 그는 니느웨에 어떤 예언을 했는가?
- 5) 왜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는가?
- 6) 요나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가?
- 7) 그의 심정과 지성을 그려주는 어떤 사건이 그에게 있었는가?
- 8) 주님은 그 사건으로 요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 9)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말씀에 무엇을 해 놓았는가?
- 10)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고 있는가?
- 11) 영감 된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 이라고 부를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
- 12) 우리가 예배를 가질 때 성경을 제단위에 놓고 말씀을 열고 닫는 까닭은 무엇인가?
- 13)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가?
- 14) 본문에서 누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가?
- 15) 어떤 징조가 요한에게 주어졌는가?
- 16) 본문에서 어떤 사도들이 등장되는가?
- 17) 나타나엘은 다른 곳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는가?

질문의 답

1) 이스라엘의 예언자 2) 너무 거만하여 니느웨를 경고하지 않고 싶어서 3) 큰 물고기가 삼켰다 4)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 5)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 6) 성이 났다 7) 박 넝쿨의 이야기 8)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9) 자기들 사상으로 말씀을 덮어놓았다 10) 성서 참조 11) 신성한 진리가 글로 표현된 형체 12) 주님의 현존에 대한 상징물 13)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되심 14) 세례자 요한 15) 비둘기 16) 안드레아, 베드로, 필립보, 나타나엘 17) 바르톨로메오

27

가나에서의 기적

머리말

우리는 성경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데, 요한 복음서를 공부하기에 앞서 타 복음서에 있는 그분의 생애 주요 사건들을 재정리 해두어야 한다. 즉, 주님의 탄생, 이집트로의 피난, 나사렛으로의 귀환, 십 이세가 되던 해 성전으로 오신 주님, 세례 그리고 40일간의 광야에서의 시험에 관한 것이다. 또한 기적에 관한 것과 주님께서 기적을 수행하셨던 까닭을 살펴본 후 본문을 공부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 복음 2장 1-11절

1. 이런 일이 있는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2.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3.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4.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5.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렸다. 6.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에 쓰이는 두세 동이들이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⁷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⁸. 예수께서 “이제는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⁹.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을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맡은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¹⁰.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 일이요!” 하고 감탄하였다. ¹¹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서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해설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곳에서 성장하시지는 않았다. 헤로데 왕은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리라는 예언 때문에 그분을 죽이고자 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통해서 천사로부터 마리아와 예수를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한동안 체류하라는 분부를 받았다. 그들은 헤로데가 죽은 뒤 다시 되돌아 왔지만,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거주했다. 그 이유는 그곳이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나사렛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위치한 유다지역보다 먼 북쪽인 갈릴래아 지역에 속한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

주님은 열 두 살 되시던 해에 과일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리고 그분은 삼 십 세 되시던 해에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세례자 요한 앞으로 가셨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는 환상이 요한에게 주어졌다. 주님은 세례 받으신 후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과 투쟁하며 사십 일을 보내셨다. 이리하여 공생애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었다.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헤로데처럼 주님의 오시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실제로 약속된 구세주가 아니라고

믿도록 무척 애썼다. 어찌됐던 주님은 단순하고 선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준 의심을 극복해내도록 기적들을 수행하시기 시작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 기적을 수행하셨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기적이란 무엇인가?
- * 그분은 어디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는가?
- *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는 왜 가나에 있었는가?
- * 몇 개의 물 항아리가 거기에 있었는가?
- * 각 항아리의 용량은 얼마나 되었는가?
- * 주님은 하인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 * 물을 퍼내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질문 정리

- 1)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는가?
- 2) 왜 우리는 영감 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 3)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이 되셨다” 라고 부르는가?
- 4)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 5) 왜 주님은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 6)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누가 태어났는가?
- 7) 어떤 징조가 세례자 요한에게 주어졌는가?
- 8) 어떤 제자가 주님을 처음 뵈었는가?
- 9) 이 밖의 어떤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되는가?
- 10) 주님은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 11) 베들레헴은 거룩한 땅의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
- 12) 주님은 어디서 성장하셨는가?
- 13) 나자렛은 그 땅의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
- 14)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의 이름은 무엇인가?

- 15) 주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어디서 사셨는가?
- 16) 기적이란 무엇인가?
- 17)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곳은 어디인가?
- 18) 왜 주님은 가나로 가셨는가?
- 19) 잔치에서 무엇이 부족했는가?
- 20) 누가 주님께 도움을 청했는가?

질문의 답

- 1) 성서참조 2)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 3) 그분이 살아있는 진리이시기 때문
- 4) 그분의 진리가 살아 있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해준다는 뜻 5)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6) 세례자 요한 7) 비둘기 8) 안드레아 9) 베드로, 필립보, 나타나엘(바르톨로메오)
- 10) 베들레헴 11) 유다 12) 나자렛 13) 갈릴래아 14) 사마리아 15) 가버나움
- 16) 주님께 의해 행해진 경이로운 것들 17) 가나 18) 혼인잔치 19) 포도주 20) 마리아

28

주님과 니고데모

머리말

제 1장에서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근간으로 본문을 살펴본다. 니고데모는 위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외에 속했으나 주님을 믿는데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못했다. 본문에는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3장 1-21절

1.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2.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 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3.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4.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5.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6.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7.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8.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9.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0.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11.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12.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 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14.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15.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17.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18.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20.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21.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

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해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중에서 가장 존경받던 계층은 바리사이파인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삶이 어느 누구보다 더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계층이다. 그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갖가지 규정들을 성경에 덧붙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잘 지키는 자들만이 선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직접 읽어 보지 못하여 바리사이파인들의 규정이 하느님에게서 온 법이 아님을 알지 못했다.

주님은 바리사이파인들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채 하는 것뿐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해 주셨다. 따라서 이 일은 바리사이파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미워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했다. 그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권능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 권능이 악마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바리사이파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도 올바른 것을 행하고자 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이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급의 인사였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를 관장하는 칠십인 의회의 의원이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니고데모는 무엇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 * 니고데모의 믿음은 어떠한가?
- * 그는 어느 시각에 주님께 왔는가?
- *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첫 번째 사항은 무엇인가?
- * 니고데모는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했는가?
- * 주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야 한다고 그에게 말씀해주셨는가?
- * 니고데모에게 내리신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상기케

하는가?

- * 영혼과 육체 중 무엇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야 하는가?
- *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더 건강해지고 발전되는가?
- *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질문 정리

- 1) 바리사이파인과 서기관이란 어떤 사람인가?
- 2) 그들은 성경에 무슨 짓을 했는가?
- 3)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 4) 왜 그들은 주님을 반대했는가?
- 5)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사이파인의 이름은 무엇인가?
- 6) 그는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
- 7) 왜 그는 밤에 주님을 찾아 갔는가?
- 8) 왜 그는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 9) 주님은 그가 어떤 질문을 원한다고 보셨는가?
- 10)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11) 주님은 “다시 태어남” 에서 무엇을 의미하셨는가?
- 12) 주님은 광야에서의 구리뱀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주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 14) 이미 죄인으로 판결된 이유는 무엇인가?
- 15)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행동을 두둔하려 들 때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바리사이파인 - 아주 엄격한 종교계층, 서기관 - 성경을 베끼는 사람
- 2) 자기들 사상을 첨가시켰다 3) 위선자 4)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기 때문

- 5) 니고데모 6) 의회 의원 7) 동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8) 기적들
- 9) 하늘로 가는 길 10) 다시 태어나야 한다 11) 회개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 12)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13)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14) 믿지 않는 것
- 15) 십중팔구 자신의 고집대로 원할 것이기 때문

29

야곱의 우물가에서의 주님

머리말

본문은 몇몇 성경의 이야기들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는데, 야곱과 요셉의 죽음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한 이스라엘 왕국의 정복 등이 그 예다. 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33장 18-20절과 48장 21-22절과 50장 24-26절, 출애굽기 13장 19절, 여호수아 24장 32절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24-41절을 참고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4장 1-42절

1.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으시고 세례를 베푸신다는 소문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2.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다.) 3.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래아로 가기로 하셨는데, 4. 그 곳으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하였다. 5.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6.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와 있었다. 7. 마침 그 때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9.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10.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자 11.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12.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도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13.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다. 15.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16.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 오라고 하셨다. 17.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18.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19.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20.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21.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23.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24.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25.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 주시겠지요.” 하자 ²⁶.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²⁷. 그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 와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청하셨는지 또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물어 보는 사람은 없었다. ²⁸.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돌아 가 사람들에게 ²⁹.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 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렸다. ³⁰.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모여 들었다. ³¹.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무엇을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³². 예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³³.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선생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수군거렸다. ³⁴.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본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³⁵. 너희는 ‘아직도 너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라.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³⁶. 거두는 사람은 이미 샅을 받고 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 들인다. 그래서 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도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³⁷. 과연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속담이 맞다. ³⁸. 남들이 수고하여 지은 곡식을 거두라고 나는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그 수고의 열매는 너희가 거두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³⁹.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자기의 지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 맞히셨다고 한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⁴⁰. 예수께서는 그들을 찾아 와 자기들과 함께 묵으시기를 간청하므로 거기에서 이틀 동안 묵으셨는데 ⁴¹.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⁴².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하고 말하였다.

해설

주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이 있었던 가나에서의 결혼식이 끝난 후 과월절을 기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 주님은 갈릴래아로 되돌아가시는 도중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치셔야만 했는데, 그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잠시 쉬게 되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손자이다. 야곱은 본문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에 사마리아 지역 중심부 근처의 땅을 조금 사서 거기에 우물을 팠다. 그는 죽을 무렵 그 땅을 아들인 요셉에게 물려주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게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자신의 몸을 이집트에 묻지 말고 자손들이 가게 될 고향에 묻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그의 시신을 썩지 않게 보관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 낼 때 요셉의 시신도 함께 운반했다. 그들은 광야 여행 동안에도 요셉의 시신을 운반했고, 거룩한 땅을 정복한 후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받은 땅에 그를 안장했다. 따라서 야곱의 우물은 상응으로 볼 때 주님이 쉬셔야 할 최적의 장소인 것이다.

하지만 주님의 시대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렸던 자들이다. 이들은 과거 이 지역에 수도를 가졌던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당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다음 강제로 이주된 외국인들의 후손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때로부터 약 칠백 년이 지난 본문의 시대까지도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 * 주님은 그 여인이 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 사마리아 여인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했는가?
- * 생명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의 종교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가?
- *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교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입증하는 그녀의 질문은 무엇인가?
- * 주님은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 * 주님께서 그녀의 마을에 머물면서 가르치시자 그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질문 정리

- 1) 주님의 시대 때 거룩한 땅의 세 지역은 어떻게 구분되었는가?
- 2) 중간 지역은 어디인가?
- 3) 사마리아 사람이란 누구인가?
- 4) 본문에서 주님은 어디에서 어디로 여행하시고 계신가?
- 5) 그분은 어느 곳에서 쉬시기 위해 멈추셨는가?
- 6) 야곱의 우물이 있는 땅 구획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7) 주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누가 왔는가?
- 8)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은 왜 놀랐는가?
- 9) 주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10) 주님이 예언자임을 알도록 그녀에게 보여준 그분의 말씀은 무엇인가?
- 11) 주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셨는가?
- 12) 주님은 그분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 13) 무엇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해주었는가?

질문의 답

- 1) 갈릴래아, 사마리아, 유다
- 2) 사마리아
- 3) 아시리아 왕에 의해 이주된 외국인들
- 4) 유다로부터 갈릴래아로
- 5) 야곱의 우물
- 6) 야곱이 사서 요셉에게 준 땅
- 7) 사마리아 여인
- 8)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
- 9) 10절 참조
- 10) 다섯 명의 남편
- 11) 나는 그리스도이다
- 12)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
- 13) 그분의 말씀들

30 베짜타 못

머리말

본문 이전의 사건은 주님의 두 번째 기적에 관한 것인데, 이 구절 역시 읽어두기 바란다.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주님이 과월절을 기념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을 알 수 있다. 이는 4장 45절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첫 방문 시에 성전을 정화하셨다고 말한다(2:13-16). 본문 이전의 이러한 사항들은 주님께서 유다와 갈릴래이를 자주 오고 가셨음을 보여준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5장 1-16절

1. 얼마 뒤에 유다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가셨다. 2.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말로 베짜타라는 못이 있었고 그 둘레에는 행각 다섯이 서 있었다. 3. 이 행각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4.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 와 물을 휘젓곤 하였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나았던 것이다.) 5. 그들 중에는 삼 십 팔 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다. 6.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7. 병자는 “선생님, 그렇지 만 저에겐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만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8. 예수께서 “일어나 요를 걸어 들고 걸어 가거라” 하시자 9. 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아서 요를 걸어 들고 걸어 갔다. 그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10. 그래서 유다인들은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요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나무랐다. 11. “나를 고쳐 주신 분이 나더러 요를 걷어 들고 걸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꾸하자 12. 그들은 “너더러 요를 걷어 들고 걸어 가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다. 13. 그러나 병이 나은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 준 사람이 누구지 알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미 자리를 뜨셨고 그 곳에는 많은 사람이 붐볐기 때문이다. 14. 얼마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자, 지금은 네 병이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 하고 일러 주셨다. 15.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쳐 주신 분이 예수라고 말하였다. 16.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다 하여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해설

본문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분은 갈릴래아로 되돌아 가셔서 거기서 또 다른 기적인 고관의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셨다. 이후 주님은 또 다른 명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셨다.

어린 아이들은 아플 때를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가 하루 종일 시중을 들어 주기를 바란다. 그들은 때로 전혀 필요치 않은 일을 해 달라고 보채며, 병이 다 나은 후에도 아플 때에 받았던 관심을 즐기기도 한다.

사실 본문의 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병을 고쳐보고자 진실로 노력하지는 않았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일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고 먼저 물으셨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후 주님은 그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 라고 일러 주셨다. 우리의 나쁜 습관은 우리 영혼의 병인 것이다. 우리는 때로 자신속의 나쁜 습관들을 고치려는 노력을 포기하거나 그 일에 상당히 더디기도 하다. 이는 부모들이 어린 아이에게 어떤 것을 충고해

줄 때 아이가 본문의 병자와 같이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와 같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고 선한 인격을 진정으로 도모하고 싶은가를 먼저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자 늘 우리 가까이 계신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예루살렘 양의 문 근처에는 어떤 못이 있었는가?
- * 몇 개의 행각이 그 돌레에 있었는가?
- * 이 못 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 * 이 물에 가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이 물이 휘저어질 때 먼저 그 물로 들어간 병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 * 본문의 병자는 얼마나 오래 앓고 있었는가?
- *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물으셨는가?
- * 왜 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다고 말했는가?
- *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종교 지도자들은 그에게 무슨 질문을 했는가?
- * 그는 뭐라고 답했는가?

질문 정리

- 1) 사마리아는 거룩한 땅의 어느 부분인가?
- 2) 사마리아 사람의 선조는 누구인가?
- 3)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래아로 가시던 도중 어디서 멈추어 쉬셨는가?
- 4) 주님이 물을 달라고 사마리아여인에게 물으셨을 때 그녀는 왜 놀랐는가?
- 5) 주님은 그녀에게 물에 관해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6) 주님은 그녀에게 자신에 관한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7)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9) 베짜타 못은 어디에 있는가?
- 10) 못 주위에는 몇 개의 행각이 있는가?
- 11) 어떤 이들이 행각에서 기다렸는가?
- 12)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는가?
- 13) 물이 휘저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4)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이 못에 있었는가?
- 15) 주님은 그에게 먼저 무엇을 물어보셨는가?
- 16) 그는 뭐라고 답변했는가?
- 17)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8) 그가 그렇게 하자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 19)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꾸짖었는가?
- 20) 주님은 고침 받은 사람을 다시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1) 종교지도자들은 이 병자를 고친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가?

질문의 답

- 1) 중간지역 2) 외국인 3) 야곱의 우물
- 4)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 5) 4장 10절 참조
- 6) 나는 그리스도이다 7)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 8)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 9) 예루살렘 10) 5 11) 병자들 12) 물이 휘저어지기를 기다림
- 13) 먼저 물에 들어간 병자는 치료됨 14) 38년 15)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 16)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17)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가라”
- 18) 치료되었다 19) 그는 안식일 법을 깨트렸다 20)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 21)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머리말

본문은 기적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도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본문 전체를 기억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9장

1.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2.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3.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4.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 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5.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6.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어서 소경을 눈에 바르신 다음 7.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자” 라는 뜻이다.) 소경은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 왔다. 8. 그의 이웃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 노릇을 하고 있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9.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을 닮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그 때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यो” 하고 말하였다, 10.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11. 그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시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2.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었으나 그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¹³. 사람들은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¹⁴.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였다. ¹⁵.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또 그에게 눈을 뜨게 된 경위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주신 뒤에 얼굴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¹⁶.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에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면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보일 수 있겠소?” 하고 맞서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¹⁷. 그들이 눈멀었던 사람에게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니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하고 다시 묻자 그는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¹⁸.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본래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마침내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¹⁹.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²⁰ 그의 부모는 “예, 틀림없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저의 아들입니다. ²¹. 그러나 그가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하여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제 일은 제가 대답하겠지요” 하였다. ²²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²³. 그의 부모가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²⁴ 유대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놓고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죄인이요.” 하고 말하였다. ²⁵.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앞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잘 보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²⁶.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소?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했던 말이요?” 하고 그들이 다시 묻자 ²⁷. 그는 “그 이야기를 벌써 해드렸는데 그 때에는 듣지도 않더니 왜 다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²⁸.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너는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²⁹.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직접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그자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³⁰.

그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도 모른다니 이상한 일입니다. ^{31.} 하느님께서서는 죄인의 청은 안 들어 주시지만 하느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의 청은 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2.}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준 이가 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33.} 그분이 만일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도저히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34.}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너는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훈계하려 드느냐?” 하며 그를 회당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35.} 눈멀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를 만났을 때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36.} “선생님, 믿겠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하고 대답하자 ^{37.} 예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8.} “주님 믿습니다.” 하며 그는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다. ^{39.}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40.}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이과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들도 눈이 멀었던 말시오?” 하고 대들었다. ^{41.} 예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해설

앞서 우리는 베짜타 못의 사람, 즉 삼십 팔 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 병을 낫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님이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가거라.” 하신 말씀에 그가 순종하자 그는 완쾌되었다. 본문은 그 사람과 비슷한 절망 속에 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할 때 자녀는 어머니에게 그 일을 해야 하는 까닭을 묻는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이유를 설명해주면, 자녀는 “알았습니다” 라고 답하며 그 일을 행한다. 여기서 “알았습니다” 는 영어로는 “I see”에 해당된다. 하지만 자녀는 어머니가 시키신 일을 원하지 않을 때 그것을 보지 못한 척 하기도

한다.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의 눈은 뭔가를 보는데, 우리의 마음 역시 뭔가를 본다. 주님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며 행하지 않을 때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고통은 무엇인가?
- *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눈이 멀어 있었는가?
- * 제자들은 주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 *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주셨는가?
- * 누가 이러한 주님의 치료에 반대했는가?
- *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이 소경을 치료하셨던 것을 믿었는가?
- * 소경은 주님의 권능이 어디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했는가?
- * 바리사이파인들은 그를 어떻게 했는가?
- * 예수께서 소경을 다시 만났을 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 그러자 소경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질문 정리

- 1) 삐짜타 못은 어디에 있는가?
- 2) 그 못에는 몇 개의 행각이 있는가?
- 3) 누가 행각에 모여 있었는가?
- 4) 왜 그들은 거기에 있었는가?
- 5) 어떤 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왔는가?
- 6)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물으셨는가?
- 7) 그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 9) 그가 순종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 10) 그 후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1) 본문의 소경은 언제부터 눈이 멀었는가?
- 12)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 무엇을 질문했는가?
- 13)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 14) 소경의 눈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보게 되었는가?
- 15) 이 기적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제기되었는가?
- 16) 눈을 뜨게 된 자는 이 반론으로 인해 자신을 치료해주신 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도록 인도되었는가?
- 17) 소경의 부모가 주님을 노골적으로 찬양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 18) 그들이 기적의 사실을 부인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적들은 주님을 어떻게 몰아붙였는가?
- 19) 눈뜬 자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 20)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 21) 그 후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22) 눈뜬 자는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응했는가?
- 23) 본문에서는 주님이 세상에 오셨던 까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 24) 바리사이파인들은 무엇을 물었는가?
- 25)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해주셨는가?

질문의 답

- 1) 예루살렘 2) 5 3) 병자들 4) 치료받기 위해 5) 38년
- 6)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7)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 8) 일어나, 요를 걸어 들고, 걸어가라 9) 치료되었다 10)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 11) 태어날 때부터 12) 누구의 죄 탓입니까? 13) 누구 탓도 아니다
- 14) 진흙을 바르고 못에서 씻음 15)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 16) 예언자
- 17)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18) 그는 죄인이다 19) 32절 참조
- 20) 쫓겨났다 21)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22) 그분을 경배했다
- 23) 심판을 위해 24) 우리가 눈이 멀었던 말이오? 25) 41절 참조

선한 목자

머리말

본과의 제목은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제 10장

1.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양 우리에 들어 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2. 양치는 목자는 문으로 버젓이 들어간다. 3.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4. 이렇게 양떼를 불러 낸 다음에 목자는 앞장 서 간다.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간다. 5.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 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음성이 귀에 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피하여 달아난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7.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8.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9. 나는 문이다.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10.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11.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12. 목자가 아닌 샅꾼은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 가고 양떼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13. 그는 샅꾼이어서 양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14.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15.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16.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 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 때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17.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18.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19.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20. 많은 사람이 “그는 마귀가 들렸소. 그런 미친 사람의 말을 무엇 때문에 듣는 거요?” 하고 말하는가 하면 21. 어떤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소? 더구나 마귀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यो?” 하고 말했다. 22. 때는 겨울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23. 예수께서는 성전 구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24. 유대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래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25.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준다. 26.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2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 온다. 28.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9.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30.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31. 이때에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 예수께 던지려고 하였다. 32.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좋은 일들을 많이 보여 주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못마땅해서 돌을 들어 치려는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다. 33. 유대인들은 “당신이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왜 돌을 들겠소? 당신이 하느님을 모독했으니까 그러는 것이요. 당신은 한갓 사람이면서 하느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소?” 하고

대들었다. ³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³⁵ 이렇게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성경 말씀은 영원히 참되시다. ³⁶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거룩한 일을 맡겨 세상에 보내주셨다. 너희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 때문에 하느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³⁷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³⁸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만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³⁹ 그 때에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몸을 피하셨다. ⁴⁰ 예수께서는 다시 요한이 전에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⁴¹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 와서 서로 “요한은 기적을 보여 주지 못했지만 그가 이 사람에 관해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고 하면서 ⁴²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해설

양은 온순하며 유용한 동물이다. 그들의 고기는 식용으로 알맞으며, 그들의 털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매해 겨울이 되면 양의 털들은 아주 두껍게 자라나 추위로부터 양의 몸을 보호해 준다. 양의 주인들은 봄이 오면 양털을 깎아서 팔거나 그 털로 담요 혹은 옷을 만들어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주님이 계셨던 때의 거룩한 땅에서는 양이 아주 중요했었고, 그 후로도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양들을 매우 중요시했다. 봄철에 목자들은 양들을 풀밭으로 인도하여 그것들과 함께 살았다. 그들은 낮에는 그것들을 야생동물로부터 지켰고, 밤에는 그것들을 우리 안에 넣어 그것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밤새 불침번을 섰다. 목자들은 그들의 양떼들을 사랑하여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양떼들은 그들을 돌보는 목자들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의 인도를 따른다.

사람들이 때로 그들의 아기를 “어린 양”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아기들이 어린 양 같이 온순하며 순진하여 자연스럽게 생겨난 표현이다. 주님께서도 그분의

추종자들을 “내 양들” 이라고 부르셨다. 이에 관한 구절인 10장 1-14절을 다시 읽어 보도록 하자.

양과 어린 양은 순진을 표현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양으로 상징되는 특질이 우리를 자아신뢰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데로 인도해준다. 목자들은 양떼를 인도하며 지켜주는데, 이는 위의 특질인 순진을 가꾸며 보호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이와 같은 의미를 표현한다.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알며 사랑하듯이 주님 역시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시며 사랑하신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 그분이 인도하는 곳으로 기쁘게 따라가야 한다. 구약성서 중에서 본문과 연결되어 특별히 연상되는 부분은 시편 23편이다. 이 시편은 때로 “목자 시편” 이라고도 불린다. 이 시편은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암송되며, 사랑받고 있는 부분이다.

과월절에 먹은 고기가 어린 양인 것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그 음식은 결국 우리의 일부가 된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해함과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일부가 된다. 주님께서 성경 시대 때에 사람들에게 하도록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 강건함을 위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여러 가지 동물들은 우리 인격속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표현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돼지’ 라고 표현할 때에 돼지의 의미를 상기하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양이나 어린 양이 순진을 의미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듯이 주님 역시 우리 모두를 알고 사랑하신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먹여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실 수 있게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거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내용이 바로 9절의 “나는 문이다” 라는 말씀에 함축된 의미이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들어가고 나감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늘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과월절이 기념되도록 처음 명령된 것은 성경의 어느 책인가?
- * 첫 과월절이 기념된 이유는 무엇인가?
- * 이스라엘 민족은 과월절에 무엇을 먹었는가?
- * 주님의 어린 양은 누구인가?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 2) 주님은 진정한 목자는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3) 주님은 양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 4) 그분 앞에 온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5) 주님은 목자 외에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 6) 그분이 어떻게 문이 되시는가?
- 7) 샅꾼은 어떠하다고 말씀하시는가?
- 8) 그분이 가진 다른 양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유대인은 주님에게 무엇을 대답해 달라고 요청했는가?
- 10) 주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왜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가?
- 12) 주님과 아버지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분을 무엇으로 기소했는가?
- 14) 주님이 목자라고 불리신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선한 목자 2) 자기 양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른다
- 3)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4) 도둑이며 강도 5) 양 우리의 문
- 6) 우리가 그분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 7) 양을 돌보지 않는다
- 8) 양 우리에게 있지 않다 9)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10) 그분의 일

- 11) 그분의 양이 아니므로 12)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13) 하느님 모독 죄 14) 시편 23편

33

다시 살아난 라자로

머리말

본문은 미래의 삶에 대한 교리를 배우기에 적절하다. 먼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라자로를 일으키신 까닭은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우리의 의식을 옮겨 갈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11장 1-46절

1.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가 사는 베다니아 동네에 라자로라는 병자가 있었다. 2. 앓고 있는 라자로의 오빠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린 적이 있는 여자였다. 3.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하고 전했다. 4. 예수께서는 그 전갈을 받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5. 예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6. 그러나 라자로가 앓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무르시다가 이들이 지난 뒤에야 7. 제자들에게 “유다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이 “선생님, 얼마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그 곳으로 다시 가시겠습니까?” 하고 걱정하자 9. 예수께서는 “낮은 열 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10.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하시며 11. 이어서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12.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 라자로가 잠들어 있었다면 곧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13.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라자로가 죽었다는 뜻이었는데 제자들은 그저 잠을 자고 있다는 말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14.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라자로를 죽였다. 15. 이제 그 일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 된 일이다. 그곳으로 가자.” 16. 그 때에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가 자기 동료인 판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17.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 보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 18. 베다니이는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되는 곳이어서 19.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20.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타는 마중을 나갔다. 그 동안 마리아는 집 안에 있었다. 21. 마르타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23.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24.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5.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26.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르타는 27. “예,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8. 이 말을 남기고 마르타는 돌아 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귓속말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일러 주었다. 29.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별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30.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던 것이다. 31.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곡하러 무덤에 나가는 줄 알고 뒤따라 나갔다. 32.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찾아가 꿇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예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³⁴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³⁵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³⁶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것 보시오. 라자로를 무척 사랑 했던가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³⁷ 또 그들 가운데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던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다. ³⁸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잠겨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³⁹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⁴⁰ 예수께서 마르타에게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자 ⁴¹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⁴²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 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 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⁴³ 말씀을 마치시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⁴⁴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베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⁴⁵ 마리아를 찾아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⁴⁶ 그러나 더러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일러바치기도 하였다.

해설

주님은 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이 아닌 그곳에서 약 2마일정도 떨어진 작은 읍인 베다니아로 가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머무르셨다. 그분의 친구는 나자로라는 남자와 두 자매인 마르타와 마리아였다. 이들의 이름은 복음서에서 수차례 언급된다. 본문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관한 것과 주님이 그를 위해 기적을 베푸셨던 사건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음에 처할 때 그를 잃게 되어 아주 슬퍼한다. 그리고

그가 떠남으로서 우리 삶에서의 어떤 변화가 이뤄지기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가 죽도록 방치하셨다’ 고 하는 식의 느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해서 안 될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각 개인을 위해 항상 최선의 것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라자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는데, 이는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 두어야 할 두 가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첫번째 사항은 25절에서 기술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에 관한 것인데, 이는 모든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됨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느 누구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죽는다고 함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저 세상에서는 깨어남을 의미한다. 영계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인격의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잠시 지상에 존재할 뿐이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저 세상에서 우리를 깨워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섰었다면 깨어나서 가게 될 본향이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고향임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라자로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 왜 주님은 라자로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베다니아로 가는 것을 지체하셨는가?
- * 누가 주님을 만나러 갔는가?
- * 마르타는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 * 그녀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 * 주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무덤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 주님은 사람들이 입구의 돌을 치워내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질문 정리

1) 라자로는 누구인가?

- 2) 누가 그의 자매들인가?
- 3) 그는 어디서 살았는가?
- 4)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의 생애 언제쯤 베풀어졌는가?
- 5) 라자로가 심히 아프게 되자 주님은 즉시 베다니아로 가셨는가?
- 6)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 라자로가 죽은 후 며칠이나 지났었는가 ?
- 7) 마르타가 주님을 뵈자 뭐라고 말했는가?
- 8) 이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마르타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 10) 주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라자로를 살리셨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12) 대성직자 와 바리사이파인들은 그분을 어떻게 하자고 모의했는가?
- 13) 왜 주님은 베다니아로 가시는 것을 지체하셨는가?
- 14) 왜 주님은 처음에 나자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셨고 후에는 그가 죽었다고 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예수님의 친구 2) 마르타와 마리아 3) 베다니아 4) 그분 생애의 말기
- 5) 아니다 6) 4일 7) “만일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8) “다시 일어난다”
- 9) “마지막 날에... 10)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11) 돌을 치우고, 큰 소리로 부르시자, 나자로가 걸어 나왔다
- 12) 죽이려고 음모했다
- 13) 죽음을 넘어서있는 그분의 권능을 보여 주시려고
- 14) 죽음이 이 세상에서 잠들고 영계에서는 다시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34

종려주일(4)

머리말

요한복음에는 종려주일에 관한 기록이 짧은 편이다. 따라서 타 복음서에 있는 종려주일의 부분을 읽고 보충하길 바란다.

성서본문: 요한복음 12장 12-50절

12. 명절을 지내러 와 있던 큰 군중은 그 이튿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 찬미 받으소서!” 하고 외쳤다. 14. 예수께서는 새끼 나귀를 보시고 거기에 올라 앉으셨다. 이것은 성서에, 15.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임금이 너에게로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16. 예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야 이것이 모두 예수를 두고 기록된 것이며 또 이런 일들이 그대로 예수께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7. 예수께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일을 증언하였다. 18. 군중이 예수를 맞으러 나간 것도 예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 주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19.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따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20. 명절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 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 사람도 몇이 있었다. 21. 그들은 갈릴래아 지방 베싸이다에서 온 필립보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를 뵈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22.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께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23.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24.}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27.}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건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28.}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 때에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 왔다. ^{29.} 거기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 가운데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30.}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 온 음성이다. ^{31.}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32.}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3.}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34.} 그 때에 군중이 “우리는 율법서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시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35.}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빛이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잠시뿐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어둠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36.}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37.} 예수께서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건만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38.}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께서 보여 주신 능력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한 말이 이루어졌다. ^{39.}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40.}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을 가지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여 끝내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한테

온전히 고쳐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41.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며 또 예수를 가리켜서 한 말이었다. 42. 유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이파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드러내 놓고 하지는 못하였다. 회당에서 쫓겨 날까 겁이 났던 것이다. 43.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도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44.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까지 믿는 것이고 45.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도 보는 것이다. 46.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47.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단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단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48. 그러나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세상 끝 날에 그를 단죄할 것이다. 49.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친히 명령하시는 대로 말하였다. 50. 나는 그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 주신 대로 말하는 것뿐이다.”

해설

종려주일은 교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주일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주간 동안 지상에서의 주님의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주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오래 전 우리의 주 예수로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엮여져야 하는가를 보여주셨다. 그분은 당신이 아기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였고, 우리처럼 성장하셔서 우리가 죽듯이 죽으셨고 우리가 죽음에서 일어나듯이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삶을 공부함으로써 그분이 사신 바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참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울 준비를 완료하고 계심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시며 자신의 길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방법이 옳지 않다고 그분이 말씀해주시는 것을 그들이 싫어하여서 많은 적들을 가지셨다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 속 어딘가 혹은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서 언젠가 드러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당시의 바리사이파인과 율법 학자들이 주님을 미워해서 결국 그분을 죽음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주님은 하느님이셔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주님은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그 주일이 그분의 마지막 주간의 시작이었다는 것과 당신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모두 알고 계셨다.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타 복음서(마태복음 21:1-11, 마가 11:1-11, 누가복음 19:28-40)도 참고하면서 주님의 예루살렘입성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기 바란다. 또한 본문 12-24절도 다시 읽어보도록 하자.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본문에 언급되는 명절은 무엇인가?
- *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 왜 우리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 * 주님은 어떤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 본문은 군중들이 주님을 뵈고자 갔던 까닭은 그분이 행하신 어떤 기적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 * 주님은 밀알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 우리가 밀알의 비유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질문 정리

- 1) 주님의 공생애는 몇 년인가?
- 2) 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자주 가셨는가?
- 3) 왜 주님은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초에 그곳으로 가셨는가?
- 4) 주님은 그날 어떤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5) 왜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했는가?
- 6)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들고 그분을 환영했는가?

- 7)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는가?
- 8) 호산나란 무슨 뜻인가?
- 9) 왜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 10) 누가 그분의 입성을 보고 화를 냈는가?
- 11) 어떤 이방인들이 그분을 보고자 했는가?
- 12) 어느 제자가 그들을 주님께 안내했는가?
- 13) 주님은 죽음의 필요성을 무엇으로 설명하셨는가?
- 14)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15)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왜 진리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 16) 주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그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 17)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3년 2) 축제 때문에 3) 과월절 4) 나귀 5) 주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 6) 종려나무 가지 7) 호산나 8) 지금 구하소서 9) 왕의 표시, 예언의 성취
- 10)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 11) 그리이스인 12) 필립보와 안드레아
- 13) 밀알의 비유 14) 이기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15) 원하지 않았기 때문
- 16) 인간의 칭찬을 사랑했기 때문 17) 신성한 진리

포도나무의 비유

머리말

모든 생명과 선함이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됨을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과 연관 지어 보면서 이를 확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제 15장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 2.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 3.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4.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 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7.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8.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0.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 11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12.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

다. ¹³.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¹⁴.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¹⁵.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 주었다. ¹⁶.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 주실 것이다. ¹⁷.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¹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도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 두어라. ¹⁹.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너희를 한집안 식구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가려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²⁰. 종은 그 주인보다 더 나을 수가 없다고 한 내말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²¹. 그들은 너희가 내 제자라 해서 이렇게 대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고 있다. ²².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일러 주지 않았던들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게 되었다. ²³.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²⁴. 내가 일찌기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앞에서 하지 않았던들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나와 또 나의 아버지까지 미워한다. ²⁵. 이리하여 그들의 율법서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²⁶.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희에게 보낼 협조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²⁷.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해설

포도는 다발로 이뤄져 있고, 당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하다. 우리는 포도를 있는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즙을 짜서 주님의 성만찬을 위해 포도주로 사용하기도 한다.

포도주는 주님이 지상에 계실 당시 과월절 축제나 기타 축제 때에도 사용되었다. 앞서 우리는 주님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음을 공부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는 포도가 없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데 포도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 포도가 필요치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문 5절이 전하듯이,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열매는 선행이지만, 선함은 그분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선행에 대해 주님이 아닌 자신을 칭찬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선한 행위는 결코 선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변질된 선한 행위 곧 열매는 모두 인공적인 열매이어서 눈에는 아름답게 비춰질지는 모르나 먹을 수 없는 열매인 것이다.

우리가 자신이 행한 선함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참된 포도나무에서 스스로를 잘라내는 가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행실이 무엇인가를 배우며,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말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의 가지인 것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본문은 주님의 어느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졌는가?
- 2) 본문에서 주님은 당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3)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 4) 주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제자들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5)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 6)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7) 주님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 8) 주님은 그분의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삶이 쉽다고 말씀하셨는가?
- 10)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셨는가?

질문의 답

- 1)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 2) 포도나무
- 3) 가지들
- 4) “내안에 거하라”
- 5) 밖에 던지워...
- 6) 그분의 계명에 순종
- 7)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 8) 서로 사랑하라
- 9) 아니다
- 10) 세상에 의해 미움 받고 박해 받는다

36

부활절 (4)

머리말

요한복음에서 강조된 부활 사건은 마리아가 일어나신 주님을 인식한 것 그리고 토마의 의심과 그것의 해결이다. 본과에서는 부활의 일반적인 의미와 제자들의 상태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20장

1.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의 일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2. 그래서 그 여자는 달음질을 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려 주었다. 3.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곧 떠나 무덤으로 향하였다. 4. 두 사람이 같이 달음질쳐 갔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가 먼저 무덤에 다다랐다.

5. 그는 몸을 굽혀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6. 곧 뒤따라 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 가 그도 역시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7.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잘 개켜져 있었다.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9. 그들은 그 때까지도 예수가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10. 두 제자는 숙소로 다시 돌아갔다. 11. 한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13.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14. 뒤를 돌아다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은 미처 몰랐다. 15.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줄 알고 “여보셔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 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 주셔요. 내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 서서 히브리말로 “라뵈니” 하고 불렀다. (이 말은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다.) 17.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 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고 전하여라.” 하고 일러 주셨다. 18.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뵈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 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19.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닫아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20.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21.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22.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 두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27. 그리고 토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 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28.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29.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30.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31.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해설

주님은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라고 외치며 그분을 왕으로 환영한 군중들이 며칠 후 그분을 “십자에 못 박으라” 고 외치게 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함을 믿지 못했고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주님께서 목요일 밤에 그분의 적들에게 붙잡히셨을 때 그분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까지도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 용기는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죽음은 만사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이제는 그분을 결코 뵈을 수 없고 만사가 끝났다고 생각하

며 모든 것을 단념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던 몇몇의 여인들은 그분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해 뭔가 할 일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는 매장한 사신을 위해 어떤 향료를 준비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주님께서 안장된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누구인가?
- * 그녀는 무덤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 그녀가 제자들에게 이 광경을 말하자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 * 그들이 집에 돌아 간 후 마리아는 무덤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 그 때 누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말을 했는가?
- * 누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손으로 확인해야 믿겠다고 말했는가?
- * 주님은 그에게 어떤 식으로 확신을 주셨는가?
- *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었는가?

질문 정리

- 1) 주님은 종려주일에 어떤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2) 군중은 뭐라고 소리쳤는가?
- 3) 군중들은 주님이 무엇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었는가?
- 4) 군중들이 주님이 지상 왕국의 왕이 아니심을 발견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5) 주님은 어느 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 6) 십자가에서 내려진 주님의 시신은 어디에 모셔졌는가?
- 7) 누가 주님의 시신을 모셨는가?
- 8) 누가 일요일 이른 아침 처음 무덤에 갔는가?
- 9) 그 여자는 왜 무덤에 갔는가?
- 10) 그녀는 무엇을 발견했는가?
- 11)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2) 마리아는 무덤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13) 주님은 그녀에게 나타나실 때 당신을 어떻게 알도록 하셨는가?
- 14) 왜 주님은 그분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 15)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 16) 이 때 어떤 제자가 그곳에 있지 않았는가?
- 17) 토마는 주님이 살아 계심을 어떻게 해야 믿겠다고 말했는가?
- 18) 주님은 그를 어떻게 확신시켜 주셨는가?
- 19) 그 후 주님은 토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0) 요한은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일들에 관해 뭐라고 말했는가?

질문의 답

- 1) 나귀 2) 호산나 3) 로마를 정복함 4) 그분을 거절했다 5) 금요일 6) 새 무덤에 안장되었다.
- 7) 아라마테아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8) 막달라 여자 마리아 9) 향을 시신에 바르려고 10) 돌이 굴러져 있었다 11) 수의 12) 두 천사 13) 이름을 부르심으로 14) 아직 올라 가지지 않았기 때문
- 15) 닫혀 있는 문으로 들어오셨다 16) 토마 17) “나는 내 눈으로 보고...내 손으로 만져 보아야...”
- 18) 다시 나타나심으로 19)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20) 기록하기에는 너무 많다

37

여자와 용

머리말

본문에는 아주 인상 깊은 묘사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를 먼저 기억해 두면 점차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12장

1. 그리고 하늘에는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열 두 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2. 그 여자는 뱃속에 아이를 가졌으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3.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고 머리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4. 그 용은 자기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그 아기를 삼켜 버리려고 그 여자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5.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느님과 그분의 옥좌가 있는 곳으로 들려올라 갔고 6.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곳은 하느님께서 천 이백 육십 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7. 그 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자기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 용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용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지만 8. 당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그들이 발붙일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9.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던 늙은 뱀인데, 이제 그놈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 부하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10. 그 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은 쫓겨났다.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이 쫓겨났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11.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진리의 힘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웠다.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크게 노하여 내려갔으니 땅과 바다는 화를 입을 것이다.” 13. 그 용은 자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깨닫자 그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14.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있어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 가 거기에서 삼년 반 동안 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15. 그 뱀은 그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부터 강물처럼 물을 토해 내어 그 물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 했습니다. 16.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해 낸 강물을 마시어 그 여자를 구해 냈습니다. 17. 그러자 용은 그 여자에 대하여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떠나 가 18. 바닷가에 섰습니다.

해설

요한은 “사랑받은 제자” 로 불렸는데, 이는 그가 주님께 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요한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다가 나중에 소아시아로 옮겼고, 거기서 건립된 일곱 교회의 지도자로 활약하며 장수하기도 했다. 로마 총독은 요한이 90세가 될 무렵에 요한을 파트모스 섬에 유배시켰다. 주님은 거기서 그에게 경이로운 환상을 주셨는데, 이 환상이 계시록이라는 책 안에 기록되어 성경의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다.

맨 먼저 요한은 주님 곧 자신이 세상에서 따라 다녔던 예수이지만 새롭고 영화로우신 모습의 예수를 보았다. 그리고 주님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다. 그런 다음 그의 영은 하늘로 들려져서 우리가 악마에 저항할 수

없을 때 주님과 천사들이 어떻게 그 악마를 지배하시며 끌어내리시는가를 보게 되었다.

요한이 본 환상은 하늘에서 운행된 거대한 활동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과 악에 관한 것을 가르쳐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선택하며 악한 것을 미워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보여 준 것이다.

우리가 본문에서 본 큰 붉은 용이란 역사 초기에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주님을 불순종하게 만든 늪은 뱀이라고 한다. 우리는 잘못을 행하도록 유혹될 때마다 이 늪은 뱀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외치게 되면, 행하려 했던 잘못도 멈추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면, 주님과 천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행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본문에서의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 * 여자는 어떤 모양으로 서 있었는가?
- * 그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었는가?
- * 무엇이 그 여자를 위협하기 위해 나타났는가?
- * 용에 관한 사항을 아는 대로 설명해보자.
- * 여자는 어디로 도망갔는가?
- * 그 여자의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가?
- * 누가 용과 대항 하였는가?
- * 무엇이 그 여자를 돕기 위해 주어졌는가?
- * 용은 어떻게 그 여자를 잡으려고 했는가?
- * 땅은 어떻게 그 여자를 도왔는가?

질문 정리

- 1) 요한은 누구인가?
- 2) 그는 고령이 되었을 때 어디로 유배되었는가?
- 3) 주님은 거기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 4) 그에게 주어진 첫 환상은 무엇인가?
- 5) 계시록 전체는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가?
- 6) 첫 기독교회에 자라난 악들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 7) 본문에서 요한은 먼저 무엇을 보았는가?
- 8) 이 환상의 일부를 설명해보자.
- 9) 여인과 그 아이를 위협하기 위해 무엇이 나타났는가?
- 10) 용의 모습은 어떠한가?
- 11) 그 아기는 어떻게 구해졌는가?
- 12) 누가 용에 대항하여 싸웠는가?
- 13) 여인은 어떻게 구해졌는가?

질문의 답

- 1) 가장 사랑 받은 사도 2) 파트모스섬 3) 환상 4) 영화 되신 주님
- 5) 재림 6) 봉인이 떼어짐으로 7) 태양을 입은 여자
- 8) 달을 밟고, 열 두 개의 별이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9) 용
- 10) 일곱 머리, 열 빨, 일곱 왕관 11) 천국으로 들려올라 갔다 12) 미가엘과 천사들
- 13)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광야에 있는 처소로 날아갔다

두 짐승이 정복되다

머리말

본문은 제 12장과 연관되어지며 우리 마음속의 악과 이해함 속의 거짓이 우리 안과 세상에서 발달하려는 교회에 맞서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가를 보여준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13장, 19장 11-21절

13장: 1. 또 나는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열 개이고 머리는 일곱이었습니다. 그 뿔에는 각각 관이 하나씩 씌워져 있었으며 그 머리마다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이름이 씌여 있었습니다. 2.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았는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짐승은 그 용으로부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3.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었지만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이것을 본 온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따라 갔습니다. 4. 그리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짐승에게도 절을 하며 “이 짐승처럼 힘센 자가 어디 있는가? 누가 이 짐승을 당해 낼 수 있겠는가?” 하고 외쳤습니다. 5.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지껄일 입을 받았고 마흔 두 달 동안 세도를 부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6. 그래서 그 짐승은 하느님을 모독하기 시작했고 하느님의 이름과 하느님의 집을 모독했으며 하늘에서 사는 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7.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받았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8. 그러므로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친지창조 때부터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에게 절을 할 것입니다. 9.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10. “잡혀 갈

사람은 잡혀 갈 것이며 칼을 맞아 죽을 사람은 칼을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11. 이번에는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땅에서 올라 오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었으며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12.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과 땅 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회복된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13. 또 그 짐승은 여러 가지 큰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땅에 불을 내리게도 하였습니다. 14.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기적을 가지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또 땅 위에 사는 사람들더러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15. 그리고 둘째 짐승이 권한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도 하였습니다. 16.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하였습니다. 17.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8. 바로 여기에 지체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수는 육백 육십육입니다.

19장: 11.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흰 말이 있었고 “신의”와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12.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 많은 왕관을 썼으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분은 피에 젖은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14.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15.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쳐부술 예리한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쇠지팡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를 담은 술틀을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실 것입니다. 16.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군주의 군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7.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모든 새에게 큰 소리로, “자, 다 같이 하느님의 큰 잔치에 오너라.
^{18.} 왕들과 장성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과 모든 자유인과 노예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살코기를 먹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19.} 또 나는 그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 그런데 그 짐승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잡이로서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낙인이 찍힌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들을 현혹시
 킨 그 거짓 예언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산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21.}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흰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해설

앞서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통해 태양을 입은 여자와 그녀를 위협한 큰 붉은 용
 그리고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과 맞서 싸워 천국 밖으로 그것을 던져 버림으로
 써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구원되었음을 공부했다.

요한의 환상은 우리의 마음과 이해함 속에서 진행되는 것들에 관한 묘사이다. 이러한
 환상들이 주어진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천사들이 우리를 보듯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여자와 아들은 우리 속의
 선한 느낌과 생각들을 상징하게 된다. “늪은 뱀”인 용이란 자신이 하려는 일이
 잘못된 것인 줄 명백히 알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변명을 뜻한다.

본문의 환상은 해괴망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는 그 짐승이 여러 동물의 부분으
 로 조립된 형상을 지니며 용이 그것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이해함 속에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상응적
 인 묘사이다. 용은 세상 초에 사람을 유혹한 늪은 뱀과도 같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화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속삭이는 소리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소리가 곧
 용의 소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자신이 하려는 일을
 생각해보지 않고 곧장 행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화를 미치게도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정 속에서 이 짐승이 저지르는 일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 속에 든 이기적인 사랑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짐승의 속성인 것이다.

위와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용이 짐승을 도와주는 소리에 해당된다. 만약 우리가 위의 사항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짐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본문에서 흰말을 타신 분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이다. 흰말을 타신 분이란 주님이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그린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 이라 하였다” 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요한은 바다에서 무엇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가?
- * 이 짐승이 용과 같은 점은 무엇인가?
- * 이 짐승의 부분은 다른 동물의 어떤 부분과 같았는가?
- * 누가 이 짐승과 맞서기 위해 천국에서 출현했는가?
- * 이 승마자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자.
- * 그분에게는 어떤 세 가지 다른 이름들이 주어졌었는가?
- * 누가 그분과 함께 있었는가?
- * 어떤 일이 짐승에게 일어났는가?
- * 이 짐승이란 우리 심정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 * 흰말을 타신 분이 “하느님의 말씀” 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 * 우리는 어디서 주님의 도움을 발견할 수 있는가?

질문 정리

- 1) 제 12장에서 요한은 먼저 무엇을 보았는가?
- 2) 무엇이 여자를 위협했는가?

- 3) 용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 4) 여자의 아기는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5) 여자는 어디로 갔는가?
- 6) 누가 용과 싸웠는가?
- 7) 누가 승리했는가?
- 8) 여자는 어떻게 구해졌는가?
- 9) 본문에서 무엇이 먼저 등장되는가?
- 10) 짐승의 모습은 어떠한가?
- 11) 그의 머리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 12) 둘째 짐승은 무엇과 같았는가?
- 13) 이 환상에서 용은 어떤 부분을 담당했는가?
- 14) 짐승의 수는 무엇인가?
- 15) 둘째 본문에서 천국이 열리자 무엇이 나타났는가?
- 16) 승마자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 17) 승마자는 어떤 세 가지로 불리는가?
- 18) 누가 흰말을 타신 분을 뒤따르고 있는가?
- 19) 어떤 잔치가 주어졌는가?
- 20) 짐승은 어떻게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태양을 입은 여자 2) 용 3) 일곱 머리, 열 뿔
- 4) 하나님에게 들려 올라갔다 5) 광야 6) 미가엘 7) 미가엘
- 8) 독수리 날개 9) 모든 세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너라
- 10) 짐승 11) 일곱 머리, 열 뿔, 열 왕관 12) 상처받았다
- 13) 어린양처럼 두 뿔이 있다 14)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 15) 666 16) 흰말 17) 불꽃같은 눈, 많은 왕관, 피에 젖은 옷
- 18) 신의와 진실, 하나님의 말씀, 왕의 왕 19) 군대들

20) 불뭇에 던져졌다

39

요한 환상의 끝

머리말

성경을 마감하는 구절에 다음의 간단명료한 몇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 여부가 자유로운채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의 총명이나 의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적인 행복에의 길이다. 다섯째, 선택은 우리의 것이지만 그 선택은 이 세상에서 행해져야만 하며 사후에는 어떤 것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죽음에서 일어나서 영화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느님으로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느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혹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2장 8-21절

8.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 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9. 그러자 그는 “이러지 말아라. 나도 너나 네 형제인 예언자들이나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중에 지나지 않는다. 경배는 하느님께 돌려라” 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는 이어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때가 가까왔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12.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 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¹³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¹⁴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사람은 행복하다. ¹⁵ 개들과 마술장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다 문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¹⁶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샅별이다.” ¹⁷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도 “오소서!” 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¹⁸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¹⁹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몫을 하느님께서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²⁰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²¹ 주 예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해설

요한에게 주어진 마지막 환상은 아름다운 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 성은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으로 불리며, 하느님께로부터 천국을 통해 내려오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름인 새예루살렘의 근원이 바로 이 구절임을 기억해야 한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될 천국적 삶에 대한 상징적 묘사이다.

본문은 성경의 마지막 장이다. 계시록 22장은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의 묘사로 시작된다. 이 강의 양쪽에는 달마다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 천사는 이 모든 것들을 요한에게 보여 주었고, 요한은 이 환상이 어떻게 끝나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요한을 인도한 천사역시 자신이 지상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역시 올바른 것을 행하며 바르게 산다면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배우면서 준수하여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 도성의 문이 항상 열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에서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즐기기도 한다. 우리 역시 때로 그런 사람들에 속할 수 있는데. 이는 아름답고 선한 것들보다 찌그러지고 나쁜 것을 좋아함을 의미한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자유 의지에 달려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사후에 우리가 천사가 될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주님의 계명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만 한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생명수의 강과 나무는 성경의 어느 또 다른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가?
- * 사마리아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께 요청했다면 그분께서 주실 생명수를 기억하는가?
- * 생명 있는 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요한복음에서 열매 맺는 나무에 관하여 공부한 사항은 무엇인가?
- * 누가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가?
- * 주님은 누구에게 초대장을 보내시는가?
- * 성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인가?
- * 요한의 천사는 자신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질문 정리

- 1) 제 12장에서 요한은 먼저 무엇을 보았는가?
- 2) 무엇이 여자를 위협했는가?
- 3) 용의 모습은 어떠한가?
- 4) 여자의 아기는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5) 여자는 어디로 갔는가?
- 6) 누가 용과 싸웠는가?
- 7) 누가 승리했는가?
- 8) 여자는 어떻게 구해졌는가?
- 9) 본문에서 무엇이 먼저 등장되는가?
- 10) 짐승의 모습은 어떠한가?
- 11) 그의 머리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 12) 둘째 짐승은 무엇과 같았는가?
- 13) 이 환상에서 용은 어떤 부분을 담당했는가?
- 14) 짐승의 수는 무엇인가?
- 15) 둘째 본문에서 천국이 열리자 무엇이 나타났는가?
- 16) 승마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 17) 승마자는 어떤 세 가지로 불리는가?
- 18) 누가 흰말을 타신 분을 뒤따르고 있는가?
- 19) 어떤 잔치가 주어졌는가?
- 20) 짐승은 어떻게 되었는가?

질문의 답

- 1) 태양을 입은 여자 2) 용 3) 일곱 머리, 열 뿔
- 4) 하느님에게 들려 올라갔다 5) 광야 6) 미가엘 7) 미가엘
- 8) 독수리 날개 9) 모든 새에게 하느님의 큰 잔치에 오너라
- 10) 짐승 11) 일곱 머리, 열 뿔, 열 왕관 12) 상처받았다
- 13) 어린양처럼 두 뿔이 있다 14)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 15) 666 16) 흰말 17) 불꽃같은 눈, 많은 왕관, 피에 젖은 옷
- 18) 신의와 진실, 하느님의 말씀, 왕의 왕 19) 군대들
- 20) 불못에 던져졌다

새교회 날(2)

머리말

본과는 매해 6월 셋째 주일을 위해 계획된 것이다. 새교회의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이 주어진 까닭을 주로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1장 1-12절

1.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 때 나는 옥좌로부터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8.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흉측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간음한 자와 마술장과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장자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향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9.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¹⁰.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¹¹.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싸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백옥 같았습니다. ¹².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해설

우리는 6월 19일이 있는 주일에 “새교회 날” 을 기념하는데, 이는 1770년 6월 19일에 새교회가 천국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본문은 이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은 새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성으로서 그것을 보았던 것이다.

예루살렘은 “평화로운 곳” 이란 뜻이다. 평화란 사랑스럽고 행복하며 다툼이나 비웃음이 없는 상태로서, 타인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으며 항상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그렇다면 불행이란 무엇일까? 불행이란 우리가 나태해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어이 행함으로써 처벌받게 될 때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를 지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빼놓아진 것 대신 올바른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는 대신 타인의 행복을 보고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평화를 얻은 후 거룩한 성에서 살게 된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문을 정리해 보자.

- * 본문에는 새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 * 비유란 무엇인가?
- *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누가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고 그 의미를 전하는 도구로서 선택되었는가?
- * 주님의 인도 하에 스웨덴불이 한 일은 무엇인가?
- * 새교회의 날의 기원은 언제인가?

- *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는가?
- * 새교회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 *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뜻하는가?
- *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무엇을 통해 주어지는가?
- *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예언된 주님의 재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하늘의 구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 정리

- 1) 오늘 우리는 어떤 날을 기념하는가?
- 2) 왜 우리는 6월 19일을 “새교회 날” 이라고 부르는가?
- 3) 우리 교회의 이름의 근원은 무엇인가?
- 4) 누가 거룩한 성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을 통해 내려오는 모습을 처음 보았는가?
- 5) 성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6) 성벽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7) 단어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하는가?
- 8) 왜 세상은 마지막 계시를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는가?
- 9) 세상의 지식과 주님에 관한 지식 중 어느 것이 보다 더 중요한가?
- 10) 주님은 재림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 11) 왜 주님은 인간에게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는가?
- 12) 주님이 악을 허용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 13)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큰 시험은 무엇인가?
- 14) 새교회인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새교회 날 2) 순정기독교 791항 참조 3)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
- 4) 사도 요한 5) 교리 6) 말씀 글자 7) 평화의 장소

- 8) 인간이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 9) 주님에 관한 지식
- 10) 말씀의 내적 의미를 밝히심으로
- 11) 주님과 이웃사랑은 반드시 자유롭게 선택되어야 하므로
- 12) 인간의 자유를 보존하시기 위해 필요하므로
- 13) 자기 총명의 자랑
- 14) 말씀과 스웨덴북의 저서를 수단으로 이웃이 주님께로 인도되도록 도움